

柔道



142

2025
봄/여름호

“34년 만이요?
전 최초가 목표예요”
세계선수권 금메달 김하윤

2025 세계유도선수권대회

34년 만의 금빛 환희,
그리고 사상 첫 은빛 감동
한국 유도, 부다페스트를 강타하다

CONTENTS

2025 SPRING/SUMMER
VOL. 142



2025 SPRING/SUMMER KOREA JUDO ASSOCIATION VOL.142

발행일
2025년 7월 25일 | 통권 142호

등록번호
송파 바 00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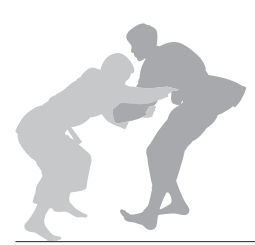
등록일자
1986년 9월 30일

발행인 겸 편집인
조용철

인쇄처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대한유도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17호

TEL 02-422-0581
FAX 02-420-4995
Homepage judo.sports.or.kr
E-mail judo@sports.or.kr



특별 인터뷰

02 조용철 제39대 대한유도회장

특집

06 2025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리뷰
14 세계유도선수권 금메달 김하윤 인터뷰
16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단장 '이대성 회장'을 만나다

국제대회

18 2025 파리그랜드슬램
22 2025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국내대회

24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국가대표 2차 선발전)
28 제4회 양평 몽양컵 전국유도대회
32 2025 명실상주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34 제29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인터뷰

36 국제유도심판 '김준환·김태운'

현장을 찾다

40 '유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시험' 현장 속으로

유도학개론

42 8년 만에 부활한 '유효', 한국 유도가 웃는 까닭은

데이터랩

44 다윗과 골리앗, 누가 더 유리할까?

NEWS IN JUDO

46 유도 뉴스 및 유도인 동정
49 제39대 대한유도회 집행부, 분과위원장 명단

RECORD

50 유도 기록실
58 2025년 제1차·제2차 정기승단자 명단

“생활체육은 모두를 위한 유도로,
대표팀은 세계를 향한 경쟁력으로”

조용철 제39대 대한유도회장이 제시한 투트랙



최근 연임에 성공한 조용철 대한유도회장은 기쁨보다는 사명감과 고민이 앞선다고 했다.
제38대에 이어 제39대 회장으로 새 출발을 알린 그가 그리는 ‘한국 유도’의 청사진은 무엇일까.

연임을 축하드린다. 다시 회장직을 맡게 된 지금, 어떤 각오인가.

다시 회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기쁨보다는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명감이 더 크다. 지난 임기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들을 이번 임기 안에 하나씩 완성에 나가겠다. 무엇보다 다시 기회를 준 유도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재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유도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오직 유도만을 생각하며 걸어왔다. 대한유도회 국제이사로서 활동을 시작한 후로는 ‘한국 유도의 발전’이라는 목표 하나만 보며 책임을 다해왔다. 하지만 4년 임기로는 구상해 온 일들을 모두 실현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한 번 더 기회를 얻는다면, 그동안 준비해 온 사업들을 실행에 옮겨 한국 유도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었다.

앞선 임기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정책이나 변화는.

무엇보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에 집중했다.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이후 대부분의 종목 단체는 양 체계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하지만 유도는 생활체육협회가 따로 없어 대한유도회가 모든 업무를 일원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트와 생활체육 통합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생활체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전국대회 초등부와 중등부 부문에서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선수가 함께 출전하는 구조가 정착되었고, 현재 연간 5회의 생활체육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다. 전국 유도장 수도 600개를 넘어서며 생활체육의 실질적인 성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협회 운영에서 가장 중시한 원칙이나 철학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정칙과 원칙이었다. 이 기초를 바탕으로 하되,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유연한 리더십을 지향했다. 지난 임기 동안 일부 분과위원회 활동이 미진했고, 집행부와 사무처 간 유기적 협력에도 아쉬움이 남았다. 차기 임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조직 전반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유도를 통해 삶이 더 건강해지고,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유도는 이제 단순한 경기 종목을 넘어 생활 속 건강한 습관이자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아야 한다.

지난 4년을 돌아봤을 때 협회 운영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점은 어디인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대표팀의 경기력 향상, 둘째는 협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계 마련, 셋째는 유도인의 인권 강화다. 대표팀은 세대교체를 통해 전반적인 경기력은 향상됐지만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금메달이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2028년 LA 올림픽을 목표로 한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ESG 경영 역시 주요 체육단체들이 적극 추진 중이지만 유도계는 이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더뎠다. 공직유관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을 수립해 실행할 계획이다. 유도인 인권 문제도 지난 임기 내내 강조해왔지만 아직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진 못했다. 제도적 보완과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생활체육 없이는 엘리트도 없다”
한국 유도가 그리는 ‘1만 동호인 시대’**

이번 선거에서 생활체육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생활체육은 한국 유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이자 핵심 축이다. 튼튼한 생활체육 기반 없이는 엘리트 체육의 장기적 성장도 담보할 수 없다. 이번 임기에는 유도가 더욱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지역과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 한국 유도의 생활체육 기반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현재 전국적으로 600개 이상의 유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동호인 등록 인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6,780명에서 2024년 9,132명으로, 그리고 2025년 6월 기준 1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생활체육 기반의 양적 성장을 잘 보여주는 지표다.
학교 체육 부문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유도 입문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업 시수 과다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스포츠클럽 역시 일부 지역에 국한된 운영에 머무르고 있어, 전국적 확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유도장 홍보 및 운영 지원, 체육관 공인제 도입, 동호인 등록비 무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 체육 지도자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스포츠클럽 창단은 지자체 및 지역 유도회와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동호인 카드 무료 발급 등 생활체육 관련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는.
생활체육 동호인 카드 무료 발급, 순위제 도입,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여 확대, 공인 도장제도 시행 등이 이번 선거 주요 공약이었다. 그중 동호인 카드 무료화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등록 인원이 급증하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생활체육 순위제는 국제대회 참관사업 파견 선수 선발 기준이자 우수 동호인 및 유도장 표창 기준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대축전 참여는 전국 생활체육인 간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인 도장제도는 무자격 지도자 문제를 예방하고 동호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장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생활체육이 엘리트 체육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가.
생활체육의 기반이 튼튼해질수록 우수한 동호인 선수의 발굴 가능성도 높아진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유도장이나 스포츠클럽에서 훈련한 동호인 선수가 전국대회에서 엘리트 선수를 이기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12세 이하 꿈나무 대표, 15세 이하 청소년 대표로 발탁되기도 했다. 이처럼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유도 전반의 기량 향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다.
물론 고등학교 진학 후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동호인 선수가 엘리트 체계에 완전히 편입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장기적으로 대표팀 성적 향상에도 선순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해 왔다. 향후 협회의 역량은 어느 쪽에 더 집중되는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탄력적인 전략을 택할 예정이다. 엘리트 체육은 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한 포인트 관리와 전략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생활체육은 저변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황과 목적에 따라 역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정비 계획은.
핵심은 도장-학교-클럽을 유기적으로 잇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대회 참가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동호인 선수도 꿈나무 → 청소년 대표 → 후보 선수로 이어지는 통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물론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운동 지속의 현실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예컨대 방학 기간 훈련캠프 운영, 우수 동호인 및 유도장 포상 제도 등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계 간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AI 전력 분석으로 12년 금메달 가뭄 끝낸다”
다시 뛰는 한국 유도, LA서 영광 되찾는다**

대표팀은 최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파리올림픽 이후 새롭게 구성된 대표팀은 정성숙 여자대표팀 총감독과 황희태 남자대표팀 감독의 지도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헝가리 세계선수권대회 성적에서 나타났듯 신구 조화와 팀 결속력, 그리고 경기력이 점차 무르익는 분위기다. 부상 관리, 체력 보강, 훈련 운영 등이 체계적으로 정착돼 있어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8년 LA 올림픽에서도 충분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

다고 본다.
2028년 LA 올림픽을 대비한 협회 차원의 전력 강화 전략이나 선수 육성 방안은.
무엇보다 지금의 대표팀 구성을 신뢰하고 있다. 이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선수 육성 체계는 꿈나무 → 청소년 대표 → 후보 선수 →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미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육성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보완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국 유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제적 흐름과 경쟁국의 전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 확보다. 특히 AI 기반 데이터 분석 등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해 경기력 분석 및 전략 수립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지도자들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접근 방식이 필수다. 협회는 이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역량 강화를 준비 중이다.
이번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최우선 목표는.
이번 임기의 핵심 목표는 ‘유도는 누구에게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유도를 통해 삶이 더 건강해지고,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유도는 이제 단순한 경기 종목을 넘어 생활 속 건강한 습관이자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 흐름을 이번 임기 내에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짓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유도 지도자, 선수, 동호인, 그리고 유도에 애정을 가진 모든 분들께 앞으로도 한국 유도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유도의 힘은 결국 유도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서 나온다. 🌱
글. 송현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대한유도회

파리 올림픽에서의 감동은 분명히 눈부셨다.
하지만 그 여운에 안주하지 않았다.
한국 유도는 다시 매트 위에 섰고, 다시 몸을 던졌다.

2025년 부다페스트.
뜨거운 여름의 심장부에서,
그들은 다시 한 번 자신을 증명했다.

34년을 기다린 여자 최중량급 금메달.
혼성 단체전 첫 은메달이라는 새 역사.
메달은 하나의 결과일 뿐.
진짜 감동은 그 과정에 있었다.

우리는 지금,
그 뜨거운 한 걸음을 다시 마주한다.



34년 만의 금빛 환희, 그리고 사상 첫 은빛 감동 한국 유도, 부다페스트를 강타하다

2025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리뷰



‘파리올림픽의 감동은 잊어라.’

한국 유도가 다시 된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단체전 동메달’의

드라마를 썼던 한국은 이번 2025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또 한 번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34년 만에 여자 최종량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사상 처음으로 혼성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거는 등

그야말로 역대급 기록을 남겼다.

이준환, 김민종의 연속 메달 수확부터

김하윤, 이현지의 동반 포디움 입성까지.

그 뜨거웠던 순간의 열기를 되짚어 본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국제유도연맹(IJF)

3년 연속 시상대 선 이준환 “다음엔 꼭 금메달 딸게요”

남자 -81kg급에 출전한 이준환(포항시청)이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3년 연속 이 대회 시상대에 올랐다. 이번 대회 한국의 첫 메달이기도 하다.

6월 1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대회 남자 -81kg급 동메달 결정전. 이준환은 우즈베키스탄의 아르슬론베크 토이이예프를 상대로 2분 39초 만에 외깃 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두고 3위를 차지했다.

경기 초반 팽팽하던 흐름은 단 한 번의 기습으로 갈렸다. 토이이예프의 외깃을 깊게 움켜쥔 이준환은 자신의 중심이 무너지기 직전, 상체를 비틀어 눈 깜짝할 새 상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토이이예프의 등은 그대로 매트에 꽂혔고, 심판은 즉시 손을 들어 그의 한판을 선언했다.

이로써 이준환은 2023년 도하, 2024년 아부다비에 이어 3년 연속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이라는 기록을 완성했다. 같은 체급 한국 선수로는 김재범(현 한국마사회 감독)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의미 있는 점은, 해마다 달라진 방식으로 같은 무대에 섰다는 것이다. 그는 “3년 연속 메달도 의미 있지만, 해마다 다른 방식으로 내 유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더 뜻깊다”고 말했다.



이준환의 유도는 정교함보다는 폭발력에 가깝다. 계산보다 타이밍, 수싸움보다 충돌. 정제된 기술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한 방이다. 상대를 지치게 하기보다 먼저 무너뜨리는 ‘직진 유도’가 그의 정체성이다. 황희태 한국 남자 유도 대표팀 감독은 “이준환은 정제된 수보다 본능적인 속도와 임팩트에 집중한 스타일”이라며 “이번 대회에서도 그 강점이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아쉬움도 있었다. 8강전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젤림 트치카예프에게 업어치기 되치기를 허용하며 절반패를 당했다. 결승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펼쳐진 패자부활전에서 그는 독일의 마티아스 카세를 상대로 2분 29초 만에 어깨로메치기 한판승을 거두며 곧바로 반등했다. ‘번개맨’으로도 불리는 이준환의 유도 정체성을 정확히 보여준 장면이었다.

그의 주특기인 업어치기와 어깨로메치기는 모두 ‘타이밍’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술이다. 공격 타이밍을 놓치면 되치기의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이준환은 늘 담담하게, 먼저 던지는 쪽을 택한다.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앞서 나서는 선택. 그 반복이 지금의 3년 연속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준환은 이제 단지 꾸준한 선수가 아니다. ‘이준환’이라는 이름은 세계 무대에서도 또렷한 색깔과 무기를 지닌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그는 기술의 미묘한 타이밍과 폭발의 순간을 감각적으로 직조해 내는 유도를 펼친다. “다음 목표는 금메달”이라는 그의 각오는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철학의 다음 단계다.

그리고 지금, 세 번의 세계선수권 시상대에 오른 그는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내 스타일로, 세계 꼭대기에 설 수 있을까?’

‘여전히 날카롭고 묵직했다’

간판스타 김민종, 다시 한번 증명한 무게감

남자 +100kg급에 출전한 김민종(양평군청)이 2025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2년 연속 이 대회 시상대에 섰다. 지난해 금메달에 이어 꾸준히 세계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6월 19일 열린 남자 +100kg급 동메달 결정전. 김민종은 개인중립국 소속 타멜란 바샤예프와 연장 접전을 펼쳤다. 정규시간 4분은 물론, 연장전 골든스코어에서도 팽팽한 균형이 이어졌다. 그러나 김민종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골든스코어 1분 16초, 안다리와 오고대떨어뜨리기를 연속으로 연결해 절반을 따냈다. 승부처에서 나온 노련한 연계 기술이었다.

경기 직후 그는 “꼭 잡고 싶었던 경기였다. 연장에서 준비했던 기술이 들어가 다행”이라며 “작년엔 금메달, 올해는 동메달이지만 여전히 최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김민종은 지난해 아부다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남자유도 최종량급에 39년 만의 세계 정상 탈환을 안겼다. 이후 파리올림픽 은메달, 그리고 이번 동메달까지. 꾸준히 시상대를 지켜내며 체급 내 입지를 단단히 굳히고 있다. 더 강해진 체력, 더 넓어진 시야, 더 깊은 경기 운영 능력. 시간이 흐를수록 ‘완성형 선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다. 준결승에서 만난 조지아의 구람 투시슈빌리와의 경기에서 연장 한판패를 당하며 결승 문턱에서 멈춰야 했다.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고 몰아붙였지만, 연장 초반 상대에게 모로떨어뜨리기 한판을 허용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동메달 결정전에선 흔들림 없이 돌아왔다. 다시 단단해진 김민종은 특유의 무게감으로 승부를 끝냈다.

이번 메달은 단순한 입상이 아니다. 각기 다른 유형의 강자들을 상대로 전술적 유연함을 발휘했고, 연장에서의 집



중력과 판단력에서도 한층 깊어진 내공을 보여줬다. 특히 승부처에서의 침착함과 기술 연결 능력은 ‘간판스타’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경기력이었다. 김민중은 말했다. “이번 대회는 부족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다음 대회에서는 더 단단하고 정교한 선수가 되어 돌아오겠다.” 그의 시계는 벌써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28년 LA 올림픽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넘어지지 않는 선수는 없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이만이 정상에 머문다. 김민중은 지금 그 길 위에 있다.

‘괴물 여고생’ 이현지, 성인 무대에서도 통했다

같은 날 열린 대회 여자 +78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현지(남녕고)는 네덜란드의 마리트 캄프스를 상대로 2분 2초 만에 허리대돌리기 한판승을 거두며 시상대에 올랐다. 세계선수권대회 데뷔전에서 곧바로 메달을 수확한 놀라운 성과다. 성인 무대에서도 이현지의 유도는 흔들림이 없었다.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고, 상대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단호하게 경기를 끝냈다. 짧고 날카로운 기술 하나로 흐름을 가져오는 그의 강점이 그대로 드러난 한판승이었다.

앞선 패자부활전에서도 그는 또 다른 네덜란드 강자 카렌 스티븐슨을 상대로 허리후리기 한판승을 거뒀다. 8강전에서 대표팀 간판 김하윤에게 반칙패를 당했지만, 곧바로 연속 한판승으로 흐름을 되살리며 다시 시상대 문을 두드린 것. 경기 감각과 멘탈, 회복력까지 모두 인상적인 여정이었다. 놀라운 건 이현지가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금메달에 이어 올해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곧바로 입상에 성공하며, 두 무대 모두에서 존재감을 입증했다.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결과로 증명한 ‘현재형 선수’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번 대회에서 이현지가 보여준 가장 큰 무기는 힘이나 경험이지 아닌 흔들림 없는 집중력이었다. 성인 강호들을 상대로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리듬을 끝까지 유지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확한 기술로 흐름을 마무리했다. 대한유도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정신적으로도 매우 단단한 선수”라는 평가다.

경기 후 이현지는 “처음 나선 시니어 세계선수권이라 부담도 있었지만, 한 경기씩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주자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현지의 이름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무대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스포트라이트보다 매트 위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한 그는, 더 이상 ‘깜짝 스타’가 아니다.

김하윤, 34년 만에 다시 쓴 여자 최중량급 금메달 신화

‘마지막 주자’ 김하윤(안산시청)이 끝내 해냈다. 6월 19일 열린 여자 +78kg급 결승에서 일본의 아라이 마오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는 1991년 문지윤 이후 34년 만에 한국 여자 유도 최중량급이 세계 정상에 복귀한 쾌거다. 결승전은 정규시간 4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할만큼 치열한 접전이었다. 연장에서도 두 선수 모두 선βολ리 공격에 나서지 못했고, 팽팽한 잡기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흐름의 주도권은 점차 김하윤에게 넘어갔다. 지치지 않는 압박으로 상대를 수세에 몰아넣은 그는 연장 42초 만에 세 번째 지도를 유도해 반칙승을 따냈다.



“가장 넘기 힘든 벽 같았던 상대를 결승에서 이겨 더 의미 있었다.” 경기 직후 남긴 짧은 소감엔,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룬 증명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하윤은 이번 대회 네 경기에서 모두 반칙승을 거뒀다. 한판승은 없었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8강에선 고교생 돌풍 이현지를, 준결승에선 세계랭킹 1위 로마네 디코(프랑스)를 넘었다. 상대의 강한 공격을 완벽히 봉쇄한 뒤, 치밀한 압박으로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네 경기 모두 동일한 승리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완성된 ‘전략 유도’의 결과였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확실했고, 과감하진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김하윤의 금메달은 단순한 채금 우승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세계 무대에서 고전하던 한국 여자 최중량급의 흐름을 단숨에 되돌린 상징적 승리였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아쉬움을 딛고, 기술보다 흐름을, 힘보다 운영을 앞세운 노련한 유도로 돌아왔다. 물론 과제는 남아 있다. 결정적인 한판 기술로 경기를 매듭질 ‘파괴력’은 앞으로의 성장 과제로 남는다. 그러나 상

대를 메치지 않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유도, 그 완성도를 김하윤은 이번 대회에서 온전히 입증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조용히 내뱉은 각오 속에는, 이미 다음 무대를 향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의 시계는 내년 바쿠 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2028년 LA 하계올림픽을 향해 움직인다. 34년 만의 금빛 귀환은 끝이 아니다. 이제 김하윤은, 여자 유도 최중량급의 ‘미래’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지켜야 했기에 더 흔들렸다
챔피언 허미미, 다시 도전자로

허미미(경북체육회)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7kg급 금메달로 한국 유도의 중심에 섰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우승’이었지만, 그는 실력으로 모든 의심을 지워줬다.

1년 뒤, 그는 ‘쫓는 자’가 아닌 ‘지켜야 하는 자’로 다시 매트에 섰다. 그러나 챔피언의 무게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허미미는 2회전에서 브라질의 시를렌 나시멘투와 맞붙었다.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손목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특유의 민첩한 움직임도 여전했다. 그러나 상대의 강한 돌파에 중심을 잃었고, 결국 나오는발차기에 절반을 내줬다. 이후 흐름을 되찾지 못한 채 그대로 경기를 내줬다.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던 것 같다. 기술보다 마음이 흔들렸다.” 경기 후 허미미가 남긴 한마디는 짧았지만, 지난 1년간 어깨 위에 얹힌 책임감과 타이틀 방어 압박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허미미는 아직 2000년대생. 이제 막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 선 선수다. 이번 조기 탈락은 분명 뼈아프지만, 결코 커리어를 꺾는 실패는 아니다. 어쩌면 작년의 ‘영광’보다, 올해의 ‘패배’가 더 깊은 성찰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세계 톱 수준이다. 앞으로는 챔피언으로서의 심리적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허미미의 향후 가능성에 신뢰를 보냈다.

한편 이번 대회 개인전에는 남녀 총 17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해 김하윤, 김민중, 이현지, 이준환 등 4명이 시상대에 올랐다.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이들 못지않게 굵은 땀방울을 쏟아낸 또 다른 태극 전사들이 있다. 이하림(-60kg급·국군체육부대), 김찬녕(-66kg급·하이원), 배동현(-73kg급·포항시청), 김종훈(-90kg급·양평군청), 김세현(-100kg급·한국마사회), 이승엽(+100kg급·양평군청), 이경하(-48kg급·제주특별자치도청), 장세윤(-52kg급·KH그룹필룩스), 김주희(-57kg급·충북도청), 신채원(-63kg급·순천시청), 이예랑(-70kg급·한국체대), 김민주

(-78kg급·광주교통공사) 등이 그 주인공이다.

무대는 내려왔지만, 여정은 다시 시작된다. 허미미를 비롯한 대표팀은 ‘도전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내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와 2028년 LA 하계올림픽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 힘차게 내디딘다.

은메달로 장식한 혼성 단체전
한국 유도, 이제는 팀으로 세계를 흔든다

이번 세계유도선수권대회의 마지막 날. 한국 유도 대표팀은 혼성 단체전 결승전에서 조지아에 1-4로 패했지만 사상 첫 은메달을 목에 걸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단체전이 세계선수권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한국이 결승 무대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목표하던 금메달엔 닿지 못했지만,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높이까지 올라선 것이다.

이번 혼성 단체전은 남녀 각 3명씩 총 6명이 체급별로 맞붙는 방식이었다. 한국은 16강에서 몽골을 4-0으로 완파



하며 기본 종계 출발했고, 8강에선 프랑스를 상대로 4-3 짜릿한 신승을 거뒀다. 준결승에서 유럽 강호 독일마저 4-0으로 제압한 한국은 조지아를 상대로 금빛 마무리를 그렸다. 결승전 흐름 역시 나쁘지 않았다.

첫 주자로 나선 +90kg급 이승엽이 한판승으로 포문을 열며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이어 출전한 허미미, 이예랑, 김종훈 등이 잇달아 점수를 내주며 흐름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최종 스코어는 1-4. 한국은 끝내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은메달을 목에 건 한국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다. 이번 은메달은 단순히 ‘값진 2위’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유도가 개인전 강국을 넘어, 단체전에서도 통할 수 있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새로운 문을 열었고, 이제 더 멀리 나아갈 일만 남았다. 대표팀은 이 성과를 디딤돌 삼아 2028년 LA 올림픽을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금보다 빛났던 이 은빛 승부는, 그 여정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 柔

“저흰 라이벌이 아니라 파트너예요”
김하윤·이현지, 최중량급 ‘쌍두마차’가 뜬다

한때는 대표팀의 고민거리였다. 한국 유도에서 여자 +78kg급은 늘 다른 체급에 비해 존재감이 떨어지는 ‘약점 체급’이었다. 그러나 2025 세계유도선수권대회를 기점으로, 이 체급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됐다. 김하윤이 34년 만의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고교생 이현지까지 동메달을 목에 걸며 나란히 시상대에 선 것이다.

두 선수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다. 김하윤은 강한 체력과 운영 능력을 앞세워 상대의 빈틈을 유도하고, 이현지는 날카로운 반응 속도로 흐름을 끊어내는 스타일이다. 접근 방식은 달라도 이들에게는 하나 된 철학이 있다. ‘지지 않는 유도’. 상대를 억누르기보다 버티고, 흔들고, 끝내 무너뜨리는 집요함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특히 인상 깊은 건 둘 사이의 관계다. 이번 대회 8강전에서 맞붙어야 했던 두 사람은,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았다. 이현지는 말했다. “언니 경기를 보면서 유도를 배웠다. 물론 8강에서 언니에게 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언니가 꼭 금메달까지 갔으면 했다.”

이에 대해 김하윤은 “결승보다 현지와와의 8강전이 더 어려웠다”며 웃었다. 이어 “예전엔 현지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르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라이벌’이 아닌 ‘파트너’. 김하윤은 그 단어를 힘주어 강조했다. “다음 세계선수권에선 결승에서 현지와 다시 만나고 싶다. 서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한 체급에서 같은 국적의 두 선수가 동시에 시상대에 오른 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며 “+78kg급은 이제 우리 대표팀의 전략 체급이 됐다”고 평했다.

이는 단순한 메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 명의 스타가 체급을 이끄는 그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향의 두 선수가 함께 무게를 나누고 중심을 만드는 과정이다. 김하윤의 노련함과 이현지의 패기가 공존하는 +78kg급은 이제 한국 여자 유도의 중심축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체급이 됐다.



세계선수권 금메달 김하윤

“34년 만이요?
전 최초가 목표예요”



“우승 소감이요? 당연히 행복하죠(웃음).”

환한 웃음과 함께 터진 첫 마디는, 그간의 무게감을 단숨에 털어내는 듯했다.

지난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5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여자 +78kg급 간판 김하윤이 34년 만에 세계 정상에 섰다.

1991년 문지윤 이후 한국 여자 유도 최종량급이 이 대회서 거둔 첫 금메달이었다.

“34년 만이라는 말도 좋지만, 사실 전 ‘최초’가 더 좋아요. 다음 올림픽에서 이 체급 한국 최초 금메달을 따는 게 진짜 목표예요.”

김하윤은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강호 아라이 마오(일본)를 꺾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간 2번 만나 2번 모두 졌던 상대. 특히 그라운드 기술에서 늘 밀렸지만, 그는 자신의 약점을 채우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서서 할 때는 이길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라운드에서 맨날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방어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도 ‘굳히기만 안 당하면 이긴다’고 했고, 저도 이번엔 확실히 준비해서 온 거예요.”

그 준비는 결과로 증명됐다. 8강전부터 결승까지, 세계 최강자들을 상대로 4경기 연속 반칙승. 화려했던 않았지만,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전략 유도’였다. 심지어 그는 올 초 갈비뼈 부상으로 실전 공백이 길었다. 2월 파리 그랜드슬램 출전 이후 통증으로 인해 아시아선수권대회도 건너뛰어야 했다.

“갈비뼈 연골이 손상돼서 경기를 거의 못 뛰었어요. 연습은 했지만 실전 감각이 걱정이었죠. 그래도 이번엔 무조건 1등 하자는 마음으로 왔어요. 후회 없이 하자, 그것뿐이었어요.”

이번 우승 후 펼친 세리머니도 화제가 됐다. 유도장 한가운데서 양손으로 하늘을 가리킨 그 동작은, 부산 야구팬이라면 분명 익숙한 동작이었다.

“맞아요, 롯데 자이언츠의 ‘약속 세레머니’였어요. 부산 출신이라 롯데 팬이거든요. 시구를 노

린 건 아니고요(웃음). 유니폼 마킹은 이승엽 선수로 했어요. 롯데도 저처럼 올해 33년 만에 우승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34년 걸렸어요(웃음).” 김하윤의 승부는 시상대에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체급에서 동메달을 따낸 고등학교 이현지와 의 승부는, 오히려 결승보다도 부담스러웠다고 털어놨다.

“현지는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진짜 잘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이 많은 제가 더 부담스럽죠. 부담 느끼면 될 것도 안 돼요. 일부러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했어요.”

8강전에서 맞붙은 두 사람은 ‘선의의 경쟁자’이자 ‘훈련 파트너’다. 김하윤은 “라이벌이란 표현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요즘은 정말 파트너라고 느낀다”며 “현지 덕분에 나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가 은퇴하고도 여자 최종량급을 이어갈 선수가 있다는 게 고마워요. 현지 같은 후배와 함께 훈련하고 자극을 주고받는 건 제게도 큰 복

이에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2025 아부다비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김하윤의 시선은 이제 ‘그랜드슬램(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을 향한다. 아직 금메달이 없는 아시아선수권대회, 그리고 올림픽까지. 그중에서도 그는 2028년 LA 올림픽을 특히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

“그랜드슬램이 목표인 건 맞지만, 너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부담감은 내려놓고, 준비는 최선을 다할게요.”

김하윤과 이현지가 이번 대회에서 나란히 시상대에 선 것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과거엔 약점으로 불리던 여자 최종량급이, 이제는 대표팀의 전략 체급으로 주목받는다. 기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스스로 개척한 선수들의 노력이다.

“이제 이 체급은 저 혼자 책임지는 체급이 아니에요. 둘이 함께 만들어 가는 체급이죠. 여자 헤비급도 이제는 ‘한국 유도’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하윤의 유도는 ‘그랜드슬램 달성’, ‘한국 최초 여자 최종량급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다시 시작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





유도 대표팀의 든든한 지원군

한국대학유도연맹 이대성 회장을 만나다



“유도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즐겁다.” 에이루트एको 대표이자 한국대학유도연맹 회장인 이대성 회장의 첫마디는 명쾌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왜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단장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유도에 대한 그의 애정은 단순한 관심이 아닌, 삶을 관통하는 철학에 가까워 보였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이대성 단장 제공

“한국 유도, 다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이대성 회장은 한국 유도 대표팀 단장 자격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5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함께했다. 그는 걸로 드러나지 않는 지원이야말로 진정한 뒷받침이라 믿었다. ‘단장’이라는 역할 또한 단순한 직책을 넘어, 더 큰 책임과 의미로 받아들이었다.

단장 자격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다녀오셨습니까. 먼저 소회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계선수권대회는 선수들에게 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단장으로서 코칭스태프, 선수들과 함께하며 느낀 것은 한국 유도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 호흡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단장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항상 형제처럼 유도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용철 대한유도회 회장님께서 단장직을 제안해 주셨고, 저도 주저 없이 수락했죠. 덕분에 경기장 곳곳에서 ‘대! 한! 민! 국!’을 원 없이 외치며 선수들과 마음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단장으로서 어떤 면에서 선수단에 도움이 되고자 하셨나요?

선수들이 온전히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단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서포터야말로 진정한 지원이죠. 현장에서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 된 팀워크 속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대회 도중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대회 마지막 날 단체전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상당한 선수, 경기에 나서지 못한 선수,

체력의 한계에 부딪힌 선수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승패를 떠나 그 순간, 유도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제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기업가의 철학, 스포츠에 녹아들다

이대성 회장은 기업인으로서의 실무 감각과 사회 환원의 철학을 유도계에도 녹이고 있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그가 운영하고 있는 에이루트एको가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에이루트एको 기업에 대해서 소개 바랍니다.

에이루트एको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기술 기업입니다. ESG 가치를 실현하며 탄소 저감, 자원 순환 등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항상 앞장서고자 합니다.

ESG라는 시대적 가치와 유도의 도전정신을 엮어내는 것이 이번 후원의 핵심 철학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유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인내와 절제, 상상, 그리고 극한의 체력을 요구하는 종목입니다. ESG 역시 사람과 사회,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가치를 담고 있죠. 이번 후원을 통해 유도의 ‘정신적 지속 가능성’과 ESG의 ‘시대 정신’을 결합하고자 했습니다. 스포츠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저희의 핵심 철학입니다.



기업인 출신이십니다. 기업인으로서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발휘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업의 기본은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직원과 나누며, 나아가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 봉사의 기초에는 우리 대학유도연맹이 있습니다. 이런 철학을 실천해온 것, 그것이 제가 가진 강점입니다.

유도계에 필요한 ‘중간 허리’, 대학이 그 중심이 되길

그는 최근 연임에 성공하며 2029년까지 대학 유도연맹을 이끌게 되었다. 임기 내 추진할 계획들도 분명하다.

대학유도연맹 회장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공약으로 유도계에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하겠다고 예고하셨는데요. 향후 구체적인 공약과 플랜을 제시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 유소년부터 고교, 대학, 실업, 그리고 국가대표까지 이어지는 선수 육성 체계에서 대학 유도가 ‘중간 허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자체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 대학 유도 발전에 힘쓰고, 셋째로는 소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해 비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경험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유도계 내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현장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가치 있는 유도인’이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국가 대표로서, 누군가는 지도자로서, 누군가는 유도를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저는 그런 기반을 함께 만드는 데 제 삶을 바치고 싶습니다. ☁



111위 ‘반란’ 김종훈이 이룬 파리의 기적

2025 파리 그랜드슬램

세계랭킹 111위 김종훈(양평군청)이 파리 매트를 뒤흔들었다. 지난 2월 열린 2025 파리 그랜드슬램에서 세계 챔피언을 꺾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만개하지 못했던 만년 유망주의 반란.

그 한판은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유도가 거둔 단 하나의 금메달.

김종훈의 우승은 그 자체로 더욱 값졌다.

최근 중량급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남자 유도는, 또 하나의 보물을 손에 넣었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국제유도연맹(IJF)

세계 챔피언 넘은 무명의 ‘반란’

2월 3일, 파리 그랜드슬램 남자 -90kg급 결승전. 그날 파리 유도 매트는 단순한 ‘이변’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전율로 가득했다. 주인공은 24살의 김종훈. 그는 2023년 세계선수권 챔피언 루카 마이스라제(조지아)를 상대로 골든스코어(연장전) 접전 끝에 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두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앞선 경기들을 거치며 체력이 거의 고갈된 상태였지만, 그는 끝까지 집념을 놓지 않았다. 정규 시간 안에 승부를 내지 못해 연장전에 돌입했을 때도 지친 기색 없이 상대를 끈질기게 몰아붙였다. 연장 시작 약 40초 후, 체력이 떨어진 마이스라제의 하반신을 기습적으로 공략한 업어치기. 그는 전력을 다한 기술로 한판승을 이끌어내며 극적인 승리를 완성했다.

김종훈은 그저 한 판, 한 판 집중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에게 집중했던 이번 대회를 통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감을 다시 찾았다고 털어놨다. 아직 세계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이번 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종훈의 이번 대회 우승은 쟁쟁한 강자들을 연이어 꺾고 얻은 결과였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준결승에서 2024 파리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막심가엘 앙부(프랑스)를 허벅다리걸기 되치기 유효승으로 물리치는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연이어 제압하며 정상을 밟았다.

사실 김종훈은 이번 대회 전까지만 해도 시상대와는 인연이 없던 선수였다. 국가대표 최종 선발에서 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제대회에서도 초반 탈락이 잦았다. 기대주로서의 가능성은 인정받았지만 결과는 보여주지 못했다. 올림픽, 세계선수권, 심지어 그랜드슬램조차 메달 이력이 없었다.



김종훈



그렇기에 이번 금메달은 유도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국제유도연맹(IJF)은 김종훈의 금메달 소식을 웹사이트 메인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이렇게 전했다. “유도계에 대이변이 발생했다. 세계랭킹 111위, 그랜드슬램에서 단 한 번도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던 김종훈이 파리에서 정상에 올랐다.”

실력으로 만든 드라마

김종훈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성장해왔다. 숱한 역경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버텨내며 스스로를 단련했다. 특히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의 경험은 큰 자양분이 됐다. 그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던 선배들을 지켜보며 강한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했다. 선배들의 훈련 태도와 집중력을 보며 자신도 그 무대에 서고 싶다는 목표를 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성장을 이끈 또 하나의 동력은 황희태 남자대표팀 감독의 체계적 훈련이었다. 새벽 달리기로 하루를 시작해 오전에는 로프와

웨이트 트레이닝, 오후에는 기술 훈련까지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체력을 끌어올렸다. 힘겨웠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파리의 승리가 가능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체력이 올라오니 한국식 유도의 기술이 살아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무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든든한 조력자도 있었다. 바로 양평군청 팀원들이다. 그중에서도 체급은 다르지만, 국가대표 +100kg급 간판 김민종과의 훈련은 큰 자극이자 힘이 됐다. 김종훈은 김민종과 대표팀 룸메이트로 함께 생활하며, 훈련에 임하는 자세부터 준비하는 태도까지 모든 면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친구이자 동기인 김민종에게서 자주 영감을 얻는다는 그는,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훈의 이번 우승은 한국 유도 남자 -90kg급 계보에 새로운 이름 하나를 더한 순간이기도 하다. 송대남(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 곽동한(2016 리우올림픽 동메달), 한주엽(2024 파리올림픽 단체전 동메달)으로 이어진 이 체급의 역사에 김종훈이 새로운 챕

터를 열었다. 김종훈을 직접 지도한 경험이 있는 한 유도인은 “전도유망했지만, 늘 알을 깨지 못해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며 “조금은 늦었지만 마침내 그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흐뭇해했다. 이어 “워낙 성실하고 착한 선수라 앞으로 더 큰 선수가 될 것”이라며, “-90kg급을 대표하는 존재로 성장해 한국 남자 유도를 더욱 빛내 주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이제 김종훈은 다음 무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이번 결과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8 LA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을 목표로,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채찍질하겠다는 각오다. 2월 파리의 이번은, 어쩌면 ‘김종훈’이라는 이름이 국제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서막이였는지도 모른다. 그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차세대 에이스들의 값진 은메달

파리의 감동은 김종훈으로 끝나지 않았다. 같은 날, 남자 +100kg급에 출전한 이승엽(양평군청) 역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유도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승엽은 준결승에서 2021 세계선수권 우승자 사바 이나네슈빌리(조지아)를 감아치기 되치기로 유효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비록 결승에서 2023년 세계 챔피언인 이날 타소예프(개인 중립국)에게 아쉽게 한판패를 당했지만, 그의 은메달은 충분히 값진 성과였다.



이승엽

여자 +78kg급에서는 이현지(남녕고)가 은메달을 따내며 한국 여자 유도의 희망을 밝혔다. 이현지는 준결승에서 2023 도쿄 그랜드슬램 우승자인 아라이 마오(일본)를 업어치기 되치기 한판승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레아 퐁텐(프랑스)과의 접전 중 예기치 못한 골반 부상을 당하는 변수와 맞닥뜨렸다. 결국 아쉽게 기권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부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그의 투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한국 유도의 빛, 그리고 다음을 위한 약속

2025 파리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한국 유도대표팀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종합 3위에 올랐다. 김종훈의 반란과 이승엽-이현지의 은빛 투혼. 한국 유도의 가능성을 증명한 무대였다. 물론 모든 선수가 웃을 수는 없었다. 남자 -81kg급 이준환(포항시청)과 이준성(경남도청), -70kg급 박세은(제주특별자치도청), -100kg급 김세현(한국마사회)과 김채욱(울산시유도회), +100kg급 송우혁(하이원) 등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목표로 출전했지만 아쉽게도 빈손으로 돌아섰다. 또한 여자 -78kg급 김민주(용인대)와 김주운(동해시청), +78kg급 김하운(안산시청) 역시 메달권 진입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들의 도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한 번의 도전은 미래의 밑거름이 되고, 이 경험은 반드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파리에 서 쓰아올린 신포탄. 한국 유도는 이제, 다음 준비에 들어갔다. (柔)



이현지

한국 유도, 낯선 강자들의 강렬한 도약

2025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한국 유도가 아시아 무대에서 또 한 번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5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이곳에서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따내며 종합 3위에 올랐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새로운 이름들의 약진이다. 남자부에서는 이승엽, 여자부에서는 김민주라는 낯선 이름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무대의 중심에 올라섰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아시아유도연맹, 국제유도연맹

이승엽의 조용한 반란

남자 유도는 이제 김민중(양평군청), 이준환(포항시청)에 이어 이승엽(양평군청)이라는 이름을 주목해야 할 때다. 체급은 +100kg급. 이승엽은 대회 3일째인 4월27일, 결승에서 테무르 라키모프(타지키스탄)를 상대로 반칙승을 거두며 자신의 첫 아시아선수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진정한 명장면은 준결승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준결승에서 만난 이승엽의 상대는 같은 양평군청 소속팀 동료이자, 지난해 세계선수권 우승 및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민중. 두 선수는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경기 종료 25초 전, 이승엽은 김민중의 공격을 빗당겨치기 되치기로 받아쳐 절반승을 따냈다.

결국 이승엽은 세계랭킹 2위 김민중과 5위 라키모프를 차례로 꺾으며 금메

달을 거머쥐었다. 그의 금메달을 단순히 ‘운’이나 ‘이번’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미 올해 2월 파리 그랜드슬램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국제 무대에서도 실력을 증명한 바 있다. 이제 ‘진짜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한편, 김민중은 준결승 패배 이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의 나카무라 유타를 허리후리기 한판승으로 꺾고 값진 동메달을 수확했다. +100kg급에서 김민중과 이승엽이 나란히 포디움에 오르며 한국 남자 중량급 유도는 그 어느 때보다 두꺼운 전력을 자랑했다.

뚜렷한 성장 곡선, 김민주

여자부에선 김민주(광주교통공사)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김민주는 여자 -78kg급 결승에서 일본의 이케다 쿠레나에게 누르기 유효패를 당하며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지만, 은메달 이상의 가능성을 증명한 대회였다.

김민주는 최근 출전하는 대회마다 꾸준한 결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이 대회를 마친 뒤 열린 바리시 그랜드슬램에서는 마침내 금메달을 거머쥐며 국제무대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김민주의 강점은 경기 운영 능력과 끈질긴 승부 근성이다. 완성도를 높인 기술과 흔들림 없는 자세로 상대를 압박하며, 김민주는 이제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한국여자를 이끌어낼 선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준환은 여전히 강했다

남자 -81kg급 이준환은 예상대로 이번 없이 정상에 섰다. 세계랭킹 4위,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그는 이름값을 그대로 증명했다.

이준환은 대회 둘째 날인 4월 26일 태국 방콕 MCC 홀에서 열린 대회 남자 -81kg급 결승에서 타지키스탄의 소몬 마흐마드베코프(세계랭킹 5위)를 연장전(골든스코어) 15초 만에 허벅다리걸기 절반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규 시간 동안 업어치기를 연이어 시도하며 경기 흐름을 가져왔고, 연장 초반 정확한 타이밍의 공격으로 상대를 무너뜨렸다. 기술과 노련함, 모두 갖춘 ‘완성형 유도’였다.

이준환은 이 대회 직후 열린 바리시 그랜드슬램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했고, 이후 6월 열린 2025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동메달을 추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제 그는 ‘믿고 보는 선수’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한국 유도는 이들 외에도 여자 +78kg급 이현지(남녕고)와 -52kg급 장세윤(KH그룹필룩스)이 동메달을 목에 걸며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점은 새 얼굴들의 도약이라 할 수 있다. 김민중의 벽을 넘은 이승엽과 정상에 한 발 더 다가선 김민주라는 새로운 이름들과 함께, 한국 유도는 소리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

끓어오른 태극마크 경쟁! 2025 유도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뜨거웠던 보령의 기록

2025년 유도 국가대표 선발을 향한 마지막 경쟁이 뜨겁게 타올랐다.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충남 보령체육관에서 열린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는 파리 올림픽 스타들도 모습을 드러내며 이목을 끌었다. 태극마크를 향한 간절함 속에서 선수들은 온몸을 던졌고, 매트 위엔 치열한 승부와 뜨거운 땀이 뒤엉켰다. 과연 누가 금빛 메치기를 성공시키며 대표팀 승선에 가까워졌을까. 그 순간들을 따라가 본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보령시, 국제유도연맹

김민종이 김민종했다! 최종량급 우승

남자 +100kg급은 김민종(양평군청)이 접수했다. 결승에선 같은 팀 소속 이승엽과 맞붙어 반칙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앞선 경기에서도 흔들림은 없었다. 16강에서 임혜원(경남도청)을 빗당겨 치기 한판으로 제압했고, 8강에선 김두용(국군체육부대)을 되치기로 눌렀다. 4강에선 김이현(코레일)의 기권으로 무난히 결승에 올랐다.

1차 선발전에 불참했던 김민종이지만, 세계선수권과 올림픽 입상자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대한유도회 규정으로 1차전 우승자와 같은 선발 포인트를 확보했다. 여기에 이번 2차전 우승까지 더해지며 2025년 국가대표 자리를 차지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유도 최종량급의 새 시대를 연 김민종. 올해 역시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매트에 서게 됐다.





김민중 대항마 ‘이승엽’ 등장…최종량급 ‘투톱 시대’ 열리나
이번 대회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이름은 이승엽이다. 결승에서는 아쉽게 김민중에 막혔지만, 단숨에 대표팀 주전 경쟁자로 떠오르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불과 한 달 전 열린 2025 파리 그랜드슬램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알렸던 그는 이번 선발전에서도 꾸준히 기량을 입증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이승엽은 원래 -100kg급 선수였다. 194cm의 큰 키를 가졌지만 날렵한 체형으로, 최종량급 선수들이 익히지 못한 화려한 발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체격을 고려해 대학 시절 체급을 올린 것이 그의 유도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됐다. 체중이 150kg까지 늘며 힘이 붙은 상태에서 기존 최종량급 선수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정교한 발기술까지 더해져, 그는 순식간에 김민중의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했다. 특히 올림픽 이후 김민중이 휴식하는 사이, 황희태 남자 대표팀 감독의 집중 지도 아래 힘과 체력을 끌어올린 것도 그의 성장을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스피드와 체력이 강점인 김민중, 피지컬과 발기술에 강한 이승엽. 두 선수의 흥미진진한 경쟁 구도는 한국 남자 유도에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민중 역시 이승엽의 상승세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김민중은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피지컬이다. 중심 아동이 좋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도 쉽게 메칠 수 없는 선수이며, 나 역시 상대했을 때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이)승엽이 형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다 보면 한국 유도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테고, 나에게도 큰 자극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여고생 이현지, 국가대표 ‘무혈입성’
여자 +78kg급에서는 이현지(남녕고)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상대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과 기권으로 단 한 경기도 치르지 않고 정상을 밟은, 말 그대로 ‘무혈입성’이었다. 특히 많은 기대를 모았던 같은 체급 간판이자 국가대표 선배인 김하윤(안산시청)과의 결승전이 성사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하윤은 앞 경기에서 입을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단순한 ‘운’으로만 보긴 어렵다. 이현지는 최근 꾸준한 성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며, 국내 여자 유도의 미래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트에서 서진 않았지만, 성장의 궤적은 분명했다.

한편, 여자 -57kg급 허미미(경북체육회)는 어깨 부상으로 이번 선발전에 나서지 못했지만 대표팀 합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대한유도회는 1·2차 선발전 결과와 국제대회 성적, 세계랭킹 등을 종합해 2025 시즌 대표 선수를 선정

남자 +100kg급은
김민중(양평군청)이 접수했다.
결승에선 같은 팀 소속 이승엽과 맞붙어
반칙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했으며, 허미미는 이미 국제무대에서 압도적인 포인트를 확보해둔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여자 선수로는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 파리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매트 위엔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여전히 단단했다.

안바울은 여전히 ‘국대 품격’ … 1·2차 동반 우승자도 속출
이번 대회에선 유망주들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베테랑들의 변함없는 품격도 빛났다. 그 중심엔 단연 ‘경량급 간판’ 안바울(남양주시청)이 있었다. 남자 -66kg급 결승에서 그는 맞수 김찬녕(하이원유도)을 상대로 지도 3개를 이끌어내며 반칙승을 거뒀고, 변함없는 기량으로 정상을 지켰다. 1회전부터 결승까지, 자신보다 젊은 유망주들을 차례로 넘기며 건재함을 입증했다.
2016 리우 은메달, 도쿄와 파리에서 연속 동메달. 올림픽 무대에서 세 번이나 시상대에 오른 안바울은 이번에도 흔들림 없었다. 나이를 잊은 노련함과 승부욕은 여전히 매트 위에서 빛을 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1차 선발전에 이어 2차 선발전까지 모두 우승하며 국가대표 선발에 성큼 다가선 선수들도 속출했다. 남자부에서는 -60kg급 최인혁(대구시청), -90kg급 김종훈(양평군청), -100kg급 김세현(한국마사회)이 나란히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부에서는 -52kg급 장세운(KH그룹유도단), -78kg급 김민주(광주교통공사), +78kg급 이현지(남녕고)가 연속 우승을 기록했다.

또한, 1차 선발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 역시 주목할 만하다. 남자 -66kg급 김찬녕(하이원유도), 여자 -48kg급 이경하(제주도청), -63kg급 허슬미(안산시청) 등은 꾸준한 실력으로 대표팀 승선에 가까워졌다. 특히 여자 -78kg급 김주윤(동해시청)은 두 번 모두 김민중에 막혀 우승은 놓쳤지만, 2차 선발전에서 연장 접전까지 이어가는 등 내용 면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입증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이외에도 남자 -81kg급에선 파리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이준환(포항시청)이 반가운 존재감을 드러냈다. 1차 선발전에는 불참했지만, 2차전에서 유도빈(용인대)을 어깨로 시원하게 메치며 한판승을 따냈고, 단숨에 1위에 올랐다. 대표팀 재승선을 향한 그의 행보에 다시 한번 힘이 실렸다. 🇰🇷

2025 유도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우승자			
남 자 부		여 자 부	
-60kg	최인혁 (대구광역시청)	-48kg	이경하 (제주특별자치도청)
-66kg	안바울 (남양주시청)	-52kg	장세운 (KH그룹유도단)
-73kg	안재홍 (한국마사회)	-57kg	김주희 (충북도청)
-81kg	이준환 (포항시청)	-63kg	신채원 (순천시청)
-90kg	김종훈 (양평군청)	-70kg	김혜미 (광주교통공사)
-100kg	김세현 (한국마사회)	-78kg	김민주 (광주교통공사)
+100kg	김민중 (양평군청)	+78kg	이현지 (남녕고)

베테랑의 품격, 유망주의 반짝임

제4회 양평 몽양컵 전국유도대회 이모저모



국내 유도 유망주들과 실력자들이 양평에 모였다. 제4회 양평 몽양컵 전국유도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양평 물맑은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기도 유일의 전국 규모 유도대회이자, 양평군 최대의 단일 종목 스포츠 행사인 양평 몽양컵은 올해도 고교·대학·일반부 정상급 선수들의 뜨거운 경쟁으로 채워졌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베테랑 한경진, 안방에서 시즌 첫 금빛 사냥

양평군청의 베테랑 한경진이 안방에서 시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6월 23일, 대회 첫날 열린 남자 일반부 -100kg급 결승에서 한경진은 이홍규(코레일)를 상대로 굳히기와 되치기로 두 개의 절반을 따내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경진은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고, 올 시즌 전국대회 첫 금메달도 함께 가져갔다.

대회 초반부터 한경진의 기세는 뜨거웠다. 8강에선 김도훈(남양주시청)을 발다리 한판으로 꺾었고, 4강에선 강민재(광주광역시청)를 노련한 굳히기로 제압하며 여유 있게 결승에 올랐다.

우승 후 한경진은 “안방인 양평에서 하는 만큼 다른 대회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고, 또 지난해 1등을 차지했던 터라 타이틀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여느 대회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했는데, 양평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좋은 결과를 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실 그는 올 시즌 초반 부침을 겪었다. 경기력에 기복이 있었고,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이 깊었다. 양평군청 조구함 코치는 그가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훈련 강도를 더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경진 역시 “스스로 약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유산소 운동을 일부러 더 많이 하면서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기술적인 부분은 평소대로 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올해로 33세. 체급과 나이를 감안하면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같은 팀에는 국가대표 김민중, 이승엽 등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후배들이 포진해 있다.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을 보며 조금함을 느낄 법 하지만, 그는 오히려 많이 배우고 느낀다고 했다. 후배들로부터 오히려 자극을 받으며 기술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민중과 이승엽이 세계선수권을 준비하던 시기엔 훈련 파트너로 나서며, 자신에게 부족했던 잡기 기술을 보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경진은 “노장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지금은 가을에 열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가장 큰 목표다. 그걸 위해 더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금메달은 못 땄지만…

호쾌한 발기술로 박수갈채 얻은 우정명

비록 금메달을 목에 걸지는 못했지만, 어지간한 우승자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긴 선수가 있다. 남자 대학부 -73kg급 우정명(한국체대)이다. 우정명은 16강전부터 결승까지,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빠른 스피드와 함께 호쾌한 발기술을 연이어 선보이며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뜨거운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특히 그의 허벅다리 결기와 발다리 기술은 압권이었다. 우정명은 8

강에서 박경문(용인대)을 허벅다리 결기로, 4강에서는 김도건(국민대)을 발다리로 각각 제압하며 자신의 주특기를 유감없이 뽐냈다. 우정명은 “다리 기술이 장기다. 4강전은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막판에 상대 선수가 뒤로 중심이 무너지는 틈을 타 발다리 기술을 걸었고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아쉽게도 결승에서는 김민규(용인대)에게 양소매 업어치기로 한판 패를 당하며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다. 우정명은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졌던 상대에게 패해 아쉬움이 더 크다. 이전 경기와 다르게 긴장했던 영향도 있었다”라며, “상대 선수가 까다로운 스타일이다. 다음에 또 맞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연구해서 나와야 할 것 같다. 특히 잡기에 약한데 그 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며 더 나아질 모습을 다짐했다.

여자 유망주 배희진 포부
“대학, 실업 선수 모두 뛰어넘고파”

여자 유도 유망주 배희진(한국체대)은 여자대학부 -63kg급 결승전에서 같은 학교 김예지(한국체대)를 상대로 유효승을 따내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1회전에서 김예은(동의과학대)을 한판 손기술로 가볍게 제압한 그는 준준결승 부전승으로 다음 라운드에 안착했고, 이어진 준결승전에선 차아리(용인대)를 발다리 한판으로 시원하게 눕히며 결승에 올랐다.

우승 후 배희진은 “힘들게 준비한 만큼 성과가 나와서 기쁘다. 결승에서 같은 학교 언니를 상대해야 해서 긴장도 됐지만, 오히려 부



담을 펼쳐내고 평소처럼 하자는 생각으로 대회에 임했다”라고 담담히 소감을 전했다.

-63kg급은 경량급과 중량급 사이에 위치한 체급이다. 배희진은 이 체급의 매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경량급도 중량급도 아니기 때문에 스피드와 파워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몰입감이 다른 체급에 비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장단점도 솔직하게 짚었다. 강점으로는 발다리 기술을, 약점으로는 잡기 기술을 꼽으며 “잡기를 정확하고 빠르게 구사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북체고를 졸업해 한국체대로 진학한 배희진은 고교 시절 국제대회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이미 -63kg급에서 촉망받는 유망주로 이름을 알렸다. 그의 목표는 확고하다. 현재의 성장세를 발판 삼아 대학 무대는 물론, 실업 선수들까지 뛰어넘는 것이다. 그는 “다가올 대학 추계 대회와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며, “멀리는 대학 선수와 실업 선수를 모두 뛰어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확고한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국가대표 허슬미,
부상 악재 딛고 국내 대회 첫 우승

‘실업 초년생’ 국가대표 허슬미는 대회 이틀째인 24일, 여자 일반부 -63kg급 결승전에서 채정아(포항시청)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뒀다.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지도 3개를 빼앗아 반칙승을 따냈다. 실업 무대에서 맛 본 첫 우승이었다.

허슬미의 우승은 한 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보는 듯한 승부였다. 4강에서 지연주(충북도청)를 경기 종료 50초를 남기고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결승전은 녹록지 않았다. 채정아에게 경기 시작 1분 37초 만에 발다리 되치기를 허용하며 먼저 절반을 내줬다. 이후 적극적인 공세에도 좀처럼 기술 득점을 올리지 못하며 패색이 짙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경기 종료 단 3초를 남기고 안다리 절반을 빼앗아 극적으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연장전에서 상대 선수가 소극적인 경기로 세 번째 지도를 받으면서, 허슬미는 어렵게 첫 우승을 쟁취했다.

이용호 안산시청 감독은 “(허)슬미는 그동안 손가락 인대 부상이 심해 국내 대회에 자주 나서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추가로 옆구리 부상도 입었다. 그런 가운데 부상 악재를 딛고 국내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자신감을 올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압도적’ 용인대, 대학부 체급 절반 이상 ‘씩쓸이’

올해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는 용인대는 양평 몽양컵에서도 압도적 실력을 과시했다. 남녀 대학부 14개 체급 중 절반도 넘는 8개 체급에서 우승하며, 대학 유도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남자 대학부 +100kg 이상급 결승에선 이동현이 같은 학교 장민석을 상대로 허리후리기 한판을 성공시키며 우승을 차지했다. -100kg급에선 박세민이 팀 동료 차민혁을 상대로 업어치기 절반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한판승을 거뒀고, -81kg급에선 박준현이 이다운(동의대)을 발다리 절반과 누르기 후 굳히기로 한판승을 따내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여자 대학부에서도 흐름은 이어졌다. 김성경은 -52kg급 결승에서 같은 학교 최은설을, 김민주는 -48kg급 결승에서 팀 동료 김근영을 각각 제압하며 ‘집안 싸움’ 끝에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용인대는 전날 남자 대학부 -73kg급 김민규, -66kg급 이도협, -60kg급 윤정빈의 우승까지 포함해 남자 6체급, 여자 2체급을 석권하며 이번 대회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한편, 고창군청 여자 유도부도 꾸준한 성과를 이어갔다. 이번 대회에서 금 2개, 은 1개, 동 3개를 수확하며 전체 메달 6개를 기록했다. 고창군청은 체급을 가리지 않고 고른 성적을 올리며 팀워크와 집중력을 입증했다. 이번 고창군청의 성과는 직전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기록으로, 이들의 꾸준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

• 양평 몽양컵, 미래를 향한 도약 준비! •

양평 몽양컵 유도대회는 양평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제11대 대한체육회장을 지낸 ‘몽양’ 여운형 선생의 체육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22년 창설됐다. 이제 4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점차 기반을 다져가며 전국 유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풍기, 양구 평화컵처럼 국내 대표 유도대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평 몽양컵은, 경기 운영과 시설 측면에서 매년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선수 대기 공간을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대회 홍보와 마케팅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 게다가 올해는 세계선수권과 유니버시아드 준비 일정과 겹치면서 김민중, 허미미, 김하윤 등 주요 스타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유도와 상주, 매트 위에서 피어난 동반의 힘

명실상주배,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다

생활체육 유도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대회마다 참가자가 몰리며 저변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유도 열기는 유도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회를 유치한 지역도 활기를 되찾는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린 제2회 명실상주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 역시 그랬다. 유도와 지역을 동시에 알리며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대한유도회 제공

“유도 열기가 이 정도일 줄은…” 상주시도 놀란 유도 동호인들의 열정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에 이어 개최된 2025 명실상주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이하 명실상주배)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상주시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생활체육 선수 1,600여 명이 참가하며 뜨거운 유도 열기를 실감케 했다.

선수단, 학부모, 응원단까지 수천 명이 상주를

방문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졌다. 특히 식당가에서는 저녁 8시도 되기 전에 재료가 동날 만큼 손님이 몰렸고, 일부 매장은 일찍 문을 닫아야 할 정도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자녀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상주를 찾은 학부모들은 경기장 시설과 운영에 큰 만족을 표하며 “경기장이 쾌적하고, 운영도 원활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주시와 상주시체육회, 대한유도회, 경북유도회, 문경시유도회는 몇 달 전부터 대회를 철저

개회선언을 하는 문철호 상주시유도회장



히 준비했다. 지난해보다 400명이 증가한 참가자 수는 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대회를 주관한 상주시 관계자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체육관 주변은 노란 승합차 행렬로 붐볐다”며 “상주에서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린 건 유도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이나 식당에 물건이나 재료가 동날 정도였다. 덕분에 골목 상권도 북적였고, 지역 경기에 모처럼 활기가 돌아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대회는 엘리트와 생활체육 대회가 함께 열려 더욱 뜻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유명 선수들이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줘 시민 만족도도 높았다. 이제 2회째지만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문철호 회장의 헌신, 상주 유도의 든든한 버팀목

명실상주 생활체육대회가 이처럼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주시유도회를 16년째 이끌고 있는 문철호 회장의 헌신이 있었

다. 유도에 대한 애정 하나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그는 이번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도 앞장서 뛰었다.

문 회장은 “이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한유도회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명실상주 생활체육대회가 널리 알려졌고, 그 과정에 함께한 것만으로도 뿌듯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내년과 그다음 해에는 더 나은 대회로 성장시켜 생활체육 유도대회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조용철 대한유도회 회장과 김정행 전 대한체육회장 등 유도계 원로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 회장은 “명실상주 같은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는 유도인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는 화합의 장”이라며, “전국 유도인들에게 더 알려졌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키우고 싶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이 대회에 도시 명칭과 지역 특산 브랜드인 ‘명실상주’를 함께 내세우며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문 회장은 “명실상주를 계기로 상주와 명실상주에 대한 인식이 더 널리 퍼지

고, 유도 저변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길 기대한다”며, “참가해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유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명실상주 생활체육대회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기존 청소년대회와 명실상주배에 이어 실업연맹전까지 세 개 대회를 연달아 개최할 계획이다. 대회 규모가 더욱 커지는 만큼 준비도 한층 바빠질 것 같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문철호 회장은 본업은 치과의사지만, 학창 시절부터 유도를 좋아한 인연으로 현재에 이르렀다.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순수한 열정 하나로 유도계에 발을 들였고, 올해로 5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현장을 누비며 상주시유도회를 이끌고 있다.

문 회장은 “유도를 좋아했던 학창 시절의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청춘을 유도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유도는 내 인생의 큰 부분이었다”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다. 유도의 발전을 기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계속 뛰며 힘을 보태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다. ●

김용민·이준현 앞세운 용인대의 무대

제29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5월의 끝자락, 경북 상주는 유도 꿈나무들의 땀과 기합 소리가 뒤영키며 꿈틀댔다. 5월 29일부터 이틀간 상주체육관 신관에서 제29회 전국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가 열린 것. 대학 2학년까지 출전 가능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350여 명의 유도 유망주들이 몰려들었다. 아시아청소년선수권과 세계청소년선수권 출전권이 걸린 무대인 만큼, 열기와 의미 모두 각별했다. 그 뜨거운 이를, 과연 누가 가장 눈부신 ‘한판’을 만들어냈을까.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상주시, 김용민 본인 제공



‘흔들림 없는 강함’ 김용민, 대회 2연패

이번 대회 가장 빛난 별은 단연 김용민(용인대)이었다. 경민고 시절부터 업어치기 하나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그는, 대학 무대에서도 여전히 ‘김용민다운’ 유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런 기대 속에서 치른 이번 대회. 김용민은 다시 한번, 큰 무대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선수임을 증명했다. 대회 2연패. 이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줬다.

남자 -73kg급 결승 상대는 팀 동료 윤승빈이었다.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이였기에 경기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예

상대로 접전은 길어졌고 경기는 연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김용민은 흔들림 없이 집중력을 유지했다. 연장 시작 24초 만에 터진 안다리 한판승. 그렇게 김용민은 다시 정상에 섰다.

이번 대회에서 김용민이 보여준 핵심 키워드는 단연 ‘안정감’이다. 결승전의 치열함과는 별개로, 그가 결승까지 오르는 과정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16강에서는 홍승운(남녕고)을 지도승으로 눌렀고, 8강에서는 장성훈(용인대)을 한판손기술(업어치기)로 가볍게 제압했다. 준결승에서는 엄윤상(용인대)을 상대로 누우며치기(배대뒤치기) 한판승을 거뒀다. 모든 경기가 차분했고, 기술 하나

하나엔 망설임이 없었다. 결승까지의 흐름은 그 자체로 김용민의 성숙함을 증명했다.

경기를 마친 김용민은 인터뷰에서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는 “대학교에 올라온 만큼, 나이에 맞는 기량을 보여주고 싶었다. 책임감을 갖고 경기에 임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등부를 넘어 성인부로 진입한 뒤,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졌다는 그의 고백이었다. 이어 “스피드가 느린 편이라 힘을 길러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꾸준한 훈련 속에서 더 나은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다음 무대를 향하고 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세계 및 아시아 청소년선수권대회 출전권까지 확보한 김용민은 국제 대회를 염두에 두고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유도 명문’ 용인대에 입학하고 싶었는데 그 목표를 이뤘다. 다음 목표는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다.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에도 출전해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전했다.

이준현, 형을 잇는 또 한 명의 기대주

김용민과 함께 고등학생 시절부터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이준현(용인대) 역시 남자 -66kg급에서 당당히 정상에 섰다. 이준현은 결승에서 이재준(남녕고)을 상대로 경기 시작 21초 만에 안다리 절반을 빼앗았다.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를 펼치던 그는 종료 1분 48초를 남기고 다리걸기 한판승을 거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준현의 결승 진출 과정도 압도적이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32강과 16강에서 각각 박진서(대전과기대)와 유현(여주대)을 연속 누르기 한판으로 꺾었다. 준결승에서는 같은 학교 유정훈을 한팔업어치기 절반으로, 준결승에서는 김도윤(한국체대)을 안뒤축걸기 한판으로 가볍게 누며 무결점으로 결승에 올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준현이 파리 올림픽 유도 남자 -81kg급 동메달리스트인 이준환(포항시청) 선수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우승으로 이준현은 형의 뒤를 이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메달 쓸어담은 용인대, 7체급 제패!

이번 대회는 사실상 용인대의 독무대였다. 남자부에서는 김용민과 이준현 외에도 윤주승(-60kg급), 유도빈(-81kg급), 최재민(-90kg급), 김민준(+100kg급)까지, 총 6개 체급을 싹쓸이하며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했다. 여기에 여자부 정수진(-48kg급)까지 더해 용인



남자 -73kg급에서 우승한 김용민(용인대)

대는 이번 대회에서 남녀 7체급을 제패했다. 최재민과 정수진은 대회 2연패라는 기록도 함께 썼다. 최재민은 -90kg급 결승에서 차민호(송도고)를 발기술 한판으로 제압했고, 정수진은 팀 동료 김예은과 결승에서 발뒤축걸기 유효승을 거두며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정상에 올랐다.

용인대 강세 속에 고등학생의 빛나는 투지가 돋보였다. 주산산업고 백지호(-52kg급)는 고등학생으로는 유일하게 남자부 금메달을 따내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대학 선수들 사이에서도 기량과 체력에서 밀리지 않았고, 경기 운영 역시 흔들림이 없었다. 이번 대회가 ‘백지호’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한국체대 선수들도 여자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한국체대 손채영(-57kg급)과 배희진(-63kg급)은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저력을 보여줬다.

이번 전국청소년선수권대회는 국내 최강자를 가리는 것을 넘어, 오는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청소년선수권과 10월 페루 리마에서 펼쳐질 세계청소년선수권을 앞두고 유망주들의 실전 전력을 점검하는 중요한 무대였다. 이 대회 우승자들은 두 국제 대회 출전 자격을 얻어 국제 무대에 서게 된다.

참고로 지난해 문경에서 열린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유소년부 종합 1위, 청소년부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또한 지난해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는 이현지(+78kg)가 금메달을, 허미오(-52kg)가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유도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대회 우승자들이 이들의 뒤를 이어 국제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된다. 🌟

“공정함을 위해 다시 _____ 함께”

국제유도연맹
‘International’ 국제심판
김준환 · 김태운

심판복을 입은 두 사람은 평행선을 그리듯 한 길을 걸어왔다. 김준환 심판과 김태운 심판. 어린 시절부터 유도장 곳곳에서 마주하던 이들은, 이제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국제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나란히 활약하고 있다. 유도의 공정성과 미래를 향한 책임을 안고, 유도 심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권위인 IJF(국제유도연맹) ‘International(인터내셔널)’ 자격증도 한 해 차이로 차례로 손에 쥐었다. 이들의 여정은 ‘한 사람의 심판으로서, 한국 유도가 세계 무대에서 보다 정당하고 투명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사명감이 깃든 길이였다. 함께 걸어온 두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직접 들어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청풍기대회 경기장에서 만난
김태운 심판과 김준환 심판(왼쪽부터)

“이 길의 끝엔 공정함이 있어야죠”

김준환 심판과 김태운 심판은 한 해 차이로 차례로 국제심판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들이 국제 심판 자격에 도전한 건 개인적 성취보다 한국 유도 전체의 공정성을 위한 선택이었다.

두 분 모두 국제심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떤 여정이 있었나요?

김준환 저는 2017년에 ‘Continental(컨티넨탈)’ 자격을 먼저 취득했습니다. 인터내셔널 시험은 한 번 낙방한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재도전 끝에 합격하면서 인터내셔널 심판 자격을 얻었어요. 올해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유도대회를 시작으로 세계군인선수권대회, 타슈켄트 그랜드슬램 등에 배정돼 국제 심판으로 활동 중입니다.

김태운 저는 본업은 지도자지만, 심판에 대한 열정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컨티넨탈 자격증을 취득했고, 인터내셔널 시험은 자격 취득 후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만을 기다려왔죠. 마침 올해가 만 50세로, 규정상 응시 가능한 마지막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저에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심판 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김준환 심판으로서 더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어요. 국제대회를 경험하면 최신 판정 트렌드를 몸으로 익히게 되거든요. 그걸 국내에 적용하면, 우리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억울한 판정을 덜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뜻에서 인터내셔널 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김태운 저 역시 지도자로서 심판 역량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선수들을 더 잘 지도하려면, 판정의 흐름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니까요. 컨티넨탈 자격을 딴 후 인터내셔널 시험은 자연스레 도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김준환 총 5일에 걸쳐 진행돼요. 첫 이들은 심판 세미나가 있고, 3일차에 필기와 구술시험이 진행됩니다. 이걸 통과해야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영어가 가장 큰 관문인데, 필기 시험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김태운 한국 심판들은 실기 경험이 많아서 그쪽은 자신 있는 편입니다. 중요한 건 실기 때 심판위원장의 지시를 영어로 정확히 듣고,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옳지 않은 판

정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빠른 피드백이 필요하며, 심판위원장과도 원활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합격 후엔 수료증과 함께 자격증, 벡타이, 패찰이 수여되죠.

인터내셔널 시험에 도전하면서 얻은 교훈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요?

김준환 첫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 ‘대충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경각심을 크게 느꼈어요. 두 번째 시험 땀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한번 뉘버리면 금방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언



김준환 1976.01.23.
현 대한체육회 유도 상임심판
1994년 금곡고등학교 졸업
1998년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학사
2004년 용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대학원 석사
2017 Continental referee 라이선스 취득
2024 International referee 라이선스 취득
심판파견
2024 세계군인 선수권 대회(우즈베키스탄)
2024 라스베이거스 세계 베테랑 선수권 대회(미국, 라스베이거스)
2025 Tashkent 그랜드슬램(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어는 감각이니가 책을 놓지 않고 계속 보는 게 중요해요.

김태윤 합격 후 IJF에서 준 벡타이와 패치를 받았을 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공정성’에 대한 책임감이 확실히 생겼어요. 이후로는 동영상도 많이 보고, 연구도 더 열심히 하며 공정한 심판이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심판은 기회를 지켜주는 사람”

공정한 판정, 투명한 기준, 그리고 유도의 미래까지. 두 심판이 바라보는 심판의 의미는 무겁고 깊다.

김준환 심판의 경우에는 상임심판으로 국내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다.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김준환 국제 대회는 판정 기준이 훨씬 디테일해요. 카메라도 경기장마다 2~3대씩 설치돼 있고, 기술 자체보다는 ‘떨어지는 면’이나 ‘닿는 각도’ 등을 더 정밀하게 따집니다. 국내에서는 큰 기술이나 메치는 동작으로 주로 보며 판정을 내리는데, 우리의 익숙한 기준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국제 기준에 맞춰가야,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피해보는 일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두 분은 오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격을 따는 시기는 달랐지만 시험 준비 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점도 있었을까요?

김준환 재작년에 제가 인터내셔널 시험을 준비할 때, 김태윤 심판은 콘티넨탈 자격 시험을 준비 중이었어요. 제가 그 시험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자료도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며 도왔죠. 사실 저희가 출신 학교는 다르지만 중학교 때부터 같은 체급으로 경기장에서 많이 마주했던 사이예요. 군 복무도 상무에서 같이 했고요.

김태윤 김준환 심판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어요. 시험 준비 방향부터 필요한 지식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인연이 이렇게 실질적인 동력이 되더라고요.

김태윤 심판은 현재 해동고 유도부 감독을 맡고 계신데, 국제심판 경험이 꿈나무들 지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김태윤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국내에선 아직 IJF(국제유도연맹) 룰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제가 룰을 잘 익혀서 선수들에게 공유하면, 나중에 국제 대회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죠.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고, 국제적인 트렌드를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험자로서 국제 심판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김준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영어’입니다. 모든 국제 커뮤니케이션이 영어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어 실력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또, 국제 대회에서 다양한 경기를 보면서 시야를 넓히는 것도 큰 자산이 됩니다.

김태윤 영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필수입니다. 영어가 가능해야 관계자들과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고 벌칙이나 점수를 수정할 때도 빠르게 피드백이 가능하거든요. 무엇보다 특히 IJF 규정집에 나오는 용어는 꼭 외워야 합니다.

지금의 자리에 서기까지 도움을 준 분들이 있다면요?

김준환 두 번의 국제심판 자격시험 도전이 가능했던 건 조용철 대한유도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국제 대회를 통해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태윤 저 역시 혼자만의 도전으로 이뤄진 결과는 아닙니다. 해동고 교장 선생님과 부산시유도회, 그리고 대한유도회 조용철 회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심판으로서의 철학이나 지키고 싶은 원칙이 있다면?

김준환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국내 상임심판으로 활동하면서, 심판 교육과 강습회 등을 다니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선수들 입장에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슬퍼하고



김태윤 1975.06.13.
현 해동고등학교 체육교사
1994년 해동고등학교 졸업
1998년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학사
2019년 영남대학교 스포츠과학 대학원 석사
2023 Continental referee 라이선스 취득
2025 International Referee 라이선스 취득
심판파견
2023 마카오국제유·청소년 유도대회
2024 일본 건슈키유도대회

회의감이 들 거예요. 학연,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여지를 줄이기 위해,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실 어찌보면 당연한 거지요. 유도는 얽힌 인맥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선수들이 작은 판정 하나로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더 냉철한 시선으로 경기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김태윤 심판은 선수들이 정당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선수가 반드시 더 높은 무대에 설 수 있어야 하죠. 그런 심판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꿈나무들이 맑은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한판 승부

유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시험 현장 속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청주유도회관이 유도 열기로 가득 찼다. 대한유도회 주관으로 ‘2025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자격검정 시험’이 열렸는데, 전국에서 무려 570여 명이 응시하며 최근 유도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실감하게 했다. 지도자의 꿈을 안고 모인 이들은 자격 취득을 넘어, 앞으로 한국 유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책임감을 품고 시험에 임했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유용우 기자

다양한 세대, 하나의 목표 이른 아침부터 시험 열기 ‘후끈’

이른 아침, 청주유도회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유도복을 손에 든 응시자들이 실기장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누구에겐 처음이고, 누구에겐 다시 한 번의 도전이었다. 2025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자격검정 시험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진행됐다.

올해는 생활체육 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원자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예년보다 하

루 늘어난 사흘 일정으로 운영됐다. 청주유도회관은 지도자의 첫 관문을 넘기려는 응시자들로 연일 북적였다.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예년에는 이틀에 걸쳐 시험이 진행됐지만, 올해는 예상보다 많은 응시자가 몰려 대한체육회에 일정을 하루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사흘 일정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계간 유도’가 찾은 7월 2일, 청주유도회관에서는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검정시험이 한창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응시자들이 시험장에 가득 찼고,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심사위원들도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의 눈으로 시험장을 살피며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현장은 마치 수능 시험장을 방불케 했다.

‘유도광’과 ‘인생 도전자’ 뜨거운 현장에서 만난 응시자들

현장에서 만난 응시자들의 이야기도 다양했다. 이은초 씨(35, 에이스유도스쿨)는 생활체육 유도대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빠짐없이 참가할 정도로 ‘유도광’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도자로서 욕심이 생겨 이번 시험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지도한 지 2~3년 정도 되었지만,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시험에 응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씨는 “대회와 달리 시험은 평가를 받는 자리여서 긴장감이 컸고, 특히 구술 시험이 어렵게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번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실감했다.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다.

그런가 하면, 시험장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장년의 응시자들도 쉽게 눈에 띄었다.

경남 고성에서 온 윤광수 씨(66, 고성유도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렬한 눈빛으로 시험에 임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그는 이번 시험에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순수한 ‘도전’의 의미로 응시했다고 했다. 윤 씨는 “유도 도장을 만들거나 지도자로 활동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유도 활동을 이어갈 때 자신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 이 나이에 나를 이겨보자는 각오로 이번 시험을 준비했고, 나름대로 체력 훈련도 꾸준히 해왔다”라며 “약간의 떨림은

있었지만 크게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잘 마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술 넘어 인생까지 유능한 지도자 배출이 목표

이번 시험은 단지 기술 숙련도를 평가하는 자리만 아니었다. 대한유도회는 실기와 구술, 이론을 아우르는 종합 평가 체계를 통해 ‘균형 잡힌 지도자’의 자질을 확인하고자 했다.



윤광수



이은초

실기 시험은 기본자세(20점), 메치기(40점), 굳히기(40점) 등으로 구성됐다. 예법과 자세, 걷기, 낙법 같은 기본자세부터 손기술·허리기술·발기술을 아우르는 메치기, 그리고 누르기·조르기·꺾기 등의 굳히기 기술까지 두루 평가했다.

구술 평가는 규정 이해(40점), 지도 방법(40점), 태도(20점)로 구성되며, 실제 수업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순 지식만 아닌, 지도자로서의 사고력과 태도까지 평가한 것이다.

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70점 이상을 넘어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 황성주 대한유도회 과장은 “시험 문제는 사전에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통해 출제·검토되며, 각 항목별로 난이도와 실무 적합성을 따져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총 21명의 심사위원이 3인 1조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심사위원 대부분은 지도 경력 10년 이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베테랑들로, 지도자 양성과 교육 현장을 오래 경험한 전문가들이었다.

황 과장은 “대한유도회는 한 명이라도 더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험장 접근성과 환경까지도 고려해 응시자들이 쾌적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충북유도회가 매년 유도 전용체육관인 청주유도회관을 시험 장소로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과장은 “생활체육 유도의 열기가 지도자 양성으로 이어져야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번 시험이 유도 저변 확대는 물론, 국제무대 경쟁력 향상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8년 만에 부활한 ‘유효’

한국 유도가 웃는 까닭은

2025년 유도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유효(Yuko)’의 부활이다. 한판과 절반만으로 승부를 가리던 8년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폐지됐던 유효 점수가 다시 매트 위로 돌아왔다. 경기의 박진감을 높이겠다는 국제유도연맹(IJF)의 이 같은 결정에 기술 유도 강국인 한국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변화가 힘보다는 기술이 중심에 설 수 있는, 이른바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국제유도연맹



기술이 밀려났던 8년, 그리고 돌아온 ‘유효’

한국 유도계는 이번 개정을 룰 변경을 넘어 경기 철학을 되돌리는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7년 유효 점수 폐지는 복잡한 점수 체계를 단순화하고, 선수들의 보다 적극적인 기술 시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유효가 사라진 뒤 일부 선수들은 고난도 기술보다는 상대의 반칙(지도)을 유도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췄고, 경기 흐름 또한 점차 기술보다는 판정 싸움 중심으로 이동했다. 체격과 힘에서 앞선 유럽 선수들이 주도하는 체력전과 잡기 싸움이 경기 양상을 지배하면서 경기의 속도감과 몰입도는 현저히 떨어졌다.

IJF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경기 중 연장전(골든 스코어) 비율은 25%였다. 그러나 2023년

에는 40%를 넘어섰다. 한판승은 줄고, 판정에 의존하는 경기가 늘어난 셈이다. 기술 유도의 점수가 희미해지고, 유도 본연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까지 제기된 ‘8년’이었다.

‘다이나믹 유도’의 귀환

이번 ‘유효’의 부활로 매트 위에는 다시 역동성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절반보다 판정 기준이 유연한 유효는 인정 범위가 더 넓다. 절반은 상대의 등 일부가 명확히 매트에 닿아야 인정되지만, 유효는 측면 접촉만으로도 점수로 이어질 수 있다. 누르기 기술에서도 절반은 10초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유효는 5초면 충분하다.

한순남 대한유도회 상임 심판은 “과거 같았으면 절반을 주기 애매했던 장면도 이제는 유효로 처리될 수 있다”며 판정 기준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효는 누적되지만 절반이나 한판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양측이 절반 이상의 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 유효의 개수가 승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에 대해 한 심판은 “연장전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보다 적극적인 기술 시도를 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IJF의 이번 결정에는 경기 시간 단축이라는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했다. 기존 한판 절반 체제에선 연장전에 진입하는 경기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복수의 심판진은 “유효가 도입되면 초반에 점수를 따내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이는 기술 교환의 빈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들의 ‘공격성’은 한층 짙어지고, 관중의 몰입도 역시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유도의 철학이 돌아왔다”

한 심판은 이번 유효 부활을 “단순한 룰 조정”이 아닌, 유도가 지향해 온 철학의 복원”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기술 유도가 다시 중심이 되는 흐름이다. 일본 유도계도 오랫동안 유효 복귀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혔다. 이어 “유효는 기술의 정밀함에 점수로 보상하는 제도다. 한국처럼 타이밍과 균형 감각에 강점을 가진 국가에는 유효의 부활이 곧 경쟁 무기의 복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팀 전략 변화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준환의 업어치기, 김민중의 발다라·안다리처럼 순간 타이밍이 중요한 기술들은 유효 판정 아래에서 더욱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허미미, 김하윤 등 공격 성향이 강한 여자 선수들도 보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생활체육으로의 확장

이번 제도 변화는 엘리트 유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5년부터 국내 생활체육 대회에서도 유효 점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심판은 “유도를 처음 접하는 유소년이나 동호인들에게 ‘한판’은 너무 높은 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유효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도에 대한 흥미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기력 향상뿐 아니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교육 효과까지 고려할 때 유효는 유도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유효는 점수가 아니라, 방향이다

물론 유효의 부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 유효를 얻은 뒤 소극적인 ‘점수 지키기’ 전략이나 판정 기준을 둘러싼 해석 차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을 ‘유도가 지향해야 할 본래 방향의 회복’으로 본다. 기술이 기술로서 평가받고, 경기의 흐름이 살아나는 구조. 그 중심에 유효가 있다. 한국 유도는 지금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힘보다 정밀함, 속도보다 타이밍. 이들이야말로 한국 유도가 지닌 고유한 무기이며, 지금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2028년 LA올림픽은 그 가능성이 실제로 입증될 첫 무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유도계는 다시 묻는다. ‘기술은 정말 힘을 이길 수 있는가?’

한 심판은 이 질문에 조용히 답했다. “유도는 원래 ‘부드러운 유(柔)’라는 한자를 쓰는 종목이다. 처음부터 기술이 힘을 이긴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무도였다(웃음).”



다윗과 골리앗, 누가 더 유리할까?

데이터로 본 체급과 키의 상관관계

183cm의 김민중 선수와 203cm의 테디 리네르 선수(프랑스). 나란히 남자 +100kg급 세계 정상에 올라 있지만, 이들 사이에는 무려 ‘20cm’라는 신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체급이 같아도 체격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매트 위에서 마주한다면, 데이터는 과연 다윗과 골리앗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글. 송현일 기자 사진. 국제유도연맹(IJF)

지난해 파리올림픽 남자 +100kg급 결승전은 단순한 금메달 결정전을 넘어선, 진정한 드라마의 무대였습니다. 직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이자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던 김민중 선수와 프랑스가 자랑하는 ‘유도 영웅’ 리네르 선수. 두 거물이 한 매트 위에 선다는 사실만으로도 유도 팬들의 가슴은 뜨겁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붙든 건 단지 수준 높은 기술의 향연만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20cm의 신장 차이. 너무도 대조적인 두 체격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고전 속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키가 크지 않은 필자 역시 국적과 상관없이 김민중이라는 작은 거인에게 마음이 쏠리고 있었을 만큼 이날 경기는 여러모로 몰입도가 남달랐습니다.

아쉽게도 경기는 정규 시간 종료 17초 전, 리네르 선수의 허리후리기 한판 승으로 막을 내렸지만, 김민중 선수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 냈습니다.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는 이날 매트 위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투혼과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 필자는 이 경기를 다시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유도 같은 투기 종목에서는 ‘대개 동 체급이면 리치(팔 길이)가 길수록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중 선수는 리네르 선수를 상대로 처음부터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만약 신장만 빼고 모든 조건이 같았다면, 김민중 선수의 승률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필자는 파리올림픽을 포함한 최근 5번의 올림픽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김민중의 우승 확률, 통계는 이렇게 답했다

공교롭게도 통계는 이미 김민중 선수의 불리한 현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유도연맹(IJF) 공식 기록을 살펴보면, 파리올림픽을 제외한 최근 4개 대회 모두 남자 +100kg급 메달리스트 평균 키가 참가자 평균보다 꾸준히 높았습니다. 참가자 평균 신장은 193.5cm였고, 메달리스트들의 평균은 194.3cm로, 단 0.8cm 차이였지만 세계 정상급 무대에선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격차였습니다.

이 흐름은 파리올림픽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참가자 평균 신장이 193.2cm, 입상자 평균이 194.0cm였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5개 대회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참가자 평균보다 키가 작았던 선수는 단 한 명, 2008 베이징 올림픽 때 이시이 사토시(일본·181cm) 선수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금메달리스트들은 모두 2m에 가까운 장신들이었습니다.

여자 +78kg급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파리올림픽 기준, 참가자 평균은 174.4cm, 입상자 평균은 177.3cm로 남자부보다 오히려 신장 격차가 더 컸습니다.

물론 이는 키와 평균만을 놓고 본 단선적 지표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최중량급에서는 ‘키가 크면 유리하다’는 오래된 공식이 단순한 인상비평이 아님을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매운 경량급?

하지만 데이터를 한 겹 더 벗겨보면, 다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체급이 가벼워질수록, 즉 경량급에서는 오히려 키가 작은 선수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리올림픽 남자 -60kg, -66kg, -73kg급에서는 입상자 평균 키가 참가자 평균보다 오히려 낮았고, -81kg급을 경계로 판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90kg, -100kg, +100kg급으로 올라갈수록 메달리스트와 참가자 간 신장 격차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여자부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48kg, -52kg, -57kg, -63kg급에서는 단신 선수들이 시상대를 차지했지만, -70kg 이상 체급부터는 장신 선수들이 확실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결국 신장이란, 때로는 최강의 무기이자, 때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높은 벽이 되기도 하는 셈입니다.

“단신도 결국 핑계일 뿐… 하늘 한번 감동시켜야죠”

이 분석을 들려주자 한 유도인은 “경험상 짐작은 했지만, 실제 숫자로 보니 더 놀랍다”고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왜 이런 패턴이 나오는지는 누구도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누군가는 신장 열세를 곳곳이 극복하며 승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유도의 본질은 ‘부드러운 힘이 강함을 이긴다’에 있습니다. 같은 사람끼리 10번 붙어도 결과가 매번 같지 않은 게 스포츠잖아요.”

정작 중요한 건 통계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매트 위에서 붉은 땀방울을 쏟고 있습니다. 183cm의 단신으로 세계를 제패한 김민중 선수가 유독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으로, 김민중 선수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며 이번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적어도 10cm 이상 차이 나다 보니, 가끔은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작년 파리올림픽 체계 때도 그랬죠. 그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정진하다 보니 조금씩 길이 열리더라고요. 이제 ‘단신’은 핑계에 불과해요. 다음 올림픽에서는 정말로 하늘을 한번 감동시켜 보겠습니다(웃음).” 🌟

2024 파리 하계올림픽 유도 체급별 참가자 신장

성별	체급	참가자 평균	메달리스트 평균	금메달리스트	차이
M	-60kg	164.8	160.5	167	-4.3
	-66kg	170.3	167.8	168	-2.5
	-73kg	173.6	171.3	165	-2.3
	-81kg	178.6	178.8	181	0.2
	-90kg	182.4	184	190	1.6
	-100kg	187.5	192.5	192	5
	+100kg	193.2	194	204	0.8
W	-48kg	156.1	155	162	-1.1
	-52kg	161.4	157.3	160	-4.1
	-57kg	164.5	161	160	-3.5
	-63kg	166.9	165.3	165	-1.6
	-70kg	171.2	175.5	171	4.3
	-78kg	175.8	178.3	175	2.5
	+78kg	174.4	177.3	176	2.9

제39대 대한유도회장 취임식 겸 2025 유도인의 밤 행사 개최



조용철 회장이 제39대 대한유도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대한유도회는 2월 3일 오후 5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픽 아홀에서 ‘제39대 회장 취임식 겸 2025 유도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식 국회의원(용인시 갑),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유도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회장 취임식과 2부 유도인의 밤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조용철 회장의 공식 취임식이 열렸다. 조 회장의 취임사를 시작으로, 내빈 축사와 축하 영상 상영, 전국 시·도 유도회 및 연맹 전무이사단의 축하패 수여식이 이어졌다. 2부 유도인의 밤에서는 유도계 원로들에 대한 단증 수여식과 2024년 유공자 표창 시상식이 진행됐다. 10단에 오른 강형원 자문위원과 9단에 오른 김익환, 김준곤, 한상봉, 이무희 원로에게는 단증과 띠가 전달됐다. 이어 허미미(경북체육회)가 최우수선수상을 받았으며, 2024년에 활약한 유공자들에게도 표창이 수여됐다.

2024 대한유도회 표창대상자 명단

구분	대상자	선수개인성적
경기상 (최우수선수)	허미미(경북체육회)	포르투갈그랑프리(1위), 아부다비세계선수권(2위), 파리올림픽(1위)
경기상 (우수선수)	김민중(양평군청), 이준환(용인대), 김하윤(안산시청), 이현지(남녕고), 이혜경(광주교통공사), 김지수(경북체육회), 김민정(경기대), 남유리(용인대), 양지민(용인대)	2024년 본 회가 파견한 각종 국제대회1위 선수
우수선수상	(초등부)김지웅(한라유도클럽), (중등부)백서영(중앙중), (고등부)김민준(신철원고)	한국초·중·고연맹 추천
우수지도자상	김미정(여자국가대표감독), 황희대(남자국가대표감독)	파리올림픽지도자
경기상 (단체상)	(남초부)대전천동초, (여초부)서울송중초, (남중부)보성중, (여중부)서울체중, (남고부)경민고, (여고부)남녕고, (남대부)용인대, (여대부)용인대, (남일반부)양평군청, (여일반부)순천시청	2024년 본회가 주최한 전국대회 종별 우승단체
지도상	(남초부)김윤철, (여초부)박민영, (남중부)백승엽, (여중부)소미, (남고부)오승용, (여고부)김영동, (남대부)장성호, (여대부)이재형), (남일반부)조구함, (여일반부)김양호	우수단체 지도자
공로패	(서울)이영록, (부산)서장수, (대구)김정진, (인천)신기호, (광주)김기주, (대전)송달호, (울산) 김경덕, (세종)-, (경기)김미란, (강원)유경연, (충남)유영창, (충북)문호철, (전남)강장원, (전북)김동영, (경남)노영환, (경북)이상문, (제주)신병범, (초종교)이연중, (대학)박훈, (실업)김대욱	지도자부 및 연맹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김승기(개인사업), 구성철(인천시유도회장)	2024년 본회가 파견한 각종 국제대회 단장
	김영훈(용인대), 이용호(안산시청), 김정훈(경북체육회)	파리올림픽 소속팀 지도자
	최창석(한국초중고유도연맹), 김순기(한국초중고유도연맹), 구상희(한국초중고유도연맹)	한국초·중·고연맹 추천
	조재호(올바른서울병원 원장) 최승엽(청소년대표팀), 박훈식(동지중)	의무위원장 모범심판



2025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대한유도회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가 1월 23일 오후 1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4층 베를린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대의원 20명 중 18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제39대 회장 선거 결과, 규정 개정 결과,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감사 결과 등 주요 사항이 보고됐다. 심의사항으로는 정관 개정 승인, 2024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 제39대 집행부 임원 선임, 이사 증원 승인,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 등이 논의됐다. 심의 결과, 정관 개정과 2024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임원 선임과 위원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제39대 집행부 행정감사에는 박승용 강원특별자치도 회장이, 회계감사에는 구본광 회계사(대주회계법인 전무)가 선임됐다.

제39대 집행부 제1차 이사회 개최

제39대 대한유도회 집행부의 첫 이사회가 3월 8일 오후 1시 30분 충남 보령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직 이사 38명 중 31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보고사항으로는 제39대 임원 선임 결과,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 이사회 서면 결의 결과, 1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개최된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그리고 기타 사업 결과 등이 있었으며,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됐다. 심의사항으로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2025년도 예산 추가, 그리고 각종 회의 수당 확정 건이 다뤄졌고, 이 또한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조용철 회장, 국제유도연맹 총회 참석

조용철 대한유도회장이 6월 11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IJF)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조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마리우스 비저 IJF 회장과 오베이드 알안지 아시아유도연맹 회장을 비롯한 국제 유도계 주요 인사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또한 국제 유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대한민국 유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우즈베키스탄 MOU 체결

본회는 6월 11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IJF) 정기 총회 기간 중 우즈베키스탄 유도협회와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맺었다. 이번 MOU는 조용철 대한유도회장과 아지즈존 카밀 로프(Azizjon Kamilov) 우즈베키스탄 유도협회장이 직접 서명하며 협력 의 뜻을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수 및 지도자 교류 *합동 훈련 및 기술 지원 *국제대회 협력 *유소년 및 유망주 육성 프로그램 공유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용철 회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아 시아의 떠오르는 유도 강국으로 앞으로의 발전이 무궁무진한 나라”라 며, “이번 협약이 양국 유도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MOU 체결 소감을 밝혔다.

대한유도회, 경남권 산불 피해 1,000만원 성금 기탁

본회는 지난 3월 28일 경상권(경북, 경남, 울산 등) 산불 피해 이재민 지 원을 위해 1,000만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3월 산 불로 인해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조치다. 조용철 회장은 “산불 피해 복구에 대한유도회의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지역에 빠르게 복구되고 이재민들이 아픈 마 음을 추스르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 했다.

(주)제우인터내셔널, 2025-2026 후원업체 선정

본회는 지난 12월과 1월에 진행한 공식용품 후원 업체 선정 공모를 통해 (주)제우인터내셔널을 ‘대한유도회 공식 용품 후원업체’로 선정했다. (주)제 우인터내셔널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 간 3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할 예정이다.

(주)한국암웨이, 2025-2026 건강식품 후원 체결

본회는 (주)한국암웨이와 건강식품 후원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으로 대 한유도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천만원 상당의 한국암웨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지원 받는다.

2025년도 제1, 2차 정기승단심사 실시

대한유도회는 2025년도 제1차 정기승단심사를 2월 27일에, 제2차 승 단심사를 5월 29일에 각각 실시했다. 1차에서에서는 총 4,057명이, 2차 는 3,901명이 합격하며 단을 획득했다.

승단인원 - 1차					
6단	1명	3단	51명	소년3단	17명
5단	2명	2단	748명	소년2단	275명
4단	15명	초단	1,900명	소년초단	1,048명

승단인원 - 2차					
8단	2명	5단	35명	2단	585명
7단	4명	4단	67명	초단	1,440명
6단	6명	3단	199명	소년3단	15명

유도인 동정

다나카 미키, 여자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채용

본회는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및 각종 국제대회에 대비하고 자, 일본유도연맹이 추천한 전 일본 국가대표 출신 다나카 미키를 여자 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채용했다.

다나카 미키 전력분석관은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2012년 파 리 그랜드슬램 1위를 기록한 일본 국가대표 출신이다. 또한, 이스라엘과 우즈베키스탄 여자대표팀을 지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김대봉 감독, 청소년대표팀 전담지도자로 채용

본회는 지난 2월, 2025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 공개 모집을 통해 김대봉 도개고등학교 감독을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로 선임했다. 김대봉 감독은 2012년부터 도개고 감독을 맡아 선수들을 지도해 왔으며, 2017년에는 후보선수 전문지도자와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코치를 역임한 바 있다.

이승원·손주영 심판, 국제 ‘Continental’ 심판 시험 합격

이승원 심판(이승원유도관장)과 손주영 심판(북원중 코치)이 지난 5 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국제심판 (Continental)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제39대 대한유도회 집행부

직책	성명	소속 및 경력	직책	성명	소속 및 경력
회장	조용철	용인대학교 교수 - 대한체육회 이사(전) - 아시아유도연맹 교육보급위원장(현) - 아시아유도연맹 사무총장(전) - 대한유도회 상임부회장(전) - 충청남도유도회 회장(전)	이사	김재훈	국군체육부대 감독 -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담지도자(전) - 미국유도협회 심판(전)
			이사	김영찬	용인대MJ유도관 관장 - 울산시유도회 전무이사(현)
부회장	신익식	필그린 L&C 대표이사 - 용인시체육회 부회장(전) - 대한유도회 남북협력교류위원장(전)	이사	유희권	- 충청남도유도회 부회장(현) - 대한장애인협회 부회장(전)
			이사	배형정	동원대학교 외래교수 - 서울특별시유도회 이사(현) - 서울체육고등학교 교사(전)
부회장	김가석	에스와이(주) 대표이사 - 용인시체육발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현) - 법무부 법사랑 기흥지구 협의회장(현)	이사	김태윤	해동고등학교 감독 - 후보선수 전문지도자(현)
			이사	이정렬	삼천포제일중학교 감독 - 사천시유도회 전무이사(현)
부회장	정용석	대우건설 상무 - 광주시체육회 부회장(현) - 광주지방경찰청 무도연구지도관(전)	이사	김준원	중앙대학교 감독 - 대성고 코치(전)
부회장	김대용	- 인천광역시유도회 회장(전) - 인하대학교 감독(전)	이사	유국상	해마미 대표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부회장(전)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심의위원(전)
부회장	백락광	남곡건설(주) 대표이사 - 구미녹색환경(주) 대표이사(현)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회장(전)	이사	문호영	신사유도클럽 대표 - 충청북도유도회 전무이사(현) - 충청북도장애인유도협회 회장(현)
부회장	김태겸	뉴시스 본부장 - 뉴시스 수도권취재본부 본부장(전) - 뉴시스 상무이사(전)	이사	김용하	천안동성중 교사 - 충청남도유도회 전무이사(현) - 대한유도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전)
이사	조인철	용인대학교 교수 - 유도 남자국가대표팀 감독(전) - 대한유도회 경기력향상위원장(전)	이사	조민선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대한유도회 이사(전) - 한국여성스포츠회 위원(현)
이사	윤용발	성동구청 감독 - 유도 국가대표팀 코치(전) - 서울특별시유도회 상임부회장(현)	이사	박 훈	탐마켓 대표 - 한국대학유도연맹 부회장(현)
이사	서윤석	휴버트유도 감독 - 올바른서울병원 본부장(현) - 서울특별자유도회 상임부회장(현)	이사	조정복	한성유도관 관장 - 대전광역시유도회 전무이사(현) - 대전대성중 감독(전)
이사	임광영	송도고 감독 - 인천광역시유도회 심판위원장(전) - 인천광역시유도회 전무이사(현)	이사	박훈식	동지고등학교 감독 - 한국초중고유도연맹 총무이사(전) - 한국초중고유도연맹 전무이사(현)
이사	김대욱	광주광역시체육회 감독 - 광주체중·고 코치(전) - 대한유도회 상임심판(전)	이사	최창석	- 한국초중고유도연맹 부회장(전) - 대구광역시유도회 전무이사(전)
이사	배상일	동해시청 감독 - 대한유도회 경기위원장(전) - 유도 여자국가대표팀 감독(전)	이사	황선학	경기일보 국장 - 한국기자협회 경기일보 지회장(전) - 수원시체육진흥협의회 위원(현)
이사	한영호	남성중학교 교사 - 전북특별자치도유도회 심판위원장(전) - 전북특별자치도유도회 전무이사(현)	이사	오철수	남양주시청 교통국장 - 남양주시청 체육과장(전) - 남양주시청 비서실장(전)
이사	김희중	전남유도회 이사 - 여주시유도회 부회장(현) - 전라남도유도회 전무이사(현)	이사	최동환	트리플건설 대표이사 - 전라북도장애인유도협회 회장(전) - (사)부패방지국민운동본부총연합 감찰단장(전)
이사	변석휴	(주)유천 대표이사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부회장(전) - (주)굴든비피 사장(전)	이사	이윤환	수원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장 - 수원영통중 교장(전) - 한국초중고유도연맹 부회장(현)
이사	임병기	남녕고등학교 감독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상임부회장(현)	감사	박승용	아름다운동행 대표 - 강원특별자치도유도회 회장(현) - 동아시아유도연맹 부회장(현)
이사	김순기	- 경기도체육회 이사(전) - 한국초중고유도연맹 부회장(현)	감사	구본광	대주회계법인 전무이사 - 호정실업 사외이사(현) - 한영회계법인 전무이사(전)
이사	전기영	용인대학교 교수 - 국제유도연맹 수석 심판위원장(현) - 대한유도회 국제분과위원장(전)			

분과위원장

직책	성명	소속 및 경력
심판위원장	윤 현	용인대학교 교수 - 대한유도회 이사(전) - 한국대학유도연맹 전무이사(전)
경기위원장	정준호	충북도청 감독 - 충북유도회 부회장(현) - 한국실업유도연맹 전무이사(전)
경기력향상위원장	금호연	- 유도 남자국가대표팀 감독(전) - 수원시청 감독(전)
생활체육위원장	이흥덕	이흥덕체육관 관장 - 서울특별시유도회 전무이사(현) - 서울특별자유도회 총괄위원장(전)
KATA위원장	신상민	우석대학교 교수 - 경찰대학교 상무학과 유도 교관(전) - 전북특별자치도유도회 이사(현)
홍보위원장	이승원	이승원유도관 관장 - 서울특별시유도회 심판위원(현) - 강동구유도회 수석부회장(현)
학교운동부 지도자위원장	김기주	광주체육중·고등학교 교사 - 광주시유도회 부회장(현) - 한국초중고유도연맹 이사(현)
의무위원장	조재호	올바른서울병원 원장 - 예순병원 관철센터 위장(전) - LG세이커스 프로농구단 팀닥터(전)
스포츠공정위원장	최주필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 국가위원회 현장상담위원(현) - 서울특별자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전)
인사위원장	김인호	법률사무소 길 변호사 - 전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승단심의위원장	문원배	- 동아시아유도연맹 심판위원장(현)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회장(전)

제2회 사천우주항공공립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2025.1.17.~19. / 경남, 사천시 삼천포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유 치 부			
-25kg 원하진 (원림유도센터)	정이든 (함양유도관)		
남자중학부			
-48kg 김태윤 (대전현성유도관)	김천우 (천행유도관(하명점))	이동하 (울림택유도관(관자관))	최재원 (공명유도관(군산))
-52kg 이서환 (경스유도클럽 본점)	권규민 (쌍생유도멀티점(오산점))	조창용 (엘리트유도멀티점)	박재현 (송탄유도관)
-58kg 최무건 (웅인대투혼(아주점))	황찬 (세종유도관(아름점))	이호준 (웅인대투혼(아주점))	최용준 (김해시립유도관)
-66kg 원태호 (청담유도관)	이상효 (진관유도관)	김시웅 (dream of judo) 흥덕유도관	유지호 (웅인대투혼(아주점))
-73kg 이재민 (웅인대경유도관)	이종현 (기록유도관)	최정원 (기록유도관)	박기태 (해방유도관)
-81kg 유경민 (웅인대투혼(아주점))	김주민 (쌍생유도멀티점(오산점))	박준서 (웅호유도(아카데미))	김지근 (영덕유도관)
-90kg 이상빈 (오라차치유도 GYM)	김태윤 (한국체대 대전유도관)	김우진 (K유도클럽)	정재훈 (한국체대 대전유도관)
+90kg 신주엽 (웅인대투혼유도클럽)	김성범 (M2M스포츠(아카데미))	김희우 (명품유도관)	나종현 (공명유도관(군산))
여자중학부			
-42kg 이서영 (송탄유도관)	이아영 (송탄유도관)	임지우 (팀크로우유도멀티점)	김나경 (Judoia(이경근유도관)
-47kg 이다현 (송담유도관)	안사우 (대전현성유도관)	김아란 (부산유심유도관)	김시연 (영성유도관)
-52kg 노민선 (경스유도클럽 본점)	문하윤 (부산유심유도관)	김진익 (JNS유도체육관(오산))	조예진 (해물마이체육관)
-57kg 김나경 (청춘유도(월성동))	김세빈 (김해유도관)	남아울 (웅인대경의유도관)	유승희 (진관유도관)
-63kg 권민지 (포항구남유도체육관)	김지민 (경태대유도관)	이채민 (K유도클럽)	강다운 (K유도클럽)
-70kg 김태경 (영한유도클럽)	김민주 (포항구남유도체육관)	이유진 (부산유심유도관)	정주현 (가온웅인대유도관)
+70kg 홍지우 (명품유도관)	서지원 (영탄유도관)	구서현 (몬스터유도점)	전예선 (이제트유도관)
남자고등부			
-55kg 성연준 (웅인대불당유도관)	김동우 (화경유도관)	박세진 (Pedagogy(복사유도관)	김강비 (파이날유도점)
-60kg 윤재현 (퍼펙트유도관)	박세준 (청춘유도관)	장준민 (영양유도관(송정점))	김승훈 (세종유도관(보람점))
-66kg 윤용준 (신계주유도스쿨)	문주원 (부산유심유도관)	송승준 (진해웅관유도관)	손규민 (퍼펙트유도관)
-73kg 조수영 (백공유도클럽(오정점))	신정현 (웅한유도클럽)	이호준 (웅인대사대문체육관)	양원산 (웅인대사대문체육관)
-81kg 김병주 (한국유도관(경남))	김지건 (경스유도클럽 2호점)	박병원 (영양유도관)	서영훈 (구한유도관)
-90kg 정현준 (기초유도관)	한건 (영남 J&J)	주지원 (진해웅관유도관)	서현호 (진해유도관)
-100kg 최창호 (사천유도체육관)	김지성 (청춘유도관(다사점))	주민규 (한국체대 대전유도관)	정우진 (몬스터유도점)
+100kg 최준호 (유사사 유도권수원)	이은탁 (함양유도관)	강태윤 (웅인대안양유도관)	정대룡 (함양유도관)
여자고등부			
-48kg 이하영 (천행유도관)	김가은 (한국체대 대전유도관)	이하울 (청춘유도관(구미점))	이현주 (천명유도관(하성))
-52kg 강영서 (BROS유도관)	이해솔 (반석유도관)	김나연 (기록유도관)	조가연 (팀크로우유도멀티점)
-57kg 김다연 (이승원유도관(KATA))	김민지 (청담유도관)	이서은 (한국체대 대전유도관)	장예원 (청춘유도관(구미점))
-63kg 이지안 (코리아짐(해운대))	박지우 (김해시립유도관)	박시연 (천명유도관(하성))	김시은 (반석유도관)
-70kg 임지현 (JNS유도체육관(오산))	강보림 (파라임유도(아카데미))	서영채 (고성유도관)	윤솔기 (유사사유도관(남영))
-78kg 박셋별 (유사사 유도권수원)	김수아 (미르유도관(영지동))	조아형 (함양유도관)	김태희 (가온웅인대유도관)
+78kg 김유나 (히트유도관)	조여진 (가온웅인대유도관)	홍유진 (쌍생유도멀티점(오산점))	박민주 (K유도클럽)
청년부			
-60kg 유준상 (세종유도관(아름점))	원태희 (송백유도관)	우창은 (가온웅인대유도관)	박정재 (제일유도관)
-66kg 유준민 (청춘유도관(구미점))	유진승 (한국체대 대전유도관)	김도현 (영양유도관(송정점))	박진수 (진해유도관)
-73kg 김천오 (팀크로우유도오산))	서재운 (파이날유도멀티점(영성))	최승완 (부주유도관)	김숙수 (부산경상대학교)
-81kg 박상민 (히트유도관)	홍솔민 (청담유도관)	최수민 (경남유도관(1관))	정래준 (정부경유도관)
-90kg 김경수 (웅인대경의유도관)	김경동 (함양유도관)	김홍기 (청담유도관)	노재홍 (청춘유도관(구미점))
-100kg 김민규 (아산해방유도관)	김형호 (한만유도관)	김재현 (택유티유도관)	정유찬 (한국유도관(경남))
+100kg 이상철 (팀크로우유도오산))	황승환 (한만유도관)	김범수 (김해시립유도관)	김도문 (함양유도관)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초등부(4~6학년)	웅인대경의유도관	웅인대강유도관	산척초등학교 (대구)
여자초등부(4~6학년)	청담유도관	고성유도관	함양유도관
남자중학부	서울마이티체육관	청춘유도(월성동)	킹스유도클럽 본점
여자중학부	청춘유도(월성동)	송탄유도관	삼승유도회관
남자고등부	진해유도관	이승원유도관	파이날유도멀티점(웅인(영지대점))
여자고등부	가온웅인대유도관	한국체대 대전유도관	
남자일반부	팀크로우유도(오산)	웅인대범유도클럽	코리아짐(해운대)
여자일반부	부산유심유도관	히트유도관	유사사 유도관(수원)

체급	1위	2위	3위
중년부			
-73kg 신경재 (코리아짐(해운대))	유재민 (천마유도(아카데미))	박세민 (공주유도관)	이남준 (웅한유도클럽)
-81kg 객재열 (Pedagogy(복사유도관)	서현덕 (이제트유도관)	이종혁 (한국체대 대전유도관)	박지섭 (김해유도관)
-90kg 손충율 (웅인대범유도클럽)	이광민 (포항구남유도체육관)	홍준표 (웅인대스포츠클럽)	
+100kg 박준현 (코리아짐(해운대))	정원준 (윤웅발유도관)	박현철 (제일유도관)	
장년부			
-73kg 이동욱 (윤웅발유도관)	추경엽 (순천유도스포츠클럽)		
-90kg 우문수 (한국체대 대전유도관)	김상철 (한국체대 대전유도관)	조삼민 (T(웅인대유도체육관본점))	
+90kg 유충조 (해산군유도회(오정))	정원기 (윤웅발유도관)		
남자초등부(1~2학년)			
-25kg 서한결 (청춘유도관(다사점))	원사진 (원림유도센터)		
-30kg 문정욱 (영한유도관)	강태양 (코리아유도관)	박화병 (코리아유도관)	김시은 (코리아유도관)
+35kg 송준우 (경스유도클럽 본점)	육보건 (영한유도관)	양이솔 (부산유심유도관)	성은태 (청춘유도관(경기관))
남자초등부(3~4학년)			
-30kg 남기백 (탐동초등학교)	서한섭 (청춘유도관(다사점))	홍지성 (히트유도관)	
-35kg 양용재 (탐동초등학교)	노규민 (영한유도관)	구다원 (신분유도관)	석수현 (산척초등학교 (대구))
-43kg 권민건 (청춘유도(월성동))	이다원 (청춘유도관(다사점))	최무빈 (웅인대투혼(아주점))	김민준 (신사유도(아카데미(월성점))
-53kg 김선솔 (세종유도관(아름점))	박배성 (산척초등학교 (대구))	이인우 (부산유심유도관)	성은평 (청춘유도관(경기관))
+53kg 박수승 (청춘유도관(연경점))	김건우 (함양유도관)	이찬울 (청춘유도관(연경점))	최우석 (청춘유도관(연경점))
남자초등부(5~6학년)			
-35kg 김태훈 (웅인대강유도관)	정재원 (한국유도관(경남))	강중현 (진주시립유도관)	
-43kg 박준현 (청춘유도관(구미점))	소지호 (울림택유도관(관자관))	조승민 (한국유도관(경남))	김성현 (이제트유도관)
-53kg 이주현 (팔미트유도멀티점)	최승우 (K유도클럽)	이원재 (신사유도(아카데미(중명점))	김민찬 (천명유도관(하명점))
-65kg 채효성 (웅인대경의유도관)	신시을 (Pedagogy(복사유도관)	김현재 (포항구남유도체육관)	송시현 (팀크로우유도멀티점)
+65kg 김지원 (웅인대강유도관)	송현우 (영산유도관)	김민건 (웅인대강유도관)	장동현 (탐동초등학교)
여자초등부(1~2학년)			
-35kg 김태훈 (웅인대강유도관)	정재원 (한국유도관(경남))	강중현 (진주시립유도관)	
여자초등부(3~4학년)			
-30kg 허가연 (한국체대 대전유도관)	이나연 (코리아유도관)	진단희 (코리아유도관)	
-36kg 정재인 (세종오륜유도관)	김채아 (천명유도관(하명점))		
-48kg 조다연 (함양유도관)	김도희 (탐동초등학교)	신예니 (삼승유도회관)	
-57kg 윤루리 (탐동초등학교)	최연우 (세종오륜유도관)		
여자초등부(5~6학년)			
-36kg 구나은 (신분유도관)	전송하 (신사유도(아카데미(월성점))		
-48kg 강나연 (청담유도관)	이시은 (청담유도관)	장서영 (K유도클럽)	위아진 (웅인대김대옥유도관)
-57kg 성진영 (진주시립유도관)	정다영 (성통유도관)	최버리 (히트유도관)	조서연 (함양유도관)
-63kg 최서현 (청춘유도관(구미점))	김가을 (청춘유도관(수정점))	차민정 (K유도클럽)	김지나 (코리아유도관)
+63kg 김민경 (천명유도관(하명점))	박혜민 (청춘유도관(다사점))	윤서을 (삼승유도회관)	김소록 (히트유도관)
여자일반부			
-48kg 이지유 (해양유도관)	손현 (부산경상대학교)	이주희 (코리아짐(해운대))	김승현 (히트유도관)
-52kg 김수현 (유사사 유도권수원)	조혜빈 (천명유도관)	김아란 (청담유도관)	고아라 (관악유도체육관)
-57kg 최정민 (미르유도관(영지동))	신은서 (아시아스포점)	오수린 (히트유도관)	현영은 (코리아짐(해운대))
-63kg 명지은 (영한유도관)			장보빈 (몬스터유도점)
-70kg 임지연 (BROS유도관)	김동희 (유사사 유도권수원)	안은진 (청춘유도관(다사점))	임한솔 (청춘유도관(남양점))
-78kg 조서영 (청춘유도관(구미점))	오유빈 (경남유도관(1관))		

청춘양구 2025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2025.2.7.~8. /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

체급	1위	2위	3위
유 치 부			
-25kg 배성민 (청춘유도관(속초점))	진연우 (청춘유도관(속초점))	권현우 (청춘유도관(속초점))	최시은 (청춘유도관(속초점))
남자중학부			
-48kg 이규원 (한철웅유도관)	이호준 (미스타사크유도멀티점)	김태준 (에이스유도체육관)	조민호 (Judoia(이경근유도관)
-52kg 윤현우 (히트유도관)	진승준 (한수유도관)	박강건 (한수유도관)	김대현 (Judoia(이경근유도관)
-58kg KIM YEGOR(김제범유도관)	강명진 (민앤미노(하남점))	이시현 (한철웅유도관)	이서환 (경스유도클럽 본점)
-66kg 정지훈 (에이스유도체육관)	장은준 (리랜드유도멀티점)	원태호 (청담유도관)	박현서 (다은유도점)
-73kg 송인주 (천재범유도관)	허승훈 (파이날유도멀티점(파주점))	황현찬 (몬스터스포츠클럽(2관))	장민준 (영주고음유도체육관)
-81kg 나현석 (다은유도점)	고은규 (김제범유도관)	서유석 (웅인대평택유도체육관)	최강 (철원유도관)
-90kg 이지후 (민앤미노유도 덕소점)	여채영 (파이날유도멀티점(본점))	성세환 (김형기유도관(송파점))	신승우 (웅인대평택유도체육관)
+90kg 김민찬 (웅인대강원유도점)	김승현 (군자협양유도관)	조현민 (춘천유도스쿨)	정유준 (Judoia(이경근유도관)
여자중학부			
-42kg 김나경 (Judoia(이경근유도관)	이주희 (청천유도스쿨)	최영민 (웅인대(이소연유도클럽)	
-47kg 유현지 (파이날유도멀티점(파주점))	박채미 (파이날유도멀티점(파주점))	조세음 (파이날유도멀티점(파주점))	박서현 (웅인대평택유도체육관)
-52kg Purevdorj delgermaa (춘천유도스쿨)	노민선 (경스유도클럽 본점)	김효은 (다은유도점)	이슬 (동탄유도체육관)
-57kg 김나경 (청춘유도(월성동))	김태빈 (탐골레스유도체육관)	권은지 (영통유도체육관)	유승희 (진관유도관)
-63kg 박민주 (SKY유도관)	박채형 (청탄유도체육관)	김수연 (종재(일일유도관)	우서아 (별마리J유도관)
-70kg 김여진 (웅인대강원유도점)	서예주 (청춘유도관(속초점))	강은지 (김형기유도관(송파점))	안서영 (별마리J유도관)
+70kg 김은혜 (웅인대고양유도멀티점 본점)	권민서 (웅인대(이소연유도클럽)		
남자고등부			
-55kg 김민찬 (민앤미노유도 덕소점)	정승민 (부산시유도회관)	김영주 (김형기유도관(송파점))	허승원 (김형기유도관(송파점))
-60kg 방석영 (미스타사크유도멀티점)	이지형 (유사사 유도권수원)	김준현 (영통유도체육관(KATA))	신재웅 (철원유도관)
-66kg 안형민 (김형기유도관(송파점))	김예찬 (영주고음유도체육관)	이택현 (웅인대안양유도관)	홍석현 (송탄유도관)
-73kg 이현성 (미스타사크(김민수유도))	유건화 (청담유도관)	박준영 (에이스유도체육관(KATA))	염준서 (탐골레스유도체육관)
-81kg 김태준 (영통유도체육관(KATA))	김두환 (영주고음유도체육관)	안율빈 (유사사 유도관(호매실))	신승현 (서부유도관)
-90kg 박용우 (선분유도관(KATA))	이승민 (웅인대(이소연유도클럽))	이한영 (유사사 유도관(호매실))	전우빈 (웅인대고강유도체육관)
-100kg 김해성 (신분유도관)	최우승 (별마리J유도관)	김민준 (영주고음유도체육관)	오유찬 (몬스터스포츠클럽(2관))
+100kg 윤재현 (부산시유도회관)	최준호 (유사사 유도권수원)	김태윤 (웅인대안양유도관)	김재운 (미스타사크유도멀티점)
여자고등부			
-48kg 김가은 (한국체대 대전유도관)	이하울 (청춘유도관(구미점))	홍은채 (청춘유도스포츠클럽)	임하연 (탐골레스유도체육관)
-52kg 박민경 (김형기유도관(송파점))	김유진 (아래(유도멀티점)	김수연 (브로스유도관(경남대))	박선빈 (철원지유도관)
-57kg 정채영 (미스타사크유도멀티점)	전가을 (부산시유도회관)	김민지 (청담유도관)	이문서 (브로스유도관(경남대))
-63kg 고은서 (브로스유도관(경남대))	정서현 (웅인대강원유도점)	김윤아 (경스유도클럽 본점)	김다운 (원주유도스쿨)
-70kg 김주하 (군자협양유도관)	김민영 (경도유도체육관)	윤솔기 (유사사유도관(남영))	
-78kg 박셋별 (유사사 유도권수원)	임영채 (웅인대강원유도점)		
+78kg 홍유진 (쌍생유도멀티점(오산점))	김유나 (히트유도관)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초등부(4~6학년)	안철웅유도관	김형기유도관(송파점)	진관유도관
여자초등부(4~6학년)	청담유도관	청춘유도관(구미점)	양구유도스포츠클럽
남자중학부	킹스유도클럽 본점	김제범유도관	양수유도관
여자중학부	웅인대(이소연유도클럽)	청춘유도(월성동)	다은유도점
남자고등부	김형기유도관(송파점)	산분유도관	미스타사크(김민수유도

체급	1위	2위	3위
청년부			
-66kg 한예준 (에이스유도체육관)	이영훈 (파웅인대유도(배리(영성점))	김윤규 (원주유도스쿨)	허민 (무덕유도관)
-73kg 김태영 (제주유도관)	손동휘 (무덕유도관)	이성현 (웅인대범유도클럽)	백유빈 (철원지유도관)
-81kg 서대영 (천행유도관)	정용수 (파이날유도멀티점(본점))	정준엽 (청담유도관)	최한울 (에이스유도체육관)
-90kg 김경수 (웅인대경의유도관)	김득수 (선분유도관)	정진산 (히트유도관)	양병찬 (철원지유도관)
+100kg 송태희 (탐골레스유도체육관)	유영훈 (웅인대범유도클럽)		
중년부			
-81kg 권은진 (종재(일일유도관)	이규호 (우석유도체육관)	권호 (무덕유도관)	
-100kg 손충율 (웅인대범유도클럽)	박태진 (우석유도체육관)	지정훈 (유사사 유도권수원)	고정현 (민앤미노(하남점))
+100kg 남두현 (우석유도체육관)	정원준 (윤웅발유도관)		
장년부			
-73kg 지광호 (웅인대안양유도관)	이동욱 (윤웅발유도관)		
+90kg 유충조 (해산군유도회(오정))	정원기 (윤웅발유도관)		
남자초등부(1~2학년)			
-30kg 강유준 (한철웅유도관)	이건호 (영주고음유도체육관)	이민혁 (경도유도체육관)	
-35kg 김태민 (김제범유도관)	서준우 (청천유도스포츠클럽)	이강호 (영주고음유도체육관)	배성빈 (청춘유도관(속초점))
남자초등부(3~4학년)			
-30kg 강태현 (한수유도관)	남기백 (탐동초등학교)	전하울 (영주고음유도체육관)	홍지성 (히트유도관)
-35kg 양용재 (탐동초등학교)	이규하 (한철웅유도관)	임태빈 (한수유도관)	유정우 (탐동초등학교)
-43kg 권민건 (청춘유도(월성동))	이준우 (청춘유도(월성동))	류은찬 (한철웅유도관)	김서진 (양구유도스포츠클럽)
+53kg 홍현택 (별마리J유도관)	박승조 (서부유도관)	박하을 (탐동초등학교)	
남자초등부(5~6학년)			
-35kg 이시후 (한철웅유도관)	김재원 (의정부부유도관)	김대형 (동탄유도체육관)	박시현 (양구유도스포츠클럽)
-43kg 김동하 (원주유도스쿨)	남규민 (탐동초등학교)	김도원 (파(웅인대다울클럽(서점))	김시원 (김형기유도관(송파점))
-53kg 고정규 (김제범유도관)	문주빈 (경스유도클럽 본점)	김태현 (웅인대안양유도관)	문지호 (선분유도관)
-65kg 이승민 (양구유도스포츠클럽)	황재율 (의정부부유도관)	김시준 (선분유도관)	하준성 (한철웅유도관)
+65kg 김이한 (한수유도관)	강건우 (민앤미노(다사점))	김민근 (파이날유도멀티점(본점))	남유준 (진관유도관)
여자초등부(3~4학년)			
-30kg 오민지 (김형기유도관(송파점))	이은채 (외왕유도점)		
-36kg 이세현 (Judoia(이경근유도관)	김윤서 (한철웅유도관)		
-48kg 김도희 (탐동초등학교)	박나은 (양구유도스포츠클럽)		
여자초등부(5~6학년)			
-48kg 강나연 (청담유도관)	이시은 (청담유도관)	이예담 (청춘유도관(구미점))	김아인 (히트유도관)
-57kg 최버리 (히트유도관)	박영채 (민앤미노유도 덕소점)		
-63kg 최서연 (청춘유도관(구미점))	김소록 (히트유도관)	손도연 (영주고음유도체육관)	
+63kg 김누림 (미스타사크(김민수유도))	이민지 (파이날유도멀티점(본점))		
여자일반부			
-48kg 양하늘 (경도관)	김아란 (청담유도관)		
-52kg 김승현 (히트유도관)	김수현 (유사사 유도권수원)	김시량 (웅인대안양유도관)	오승희 (웅인대안양유도관)
-57kg 신은서 (아시아스포점)	오수린 (히트유도관)	홍서현 (최강고양유도멀티점)	전은지 (한평유도관)
-63kg 박태연 (종재(일일유도관)	양세화 (경도관)		
+78kg 한예진 (유사사유도관(남영))	이하영 (BROS유도관)	한예진 (천마유도체육관)	강주희 (아시아스포점)

2025 만세보령머드배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2025.3.8.~9. / 충남, 보령종합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유 치 부			
-25kg 정이든 (함양유도관)	이정진 (원림유도센터)		
남자중학부			
-48kg 이동하 (울림체육도관소재) 김찬우 (천령유도관화성점)	이규민 (용화RUYDOGYM)	이은유 (선인유도관)	
-52kg 김태운 (대전한성유도관)	송민근 (공영유도관익산)	조창웅 (엘리트유도멀티짐)	진승준 (함수유도관)
-58kg KIM YEGOR (강재범유도관)	홍예성 (분당유도관)	구예준 (용인대정진유도관)	김의준 (대전한성유도관)
-66kg 정은준 (그랜드유도멀티짐)	황진석 (청송유도월성동)	이승현 (우석유도체육관)	강창규 (다문유도점)
-73kg 조훈석 (JNS유도체육관수지)	허승훈 (파이널멀티짐김포점)	조필모 (용호유도아카데미)	김도환 (우석유도체육관)
-81kg 최강 (철원유도관)	엄기동 (용인대남양주유도관)	박성주 (계룡유도관)	허창범 (YK유도클럽)
-90kg 허건 (YK유도클럽)	공정훈 (공영유도관군산)	김세영 (JNS유도체육관평택)	윤정빈 (분당유도관)
+90kg 김희우 (영통유도관)	김재윤 (문산유도체육관)	이예준 (서울YMCA)	김민우 (용인대평택유도체육관)
여자중학부			
-42kg 최우진 (노은유도관)	김여은 (철원유도관)	정예원 (JudoPie이경근유도관)	손솔 (한국유도관경남)
-47kg 문사랑 (대전한성유도관)	김시연 (분당유도관)	이아영 (송탄유도관)	김기은 (BROS유도관)
-52kg 안채은 (리더유도점)	이하연 (리더유도점)	이슬 (동탄유도체육관)	공지우 (용인대청통유도관)
-57kg 심예슬 (파이널유도멀티짐김포점)	김민경 (예산군우도유도장)	김리하 (JNS유도체육관평택)	남하은 (안산유도체육관고전점)
-63kg 김민지 (아시아스포츠클럽)	박초록 (파이널유도멀티짐성북점)	김민송 (청송유도월성동)	정하늘 (천명유도관)
-70kg 임하영 (강릉유도멀티짐유도점)	권수현 (아시아스포츠클럽)	김서은 (호서체육관)	박보미 (파이널유도관)
+70kg 박미나 (아시아스포츠클럽)	정지유 (리더유도점)	이지인 (RUYDOGYM)	한보영 (파이널유도멀티짐성북점)
남자고등부			
-55kg 성연준 (용인대불당유도관)	반한울 (파이널유도멀티짐용무점)	김동우 (화성유도관)	명민재 (천명유도관화성)
-60kg 황천 (세종유도관이름점)	임태서 (문산유도체육관)	정하준 (한국유도관경남)	노명진 (리더유도점)
-66kg 이윤도 (세종유도관이름점)	이택현 (용인대서양유도관)	임용환 (용인대서양유도체육관)	박재윤 (오라치유도GYM)
-73kg 유대욱 (신계주유도스쿨)	이준영 (원림유도센터)	함건 (안산유도체육관)	이도윤 (원림유도센터)
-81kg 김서진 (대전유도관)	김지석 (천령유도관)	김태준 (영통유도체육관KATA)	고무승 (송탄유도관)
-90kg 이상윤 (병만유도관)	김우진 (YK유도클럽)	김지훈 (봉곡유도점)	최승우 (미스터스포츠킴산유도)
-100kg 손재민 (리온유도관)	송화현 (국가대표유도클럽)	임영진 (삼성리더유도관)	노민석 (JNS유도체육관수원)
+100kg 최민준 (부천용인대유도체육관)	조범수 (아이엠유도관)	강태윤 (용인대서양유도관)	최관욱 (유사치유도관화성)
여자고등부			
-48kg 이하영 (천명유도관)	박정원 (GP유도멀티짐소하)	김나경 (JudoPie이경근유도관)	이혜슬 (반석유도관)
-52kg 김하은 (세종유도관이름점)	김진희 (JNS유도체육관오산)	최운정 (마스터유도관중동점)	김민주 (파이널유도멀티짐용무점)
-57kg 전수은 (공영유도관군산)	강효민 (우석유도체육관)	유아린 (영통유도체육관KATA)	박윤아 (아시아스포츠클럽)
-63kg 박지우 (강재범유도관)	박시연 (천령유도관화성)	박윤지 (대전한성유도관)	박채형 (영통유도체육관KATA)
-70kg 이지은 (파이널유도멀티짐본점)	임지현 (JNS유도체육관오산)	최정민 (웅영발유도관)	윤슬기 (유사치유도관남양)
-78kg 장재희 (세종유도관보림점)	최예령 (RUYDOGYM)	윤지원 (성진해누리유도관)	변시연 (진유도관)
+78kg 권시윤 (그랜드유도멀티짐)	김유나 (히트유도관)	심송연 (서부유도관)	오수아 (파이널유도멀티짐용무점)
청년부			
-60kg 유준상 (세종유도관이름점)	원태희 (히트유도관)	김기훈 (서부유도관)	엄성윤 (부자유도관)
-66kg 유준민 (청송유도관구리점)	조관우 (화성유도관)	박무근 (원림유도관)	김희효 (해서범유도관)
-73kg 김태영 (진주유도관)	홍석준 (안산유도체육관)	신정우 (영평진유도관)	김숙수 (부산경상대학교)
-81kg 서대영 (한반유도관)	김정현 (용인대정진유도관솔터점)	정래준 (분당경유도관)	박상민 (히트유도관)
-90kg 김경수 (용인대경의유도관)	이연우 (GP유도멀티짐소하)	김상우 (파이널멀티짐화성점)	김호 (운남 J&J)
-100kg 권태연 (용인대정진유도관)	김민규 (이선배영유도관)	강석진 (세이퍼아카데미)	주인규 (경문대학교)
+100kg 황승환 (한반유도관)	김원태 (강성범유도멀티짐오산점)	박재윤 (웅영발유도관)	양우성 (철원유도관)

체급	1위	2위	3위
중년부			
-73kg 박형규 (서산유도관)	박세민 (공주유도관)	신은철 (천령유도관화성점)	정우철 (RUYDOGYM)
-81kg 김동진 (하양유도관)	최청락 (노은유도관)	김민준 (리치유도관)	
-90kg 손승울 (용인대범우도클럽)	손봉현 (파이널멀티짐화성점)	이용진 (JNS유도멀티짐)	최문선 (파이널유도멀티짐김포점)
장년부			
+90kg 유충조 (예산군유도화양동)	황의성 (RUYDOGYM)	정원기 (웅영발유도관)	
남자초등부(1~2학년)			
-25kg 이승윤 (안철영유도관)	정재아 (경실유도관)	최우리 (공영유도관김재점)	
-30kg 김기민 (홍성유도관)	김지은 (경상유도아카데미)	조성준 (경실유도관)	이민혁 (경도유도체육관)
+35kg 이서진 (원림유도센터)	김한결 (탑동초등학교)		
남자초등부(3~4학년)			
-30kg 이훈 (국민유도관)	안광찬 (국민유도관)	허광호 (탑동유도관)	남기백 (탑동초등학교)
-35kg 김태민 (김재범유도관)	구다원 (그랜드유도멀티짐)	권세준 (구원유도관)	전민규 (홍성유도관)
-43kg 조이안 (리더유도점)	주현승 (파이널유도멀티짐성북점)	도종욱 (울림체육도관관자점)	유태연 (천령유도관화성점)
-53kg 김건우 (용인대아유도관)	하창균 (구원유도관)	전태성 (국민유도관)	김리오 (파이널유도멀티짐)
+53kg 배민수 (용인대정진유도관)	박도현 (국가대표유도클럽)		
남자초등부(5~6학년)			
-35kg 정재원 (한국유도관경남)	김민준 (서천초등학교)	차라울 (국가대표유도클럽)	임태빈 (영수유도관)
-43kg 전성민 (안철영유도관)	최건혁 (아시아스포츠클럽)	박차민 (서천초등학교)	권민건 (청송유도월성동)
-53kg 이주환 (마스터스포츠킴산유도)	김규민 (구원유도관)	고성규 (김재범유도관)	이도윤 (아시아스포츠클럽)
-65kg 김기은 (용인대대한유도관)	정우주 (안철영유도관)	주예성 (청송유도관연경점)	김민건 (안철영유도관)
+65kg 최동현 (공영유도관전주대점)	원동휘 (송백유도관)	이찬울 (청송유도관연경점)	박수범 (청송유도관연경점)
여자초등부(1~2학년)			
-25kg 김지유 (경상유도아카데미)	ABYLKAZYEVA SAMIYA (용인대대한유도관)		
+30kg 안현지 (송백유도관)	이유주 (공영유도관군산)	김송아 (용인대아유도관)	김라은 (용인대대한유도관)
여자초등부(3~4학년)			
-30kg 이다인 (동주초등학교)	이나윤 (안철영유도관)	이아임 (청송유도관다사점)	유지윤 (한국유도관경남)
-36kg 임라은 (한국유도관경남)	허가인 (원유도클럽)	김운서 (안철영유도관)	
-48kg 박별하 (파이널유도멀티짐한보점)	조유진 (호서체육관)	김효정 (용인대대한유도관)	
여자초등부(5~6학년)			
-36kg 구니윤 (그랜드유도멀티짐)	김민솔 (안철영유도관)	양희서 (용인대청통유도관)	박소윤 (서천초등학교)
-48kg 김서아 (파이널유도멀티짐성북점)	김나경 (대전군유도화관)	김아린 (히트유도관)	양은서 (홍성유도관)
-57kg 김재현 (JNS유도체육관수지)	정서울 (함양유도관)	조다연 (함양유도관)	박에서 (안철영유도관)
-63kg 김초록 (히트유도관)	이채빈 (우석유도체육관)	정현서 (천령유도관화성)	
+63kg 이예은 (리치유도관)	박혜민 (청송유도관다사점)	전희원 (JudoPie이경근유도관)	
여자일반부			
-48kg 이시윤 (리더유도점)	류가연 (탐영점)	배나영 (하양유도관)	손현 (부산경상대학교)
-52kg 김승연 (히트유도관)	고아라 (관악유도체육관)	김태연 (한남대학교유성혜)	임민주 (운남 J&J)
-57kg 홍민정 (서부유도관)	이은초 (H영인대유도관영평점)	최민서 (JNS유도체육관수지)	김은별 (영원대학교)
-63kg 유수민 (JNS유도멀티짐)	박소희 (경우관)	이미리내 (경우관)	조혜수 (JNS유도멀티짐)
-70kg 임지현 (BROS유도관)	최다영 (파이널멀티짐화성점)	김주희 (국가대표유도클럽)	변세진 (공영유도관부안점)
-78kg 김민지 (세종유도관이름점)	오세은 (태평유도관)	강주희 (아시아스포츠클럽)	주영은 (국민유도관)
+78kg 한예진 (유사치유도관남양)	홍유진 (강성범유도멀티짐오산점)	유지나 (JNS유도멀티짐)	이하영 (BROS유도관)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2025 국가대표 2차 선발전)

2025.3.10.~14. / 충남, 보령종합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남자초등부			
-36kg 이의리 (송남초등학교)	나윤재 (소룡초등학교)	배서준 (사북초등학교)	김현성 (인천삼산초등학교)
-42kg 정수현 (사북초등학교)	김지웅 (규암초등학교)	황도윤 (용화초등학교)	강민찬 (도봉초등학교)
-48kg 최우현 (서울송중초등학교)	이하준 (덕계초등학교)	민사준 (YK유도클럽)	이승혁 (부천초등학교)
-54kg 김지후 (해산유도클럽)	정웅 (용화초등학교)	박도윤 (사북초등학교)	김진우 (한림유도관)
-60kg 이준수 (사북초등학교)	유주원 (서울용암초등학교)	이강민 (복성초등학교)	김유건 (영동초등학교)
-66kg 최민우 (대전천동초등학교)	조우현 (인천신복초등학교)	최민성 (복성초등학교)	권우혁 (신정초등학교)
+66kg 최승우 (양주고을유도체육관)	원동휘 (송백유도관)	조우현 (JudoPie이경근유도관)	노주형 (서천초등학교)
여자초등부			
-32kg 허사랑 (인천서흥초등학교)	이다인 (동주초등학교)	박소윤 (서천초등학교)	손현지 (전주인후초등학교)
-36kg 문서아 (서울송중초등학교)	배수현 (철원초등학교)	김노을 (철원초등학교)	김하영 (서울용암초등학교)
-40kg 강예민 (한라유도클럽)	정아은 (강혜천초등학교)	백사진 (서울송중초등학교)	최유아 (재미유도멀티짐)
-44kg 강서은 (동남초등학교)	박지유 (사북초등학교)	이하울 (철원초등학교)	조수빈 (서울용암초등학교)
-48kg 오유림 (영덕초등학교)	권도연 (광주점스파고클럽)	유하울 (인천시흥초등학교)	이보윤 (무국초등학교)
-52kg 조현아 (솔밭초등학교)	정아름 (동주초등학교)	정운서 (소룡초등학교)	김예나 (동남초등학교)
+52kg 정예은 (도전초등학교)	김기은 (철원초등학교)	전예승 (영동아수초등학교)	김소유 (서울송중초등학교)
남자중학부			
-45kg 박익겸 (신현중학교)	황유재 (경민중학교)	전지원 (부평서중학교)	이준 (부평서중학교)
-48kg 박익겸 (신현중학교)	김주원 (도개중학교)	김선호 (관산중학교)	양철훈 (제주제일중학교)
-51kg 이현 (부평서중학교)	김현준 (보성중학교)	여도현 (인천경남중학교)	최우주 (물금중앙중학교)
-55kg 노윤 (청라중학교)	김수겸 (보성중학교)	이준혁 (해동중학교)	이기혁 (온양중학교)
-60kg 박현우 (경민중학교)	유주현 (신현중학교)	김민준 (신현중학교)	박준혁 (금호중학교)
-66kg 정의성 (신현중학교)	문준서 (보성중학교)	김종재 (대전대성중학교)	천도현 (대전대성중학교)
-73kg 박지호 (보성중학교)	정은성 (광주체육중학교)	전현우 (과천중학교)	연제민 (온양중학교)
-81kg 최이석 (무국중학교)	이하울 (보성중학교)	양준호 (제주아라중학교)	양태민 (보성중학교)
-90kg 문준서 (과천중학교)	김재후 (보성중학교)	윤지웅 (온양중학교)	이원준 (옥천중학교)
+90kg 이은성 (제주서중학교)	노진규 (연성중학교)	김예찬 (영평JCG-스포츠클럽)	최성윤 (보성중학교)
여자중학부			
-42kg 강민하 (영암중학교)	류예나 (서울체육중학교)	손민서 (옥천여자중학교)	김슬아 (사북중학교)
-45kg 박기은 (영암중학교)	조은설 (사북중학교)	양아름 (해월중학교)	김수린 (후평중학교)
-48kg 안혜원 (영암중학교)	이보은 (신현여자중학교)	손채민 (철원여자중학교)	정아연 (서울체육중학교)
-52kg 김예민 (신현여자중학교)	박선정 (광주체육중학교)	권세현 (서울체육중학교)	이미경 (영암중학교)
-57kg 백서영 (영암중학교)	이지나 (서울체육중학교)	김안수 (신창여자중학교)	김태원 (경기체육중학교)
-63kg 권우주 (물라이유도센터)	전지현 (신현여자중학교)	배하윤 (문문중학교)	백규진 (용운중학교)
-70kg 이서현 (물라이유도센터)	정아인 (도개중학교)	고유진 (도개중학교)	선예스디 (전북정무스포츠클럽)
+70kg 이서하 (용운중학교)	임수경 (금곡중학교)	한서진 (세이코즈유도관)	김민정 (용인대원유도센터)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초등부	사북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서천초등학교A	탑동초등학교
여자초등부	동남초등학교	철원초등학교	신철원초등학교	시전초등학교
남자중학부	보성중학교	경민중학교	성남중학교	송도중학교
여자중학부	선린중학교	남해여자중학교	경민여자중학교	금곡중학교
남자고등부	경민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여자고등부	광영여자고등학교	인천체육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철원여자고등학교
남자대학부	용인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여자대학부	한국체육대학교			
남자일반부	한국마사회	양평군청	국군체육부대	포항시청
여자일반부	고창군청	부산북구청	충북도청	동해시청

2025 KATA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순위	1위		2위		3위	
구분	잡기	발기	잡기	발기	잡기	발기
메치기본	박준영	정지훈	정은호	김태준	안성철	윤건우
	에이스유도체육관		영통유도체육관		부산경호고등학교	
굳히기본		김동휘	김준현	조강해	우현욱	배서준
		영통유도체육관	명근유도관		이승원유도관	
부드러운본	김민국	김다연	유로민	유로아	유이린	권우빈
	이승원유도관		트리니티유도		영통유도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남자고등부			
-55kg 조연우 (경민고등학교)	윤호영 (목포고등학교)	최재진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이형주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60kg 김동준 (경민고등학교)	김상엽 (보성고등학교)	성건호 (경민고등학교)	임정현 (경민고등학교)
-66kg 소울 (서울체육고등학교)	이준우 (보성고등학교)	김승기 (경민고등학교)	이현성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73kg 홍승윤 (남녕고등학교)	최성준 (경민고등학교)	고은찬 (보성고등학교)	전민성 (신원고등학교)
-81kg 심재은 (주산산업고등학교)	장근영 (보성고등학교)	김상규 (보성고등학교)	오수중 (충북체육고등학교)
-90kg 방병규 (보성고등학교)	차민호 (송도고등학교)	최현우 (해동고등학교)	나석원 (보성고등학교)
-100kg 정태욱 (우석고등학교)	김재민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정지환 (남녕고등학교)	김경민 (송도고등학교)
+100kg 김지용 (광원광명고등학교)	김도훈 (인천체육고등학교)	고경도 (비봉고등학교)	이윤재 (춘천시유도회관)
여자고등부			
-45kg 유예지 (철원여자고등학교)	조은서 (도개고등학교)		
-48kg 강여원 (남녕고등학교)	주수림 (경기체육고등학교)	손예원 (서울체육고등학교)	임연 (남녕고등학교)
-52kg 신유미 (광영여자고등학교)	이소윤 (도개고등학교)	지수현 (서울체육고등학교)	공다인 (광주체육고등학교)
-57kg 홍규리 (남녕고등학교)	문지현 (남녕고등학교)	송가민 (서울체육고등학교)	김비주 (금곡고등학교)
-63kg 홍다인 (인천체육고등학교)	최연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수연 (광영여자고등학교)	정다은 (경기체육고등학교)
-70kg 신주은 (광영여자고등학교)	강재형 (충남체육고등학교)	최소윤 (청양유도관경산배영점)	김지현 (경기체육고등학교)
-78kg 이채민 (인천체육고등학교)	김고는 (남녕고등학교)	한예주 (철원여자고등학교)	허가은 (대구체육고등학교)
+78kg 이승진 (도개고등학교)	김하은 (광주체육고등학교)	최하은 (삼천고등학교)	강규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남자부 (국가대표 2차 선발전)			
-60kg 최민혁 (대구광역시청)	이하림 (국군체육부대)	이은강 (한국체육대학교)	김진석 (KORAIL코레일)
-66kg 안바울 (남양주시청)	김찬성 (하이원유도)	윤현수 (한국체육대학교)	전도원 (영원대학교)
-73kg 안재홍 (한국마사회)	박희원 (영인시청)	이은결 (부안군청)	최민서 (국체육부대)
-81kg 이준환 (포항시청)	유도빈 (용인대학교)	이승찬 (용인대학교)	박성현 (용인대학교)
-90kg 김종훈 (영평군청)	송민기 (용인시청)	김유철 (국체육부대)	홍석웅 (용인시청)
-100kg 김세현 (한국마사회)	원종훈 (철원군청)	오가와유휘 (재일고교)	정범석 (한국마사회)
+100kg 김민중 (영평군청)	이승엽 (영평군청)	김이현 (KORAIL코레일)	윤재구 (포항시청)
여자부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8kg 이경하 (제주특별자치도청)	이세영 (대구광역시청)	박은이 (고창군청)	유주희 (충북도청)
-52kg 정세윤 (K+그룹유도관)	김민정 (경기대학교)	김지연 (동해시청)	황수현 (광주교통공사)
-57kg 김주희 (충북도청)	정예민 (인천광역시청)	남유리 (용인대학교)	김현아 (고창군청)
-63kg 신채원 (순천시청)	허슬미 (한산시청)	한서영 (용인대학교)	이주연 (광주교통공사)
-70kg 김혜미 (광주교통공사)	이예랑 (한국체육대학교)	유현지 (충북도청)	양지영 (동해시청)
-78kg 김민주 (광주교통공사)	김주은 (동해시청)	이정윤 (고창군청)	이고는 (부산북구청)
+78kg 이현지 (남녕고등학교)	김하윤 (한산시청)	이혜빈 (용인대학교)	김수민 (경남도청)

제53회 춘계전국초중고등학교유도연맹전

2025.3.27.~4.1. / 전남, 목포실내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남자초등부			
-36kg	배서준 (사북초등학교)	김태민 (김광명유도관)	정우준 (동남초등학교) 객준우 (미포초등학교)
-42kg	정수현 (사북초등학교)	오재우 (신암초등학교)	최민준 (영광배회자청년스포츠클럽) 이윤우 (남양주금곡초등학교)
-48kg	홍상운 (동남초등학교)	이현기 (사북초등학교)	김태민 (오정초등학교) 임시우 (동남초등학교)
-54kg	박도운 (사북초등학교)	백영민 (남양주금곡초등학교)	박해송 (익산스포츠클럽) 이가를 (미포초등학교)
-60kg	이강민 (북상초등학교)	최효준 (사북초등학교)	김유건 (영동초등학교) 김도윤 (GP유도엘티집스하)
-66kg	김민진 (안철영유도관)	임태민 (영광배회자청년스포츠클럽) 최민성 (북상초등학교)	
+66kg	박재현 (도천초등학교)	이지훈 (서귀포유도관)	조우현 (judopia이경근유도관) 송영태 (병성포초등학교)
여자초등부			
-32kg	이시안 (예산유도클럽)	이나은 (안철영유도관)	엄유정 (내성초등학교) 박서유 (영양유도관)
-36kg	백서진 (서울송중초등학교)	정혜람 (순천신흥초등학교)	김채아 (천명유도관화명점) 이세현 (judopia이경근유도관)
-42kg	박별하 (마이늘도열린힘보려)	윤은서 (영등아수초등학교)	김민제 (순천신흥초등학교)
-48kg	권도연 (광주거점스포츠클럽)	정호민 (동남초등학교)	정아람 (영양유도관) 조민정 (남양주금곡초등학교)
-57kg	김수민 (광주거점스포츠클럽)	전예승 (영등아수초등학교)	오테민 (서귀포유도관) 정서유 (영양유도관)
+57kg	정예은 (도천초등학교)	문늘해랑 (병성포초등학교)	김채현 (광양마동초등학교) 채서희 (미포초등학교)
남자중학부			
-45kg	박익겸 (신현중학교)	전지원 (부평서중학교)	이준 (부평서중학교) 김동하 (아음중학교)
-48kg	김보민 (진량중학교)	김병준 (개성중학교)	김선호 (관산중학교) 정원준 (삼성중학교)
-51kg	조부건 (사북중학교)	여도현 (연신김대중학교)	박은찬 (순천신흥중학교) 송재웅 (대전대성중학교)
-55kg	안시우 (대전대성중학교)	정해성 (개성중학교)	박원탁 (광주체육중학교) 문도하 (과천중학교)
-60kg	강지원 (매월중학교)	김민준 (신현중학교)	최호준 (GP유도엘티집스하) 양도우 (삼성중학교)
-66kg	문준서 (보성중학교)	정의성 (신현중학교)	김서준 (보성중학교) 황서후 (신현중학교)
-73kg	천도현 (대전대성중학교)	정은성 (광주체육중학교)	이동후 (안락중학교) 방성혁 (보성중학교)
-81kg	양태민 (보성중학교)	김시은 (청양중학교)	이하을 (보성중학교) 김준영 (물금중앙중학교)
-90kg	문준서 (과천중학교)	김재후 (보성중학교)	이도운 (안락중학교) 임동화 (광주체육중학교)
+90kg	김한별 (삼성중학교)	박태하 (아음중학교)	김지우 (대전대성중학교) 황태산 (광주문신중학교)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초등부	사북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	미포초등학교 의정부사체육회 지역기반 스포츠클럽
여자초등부	함양유도관	순천신흥초등학교	미포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
남자중학부	보성중학교	송도중학교	광주체육중학교 매월중학교
여자중학부	광주체육중학교	임석중학교	안락중학교 신현여자중학교
남자고등부	보성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광주체육고등학교 경남체육고등학교
여자고등부	경기체육고등학교	도개고등학교	인천체육고등학교 대구체육고등학교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2025.4.4.~5. / 대구광역시

체급	1위	2위	3위
남자고등부			
-55kg	강병민 (경남체육고등학교)	전민규 (서울체육고등학교)	손동억 (충북체육고등학교) 김의진 (부산체육고등학교)
-60kg	박철용 (서울체육고등학교)	김채현 (인천체육고등학교)	박지율 (광주체육고등학교) 홍권 (울산스포츠클고등학교)
-66kg	이재준 (남녕고등학교)	전진솔 (인천체육고등학교)	노윤호 (부산체육고등학교) 윤재원 (대전체육고등학교)
-73kg	홍승운 (남녕고등학교)	조호영 (경기체육고등학교)	김은창 (대전체육고등학교) 임종현 (충북체육고등학교)
-81kg	박상진 (인천체육고등학교)	고명성 (서울체육고등학교)	박정진 (광주체육고등학교) 유현 (대전체육고등학교)
-90kg	이승현 (남녕고등학교)	임태경 (대전체육고등학교)	강민성 (경기체육고등학교) 진재현 (광주체육고등학교)
-100kg	박원희 (경남체육고등학교)	김태준 (충북체육고등학교)	김동영 (울산스포츠클고등학교) 신민성 (광주체육고등학교)
+100kg	김건택 (경남체육고등학교)	허를하 (대전체육고등학교)	지경민 (울산스포츠클고등학교) 이진혁 (남녕고등학교)
무제한	신민성 (광주체육고등학교)	김건택 (경남체육고등학교)	이인용 (충남체육고등학교) 고명성 (서울체육고등학교)

체급	1위	2위	3위
여자고등부			
-48kg	강여원 (남녕고등학교)	주수림 (경기체육고등학교)	김혜민 (인천체육고등학교) 오채원 (대구체육고등학교)
-52kg	이시은 (경기체육고등학교)	서정안 (경남체육고등학교)	오채경 (대구체육고등학교) 최보영 (경북체육고등학교)
-57kg	이창아 (충북체육고등학교)	홍규리 (남녕고등학교)	조효진 (광주체육고등학교) 이유민 (경기체육고등학교)
-63kg	피지우 (서울체육고등학교)	문지현 (남녕고등학교)	홍다인 (인천체육고등학교) 최원우 (경기체육고등학교)
-70kg	하우정 (경남체육고등학교)	이재경 (서울체육고등학교)	강재형 (충남체육고등학교) 전나리 (인천체육고등학교)
-78kg	김고은 (남녕고등학교)	장혜운 (경기체육고등학교)	박마리 (경남체육고등학교) 이재민 (인천체육고등학교)
+78kg	우재진 (부산체육고등학교)	차은서 (인천체육고등학교)	최보민 (경기체육고등학교) 김지은 (남녕고등학교)
무제한	김고은 (남녕고등학교)	이재경 (서울체육고등학교)	우재진 (부산체육고등학교) 최보민 (경기체육고등학교)
무제한	양지연 (광양여자고등학교)	이승진 (도개고등학교)	차은서 (인천체육고등학교) 김고은 (남녕고등학교)

2025 용인대학교총장기전국남·여 중·고등학교유도대회

2025.4.14.~17. /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

체급	1위	2위	3위
남자중학부			
-45kg	이준 (부평서중학교)	윤준혁 (보성중학교)	안우영 (한리유도클럽) 이하민 (금호중학교)
-48kg	이산 (해동중학교)	황유재 (경민중학교)	김도원 (원당중학교) 김주원 (도개중학교)
-51kg	이현 (부평서중학교)	최연성 (청리중학교)	이서준 (경민중학교) 김보민 (진량중학교)
-55kg	노은 (청리중학교)	지현우 (대전대성중학교)	김유찬 (부평서중학교) 정준모 (전북중학교)
-60kg	이동재 (서울체육중학교)	이규연 (보성중학교)	유주현 (신현중학교) 정도현 (원당중학교)
-66kg	정의성 (신현중학교)	이광현 (삼성중학교)	김서준 (보성중학교) 이현준 (경민중학교)
-73kg	박지호 (보성중학교)	차호빈 (관산중학교)	김세은 (송도중학교) 천도현 (대전대성중학교)
-81kg	양태민 (보성중학교)	이은혁 (울산스포츠클고등학교)	김시은 (청양중학교) 김건우 (대전중학교)
-90kg	문준서 (과천중학교)	이도운 (안락중학교)	김재후 (보성중학교) 이원준 (옥천중학교)
+90kg	김영주 (대성중학교)	김한별 (삼성중학교)	박지훈 (부평서중학교) 김예진 (영광G-스포츠클럽)
여자중학부			
-42kg	손민서 (옥천여자중학교)	최소을 (용문중학교)	강민하 (중앙중학교) 황하을 (신현여자중학교)
-45kg	조은설 (사북중학교)	양아름 (매월중학교)	윤주원 (원당중학교) 박가은 (원당중학교)
-48kg	안혜원 (용문중학교)	이보은 (신현여자중학교)	정아연 (서울체육중학교) 장효민 (신현여자중학교)
-52kg	권세현 (서울체육중학교)	조서희 (서울체육중학교)	김보림 (경민여자중학교) 이미경 (중앙중학교)
-57kg	김소연 (울산스포츠클고등학교)	이채은 (청리중학교)	김안수 (신양여자중학교) 김민경 (순천신흥중학교)
-63kg	곽유주 (물라이유도센터)	김시연 (도개중학교)	손혜원 (아시아스포츠클) 박시현 (경민여자중학교)
-70kg	이서현 (물라이유도센터)	김재희 (서해도관본관)	정아민 (도개중학교) 이현아 (연성중학교)
+70kg	심지민 (연우여자중학교)	이서하 (용문중학교)	장문서 (고령한국유도관) 김효은 (제주시중학교)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중학부	보성중학교	금호중학교	송도중학교
여자중학부	서울체육중학교	선린중학교	경민여자중학교
남자고등부	경민고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여자고등부	인천체육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경남체육고등학교

KATA(본)

순위	1위	2위	3위
구분	잡기	발기	잡기 발기
부드러운본	김민국	김다연	우료민 우료아
	이승원유도관	트리니티유도	유리인 권우빈
			영통유도체육관
굳이기본	조강해	우현욱	김동휘 김준현
	영근유도관	영통유도체육관	김현빛 김수진
			선인유도관

2025 춘계전국남·여대학유도연맹전대회

2025.4.28.~30. / 경남, 사천시 삼천포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남자대학부			
-60kg	오상우 (영인대학교)	이준욱 (경남대학교)	임진현 (국민대학교) 한재민 (영남대학교)
-66kg	두민재 (영인대학교)	이현빈 (인하대학교)	이은률 (국민대학교) 이형웅 (영인대학교)
-73kg	김민규 (영인대학교)	김용민 (영인대학교)	김아진 (한국체육대학교) 이우진 (세한대학교)
-81kg	박준현 (영인대학교)	이승찬 (영인대학교)	박민수 (영인대학교) 조찬휘 (영남대학교)
-90kg	김대영 (영인대학교)	한성우 (국민대학교)	도현진 (경기대학교) 윤석일 (동원대학교)
-100kg	임성민 (영인대학교)	박상훈 (경기대학교)	임강호 (한국체육대학교) 최승빈 (위산대학교)
+100kg	김민준 (영인대학교)	강재훈 (경기대학교)	장민석 (영인대학교) 백두산 (한국체육대학교)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대학부	경기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동익대학교
여자대학부	한국체육대학교	경기대학교	미산대학교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25.5.24.~25. / 경남, 합천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남자초등부			
-35kg	이의리 (송남초등학교)	정유준 (동남초등학교)	나윤재 (소통초등학교) 배서준 (사북초등학교)
-43kg	정수현 (사북초등학교)	조은은 (서울송중초등학교)	이하림 (인천삼산초등학교) 차연우 (용화초등학교)
-53kg	정웅 (용화초등학교)	이진우 (동주초등학교)	박해송 (익산스포츠클럽) 백지우 (매이유도엘티집)
-65kg	김기은 (영천초등학교)	최민우 (대전천동초등학교)	송시현 (탐곡로우유도엘티집) 이준수 (사북초등학교)
+65kg	최승우 (영주고염유도체육관)	이승재 (한솔초등학교)	박재현 (도천초등학교) 김세민 (영화초등학교)
여자초등부			
-36kg	서예원 (부여초등학교)	안소정 (충천유도스포츠클럽)	이윤아 (남녕초등학교) 최유아 (매이유도엘티집)
-48kg	오유림 (영덕초등학교)	권도연 (광주거점스포츠클럽)	윤경화 (신철원초등학교) 최수지 (고령초등학교)
-57kg	이보은 (김해화천초등학교)	김현수 (연천서초초등학교)	이예은 (대전천동초등학교) MUNKHBAT EMUJIN (고령초등학교)
+57kg	김기은 (철원초등학교)	김소유 (서울송중초등학교)	문늘해랑 (병성포초등학교) 김세이 (병향초등학교)

체급	1위	2위	3위
남자중학부			
-52kg	이현 (부평서중학교)	지현우 (대전대성중학교)	조부건 (사북중학교) 성승민 (부산체육중학교)
-58kg	이규연 (보성중학교)	박현우 (경민중학교)	박원탁 (광주체육중학교) 안시우 (대전대성중학교)
-66kg	이현준 (경민중학교)	정의성 (신현중학교)	김지원 (매월중학교) 김홍재 (대전대성중학교)
-73kg	박지호 (보성중학교)	김세은 (송도중학교)	박시준 (개성중학교) 천도현 (대전대성중학교)
-81kg	양태민 (보성중학교)	김준영 (물금중앙중학교)	이은혁 (울산스포츠클고등학교) 정도준 (온양중학교)
-90kg	문준서 (과천중학교)	이도운 (안락중학교)	이도경 (원광중학교) 정원희 (광주체육중학교)
+90kg	노진규 (연성중학교)	김예진 (영광G-스포츠클럽)	김재원 (홍천유도스포츠클럽) 최승은 (보성중학교)
여자중학부			
-42kg	최소을 (용문중학교)	김태희 (밀산중학교)	강민하 (중앙중학교) 서미나 (온양영화중학교)
-47kg	안혜원 (용원중학교)	박가은 (매월중학교)	양아름 (매월중학교) 박승희 (광주체육중학교)
-52kg	권세현 (서울체육중학교)	김예민 (신현여자중학교)	윤수미 (청주영양중학교) 구예림 (삼성중학교)
-57kg	이채은 (청리중학교)	김소은 (울산스포츠클고등학교)	김안수 (신양여자중학교) 백서진 (용원중학교)
-63kg	김다혜 (통영중앙중학교)	정현정 (선린중학교)	배하운 (용문중학교) 전지현 (신현여자중학교)
-70kg	김나은 (대전리중학교)	정아민 (도개중학교)	강민서 (삼해여자중학교) 이서현 (물라이유도센터)
+70kg	심지민 (연우여자중학교)	이서하 (용문중학교)	정예림 (안민중학교) 문다희 (귀일중학교)

제29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2025.5.29.~30. / 경북, 상주시실내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남자부			
-60kg	윤주승 (용인대학교)	김한준 (경대학교)	조연우 (경민고등학교)
-66kg	이준현 (용인대학교)	이재준 (남경고등학교)	오합찬 (안해대학교)
-73kg	김용민 (용인대학교)	윤승빈 (용인대학교)	엄윤상 (용인대학교)
-81kg	유도빈 (용인대학교)	김홍서 (영남대학교)	김상규 (보성고등학교)
-90kg	최재민 (용인대학교)	차민호 (송고등학교)	신호용 (용인대학교)
-100kg	김경민 (송고등학교)	박지민 (영남대학교)	박근호 (경남체육고등학교)
+100kg	김민준 (용인대학교)	이지만 (용인대학교)	강재홍 (경대학교)

2025 세계KATA선수권대회 파견 대표 선발전

순위	1위	2위	3위
구분	잡기	발기	잡기
강도관호신술	안정민	최영조	김상준
	에이스유도체육관	명근유도관	오산대학교
부드러운본	우료민	우료아	김민국
	트리니티유도	이승원유도관	김다연
	김은혁	임재린	김은혁
굴기기본	조강해	우현욱	명근유도관
	명근유도관		

2025 명실상주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2025.5.31.~6.1. / 경북, 상주시실내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유 치 부			
-25kg	양예준 (코리아팀유도월드팀)	김루아 (팀클래스유도체육관)	허이준 (미래유도관)
+25kg	남유현 (코리아팀(해운대))	손예성 (안철용유도관)	이준서 (대구성서유도관)
남자중학부			
-48kg	이동하 (울림백유도관권자전)	이동하 (울림백유도관권자전)	조성현 (국가대표유도클럽)
-52kg	김태윤 (대전현성유도관)	박강건 (영상유도관)	이상후 (병천유도관)
-58kg	홍예성 (분당유도관)	최명진 (부국강사부유도관)	윤민우 (엘리트유도월드팀)
-66kg	민세현 (Judopia이경근유도관)	김민준 (이태나유도월드팀)	정도현 (리더유도팀)
-73kg	조필모 (용호유도아카데미)	왕지원 (안산유도체육관)	전시윤 (구현유도관)
-81kg	김지현 (청춘유도관연결팀)	박승찬 (교성유도관)	허시유 (영인대평택유도체육관)
-90kg	박재민 (청춘유도체육아카데미)	신승우 (영인대평택유도체육관)	유동현 (천현유도스쿨)
+90kg	정유준 (Judopia이경근유도관)	차정우 (용인대투혼아주팀)	김미리 (영인대안양유도관)
여자중학부			
-42kg	안서연 (영수유도관)	천서은 (한국유도관경남)	박나윤 (천영유도관)
-47kg	김시연 (반석유도관)	이나윤 (부산유상유도관)	문사랑 (대전현성유도관)
-52kg	이하연 (리더유도팀)	문하윤 (부산유상유도관)	최은빈 (남강유도관)
-57kg	유소현 (Judopia이경근유도관)	박가빈 (백중훈유도스쿨)	남아울 (영인대경의유도관)
-63kg	김민지 (아사아스포팀)	박지율 (선린유도관)	윤진경 (대전현성유도관)
-70kg	김여진 (영인대평택유도팀)	고다연 (부국강사부유도관)	권수현 (아사아스포팀)
+70kg	김누림 (미스타스킴민수유도)	김서희 (백중훈유도스쿨)	박현영 (청춘유도관구미팀)
남자고등부			
-55kg	김관우 (파이널유도월드팀본팀)	성연준 (용인대평택유도관)	하민수 (세종유도관이름팀)
-60kg	임현성 (선린유도관)	조한준 (용인대국가대표유도관)	이광한 (대화유도체육관)
-66kg	이윤도 (세종유도관이름팀)	최무건 (용인대투혼아주팀)	서진원 (반석유도관KATA)
-73kg	유건화 (청담유도관)	이주현 (영인대평택유도관)	최수안 (미래유도관)
-81kg	서혁진 (JNS유도체육관명백)	심지원 (청춘유도관)	김성주 (부산유상유도관)
-90kg	유경민 (용인대투혼아주팀)	이민욱 (대전유도관)	김성준 (부산유상유도관)
-100kg	김해성 (선분유도관)	김규택 (백중유도클럽충주)	조현민 (천현유도스쿨)
+100kg	최민준 (부산유인대유도체육관)	김재윤 (미스타스킴유도월드팀)	이민준 (울진대평택유도관연결팀)
여자고등부			
-48kg	김나경 (Judopia이경근유도관)	장유주 (BROS유도관)	김이현 (용인대청원유도팀)
-52kg	김진희 (JNS유도체육관오산)	김하은 (세종유도관이름팀)	김민서 (제일유도관)
-57kg	강호윤 (우석유도체육관)	김수진 (선린유도관KATA)	최민서 (문스타유도팀)
-63kg	이지안 (코리아팀(해운대))	이재령 (영동유도체육관KATA)	박효원 (대구성서유도관)
-70kg	임지현 (JNS유도체육관오산)	이지은 (파이널유도월드팀본팀)	이가빈 (무덕유도관)
-78kg	서지원 (병천유도관)	서예주 (청춘유도관속초팀)	이윤서 (문성유도관)
+78kg	공나연 (코리아팀(해운대))	강민지 (공영유도관관산)	권민서 (용인대서영유도클럽)
청년부			
-60kg	김영민 (부산경상대학교)	원태희 (히트유도관)	이주안 (세이브유도월드팀)
-66kg	홍석현 (선민대학교)	이동호 (송탄유도관)	박무궁 (현영유도관)
-73kg		이경민 (히트유도관)	조승준 (문흥중학교체육관)
-81kg	홍솔민 (청담유도관)	차대성 (현영유도관대구)	정민우 (영정부유도관)
-90kg	원지우 (용인대서영유도체육관)	강신철 (안산유도체육관)	권태영 (용인대청원유도관)
-100kg	김형석 (명백팀)	김택진 (한국체대 대전유도관)	박건영 (용인대 O유도체육관)
+100kg	정백산 (용인대경의유도관)	김도휘 (청춘유도관다사팀)	오세훈 (국가대표유도클럽)

체급	1위	2위	3위
여자부			
-48kg	정수진 (용인대학교)	김예은 (경기체육고등학교)	김혜민 (인천체육고등학교)
-52kg	백지호 (주산산업고등학교)	박예지 (경남체육고등학교)	오채경 (대구체육고등학교)
-57kg	손채영 (한국체육대학교)	김민지 (남녕고등학교)	조효진 (공주체육고등학교)
-63kg	배희진 (한국체육대학교)	양지연 (남녕고등학교)	홍다인 (인천체육고등학교)
-70kg	모수민 (한국체육대학교)	송다영 (서울체육고등학교)	강재형 (경남체육고등학교)
-78kg	이승주 (도계고등학교)	이혜빈 (서울체육고등학교)	우채진 (부산체육고등학교)
+78kg	김민영 (한국체육대학교)	정선아 (도계고등학교)	차은서 (인천체육고등학교)

순위	1위	2위	3위
구분	잡기	발기	잡기
매치기본	박준영	정지훈	안성철
	에이스유도체육관	부산경호고등학교	영통유도체육관
호신기본	박지연	김기현	박종철
	이승원유도관	에이스유도체육관	영통유도체육관
되치기본	함승원	최태원	이한결
	이승원유도관	광양유도관	이승원유도관

2025.5.29.~30.

순위	1위	2위	3위
구분	잡기	발기	잡기
매치기본	박준영	정지훈	안성철
	에이스유도체육관	부산경호고등학교	영통유도체육관
호신기본	박지연	김기현	박종철
	이승원유도관	에이스유도체육관	영통유도체육관
되치기본	함승원	최태원	이한결
	이승원유도관	광양유도관	이승원유도관

제96회 YMCA 전국유도대회 2025.6.16.~18. / 강원, 양구문화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남자고등부			
-60kg	조연우 (경민고등학교)	이창학 (신철원고등학교)	이유찬 (도계고등학교)
-66kg	김승기 (경민고등학교)	박태성 (대전체육고등학교)	김민우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73kg	전민성 (신철원고등학교)	홍승운 (남녕고등학교)	백재민 (우석고등학교)
-81kg	심재윤 (주산산업고등학교)	정재민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김동욱 (보성고등학교)
-90kg	이범용 (경남체육고등학교)	전민석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최현우 (해동고등학교)
-100kg	김경민 (송고등학교)	신민성 (경주체육고등학교)	배하진 (진영고등학교)
+100kg	김영욱 (주산산업고등학교)	김성훈 (개성고등학교)	차봉 (보성고등학교)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고등부	송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충북체육고등학교
여자고등부	광영여자고등학교	경기체육고등학교	경남체육고등학교

체급	1위	2위	3위
여자고등부			
-48kg	주수림 (경기체육고등학교)	유하늘 (영서고등학교)	장인혜 (경기체육고등학교)
-52kg	백지호 (주산산업고등학교)	이소윤 (도계고등학교)	서정안 (경남체육고등학교)
-57kg	이은지 (금곡고등학교)	송가인 (서울체육고등학교)	조효진 (공주체육고등학교)
-63kg	양지연 (광영여자고등학교)	피지우 (서울체육고등학교)	김은서 (경민고등학교)
-70kg	장혜윤 (경기체육고등학교)	신주은 (광영여자고등학교)	강채송 (도계고등학교)
-78kg	이채민 (인천체육고등학교)	한예주 (철원여자고등학교)	허기은 (대구체육고등학교)
+78kg	이승진 (도계고등학교)	정다정 (도계고등학교)	차은서 (인천체육고등학교)

제4회 양평몽양컵 전국유도대회 2025.6.23.~26. / 경기, 양평물맑은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남자고등부			
-55kg	윤호영 (목포고등학교)	이하늘 (충청고등학교)	조승우 (경민고등학교)
-60kg	조연우 (경민고등학교)	강윤서 (대성고등학교)	김상엽 (보성고등학교)
-66kg	김승기 (경민고등학교)	소율 (서울체육고등학교)	최철진 (대전체육고등학교)
-73kg	전민성 (신철원고등학교)	김태후 (보성고등학교)	김승준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81kg	전민성 (신철원고등학교)	김동건 (경민고등학교)	김두영 (영성고등학교)
-90kg	정민국 (경민고등학교)	전민국 (신철원고등학교)	김진성 (보성고등학교)
-100kg	차서을 (경민고등학교)	장태욱 (우석고등학교)	차동우 (경민고등학교)
+100kg	차봉 (보성고등학교)	김상민 (대성고등학교)	전지훈 (양평G·스포츠클럽)
여자고등부			
-48kg	주수림 (경기체육고등학교)	장인혜 (경기체육고등학교)	손예원 (서울체육고등학교)
-52kg	백지호 (주산산업고등학교)	박수현 (국공고등학교)	황서연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57kg	송가인 (서울체육고등학교)	이재경 (서울체육고등학교)	우주혜 (서울체육고등학교)
-63kg	피지우 (서울체육고등학교)	최연우 (경기체육고등학교)	서시은 (경기체육고등학교)
-70kg	장혜윤 (경기체육고등학교)	김호담 (서울체육고등학교)	강주은 (광영여자고등학교)
-78kg	한예주 (철원여자고등학교)	이수빈 (진영고등학교)	차민영 (경민고등학교)
+78kg	최보민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재영 (전북익공지능고등학교)	양서정 (광영여자고등학교)
남자대학부			
-60kg	윤정환 (용인대학교)	임진현 (국민대학교)	정기영 (용인대학교)
-66kg	이도현 (용인대학교)	안현우 (한국체육대학교)	최윤석 (동원대학교)
-73kg	김민규 (용인대학교)	우정영 (한국체육대학교)	김도건 (국민대학교)
-81kg	박준현 (용인대학교)	이다은 (동원대학교)	송동현 (한국체육대학교)
-90kg	김윤영 (한국체육대학교)	김대영 (용인대학교)	이재영 (용인대학교)
-100kg	박세민 (용인대학교)	차민혁 (용인대학교)	박상훈 (경기대학교)
+100kg	이동현 (용인대학교)	장민성 (용인대학교)	송진희 (용인대학교)

체급	1위	2위	3위
여자대학부			
-48kg	김민주 (용인대학교)	김근영 (용인대학교)	
-52kg	김성경 (용인대학교)	최은설 (용인대학교)	양지현 (용인대학교)
-57kg	손채영 (한국체육대학교)	박나연 (한국체육대학교)	진솔비 (경대학교)
-63kg	배희진 (한국체육대학교)	김예지 (한국체육대학교)	차아리 (용인대학교)
-70kg	송다영 (한국체육대학교)	이지희 (경기대학교)	김민주 (용인대학교)
-78kg	김지영 (한국체육대학교)	박선영 (용인대학교)	고가영 (한국체육대학교)
+78kg	정선아 (매산대학교)	김민영 (한국체육대학교)	김하영 (매산대학교)
남자일반부			
-60kg	최정웅 (평택고청)	전승우 (인천광역시청)	김화수 (한국마사회)
-66kg	류승환 (KORAIL(코레일))	심재민 (여수시청)	김용신 (포항시청)
-73kg	이은결 (부산고청)	홍문호 (용인시청)	김용환 (부산광역시청)
-81kg	박희원 (용인시청)	김휘건 (하이원유도)	이재목 (대구광역시청)
-90kg	김재민 (한국마사회)	홍승연 (인천광역시청)	김우곤 (한국마사회)
-100kg	한경진 (평택고청)	이홍규 (KORAIL(코레일))	명범석 (부산광역시청)
+100kg	박건우 (남양주시청)	김현태 (부산광역시청)	황민호 (용인시청)
여자일반부			
-48kg	박은이 (교정고청)	한수연 (포항시청)	라희원 (교정고청)
-52kg	홍태령 (포항시청)	오연주 (성동구청)	장예진 (포항시청)
-57kg	이도현 (성동구청)	정보경 (대구광역시청)	이재란 (교정고청)
-63kg	허슬비 (연천시청)	채정아 (포항시청)	김현아 (교정고청)
-70kg	최침지 (안산시청)	송승민 (울산광역시체육회)	정혜민 (휴태유도)
-78kg	김아현 (교정고청)	이정윤 (교정고청)	채윤지 (안산시청)
+78kg	장유경 (충북도청)	손정연 (포항시청)	

6단	45647	이 환 건	152522	이 시 온	152576	양 지 우	152630	윤 종 찬	152684	최 경 준	152738	황 지 윤	152792	윤 준 희	152846	이 유 비	152900	주 해 성	152954	이 운 순	153008	임 지 호	153062	황 현 지	153116	장 설 아		
	13249	이 상 만	45648	양 준 형	152523	최 은 호	152577	배 민 경	152631	심 지 현	152685	김 태 희	152739	이 정 연	152793	윤 다 영	152847	이 지 연	152901	김 동 현	152955	윤 예 원	153009	박 찬 우	153063	이 다 은	153117	문 창 빈
			45649	조 상 현	152524	이 진 우	152578	최 범 준	152632	김 시 은	152686	문 주 아	152740	남 진 우	152794	유 금 해	152848	서 유 석	152902	전 시 현	152956	박 현	153010	전 진 서	153064	김 가 현	153118	이 시 현
5단	45650	강 민 우	152525	박 서 진	152579	우 민 호	152633	김 요 한	152687	유 태 군	152741	배 진 성	152795	김 선 아	152849	임 지 원	152903	황 인 호	152957	박 찬 민	153011	이 세 이	153065	장 영 훈	153119	김 민 우		
15733	황 보 배	45651	이 지 윤	152526	김 해 울	152580	김 동 범	152634	최 인 규	152688	김 준 성	152742	송 지 혁	152796	김 선 우	152850	김 진 현	152904	윤 서 준	152958	임 준 영	153012	이 수 현	153066	성 연 준	153120	김 현 수	
15734	김 현 철	45652	윤 예 준	152527	정 다 현	152581	정 찬 형	152635	장 규 진	152689	강 민 정	152743	홍 성 혁	152797	김 한 별	152851	구 민 철	152905	전 용 권	152959	조 현 서	153013	이 소 아	153067	박 민 진	153121	황 인 우	
		45653	배 은 민	152528	허 정 빈	152582	박 선 우	152636	박 세 진	152690	권 대 영	152744	이 민 준	152798	류 다 영	152852	염 민 준	152906	안 서 영	152960	이 윤 채	153014	백 송 희	153068	김 수 현	153122	오 지 훈	
4단	45654	손 지 민	152529	오 예 찬	152583	진 세 현	152637	최 형 호	152691	최 천 일	152745	이 채 은	152799	박 길 은	152853	박 주 령	152907	이 지 원	152961	홍 유 준	153015	김 지 수	153069	서 현 우	153123	이 다 연		
	27278	오 다 윤	45655	김 정 은	152530	유 시 안	152584	임 호 진	152638	김 대 영	152692	김 성 옥	152746	김 다 훈	152854	설 지 환	152908	김 정 성	152962	방 규 리	153016	배 상 은	153070	홍 가 은	153124	이 지 현		
	27279	문 다 슬	45656	최 정 임	152531	이 승 찬	152585	김 재 원	152639	장 지 원	152693	하 다 현	152747	문 병 수	152855	최다니엘	152909	최 수 빈	152963	정 세 빈	153017	신 재 희	153071	박 은 진	153125	김 기 원		
	27280	오 연 주	45657	안 민 준	152532	이 승 원	152586	이 정 옥	152640	이 광 우	152694	이 희 성	152748	임 선 우	152856	반 성 재	152910	이 동 옥	152964	이 준 섭	153018	이 종 태	153072	권 동 혁	153126	오 민 수		
	27281	박 종 승	45658	최 연 성	152533	김 예 은	152587	이 성 민	152641	윤 용 수	152695	홍 지 후	152749	신 희 준	152857	김 두 현	152911	정 지 원	152965	김 소 연	153019	기 호 준	153073	장 원 준	153127	오 세 훈		
	27282	김 병 수	45659	박 경 로	152534	전 서 현	152588	이 승 환	152642	김 민 호	152696	강 보 석	152750	유 도 훈	152858	공 희 국	152912	박 대 현	152966	박 소 영	153020	배 준 석	153074	김 다 송	153128	정 유 나		
	27283	김 윤 호	45660	모 민 서	152535	최 성 혁	152589	김 가 빈	152643	장 세 완	152697	김 도 원	152751	장 우 진	152859	임 지 후	152913	최 무 원	152967	지 수 빈	153021	진 수 정	153075	백 종 현	153129	김 두 성		
	27284	손 건 우	45661	원 동 재	152536	나 용 수	152590	정 다 솜	152644	정 현 우	152698	제 천 수	152752	김 우 주	152860	김 동 현	152914	박 한 선	152968	한 지 희	153022	조 병 현	153076	전 성 호	153130	김 태 민		
	27285	지 용 선	45662	유 다 영	152537	허 준 영	152591	이 제 민	152645	박 성 훈	152699	조 민 준	152753	김 현 준	152861	김 리 후	152915	최 문 광	152969	우 승 남	153023	강 대 현	153077	정은혁	153131	박 강 호		
	27286	방 지 원	45663	류 은 재	152538	전 하 진	152592	정 민 재	152646	한 진 아	152700	현 정 훈	152754	최 준 형	152862	홍 재 훈	152916	이 용 진	152970	김 동 우	153024	남 형 렬	153078	천 동 인	153132	조 수 찬		
	27287	박 건 희	45664	박 재 선	152539	하 승 원	152593	정 민 석	152647	이 희 원	152701	이 윤 겹	152755	김 가 람	152863	신 혜 원	152917	경 민 석	152971	윤 가 연	153025	박 지 희	153079	허 준 서	153133	정 수 빈		
	27288	김 도 연	45665	김 채 은	152540	박 시 우	152594	엄 재 민	152648	강 보 성	152702	이 형 준	152756	이 종 훈	152864	김 현 동	152918	서 준 덕	152972	이 유 나	153026	정 구 영	153080	조 인 성	153134	강 민 지		
	27289	정 세 준	45666	은 성 준	152541	박 지 호	152595	유 정 훈	152649	홍 수 현	152703	박 한 준	152757	김 서 진	152865	이 지 은	152919	정 택 현	152973	이 재 흔	153027	정 별	153081	김 기 범	153135	이 길 호		
	27290	이 지 윤	45667	위 성 혁	152542	김 재 후	152596	이 승 원	152650	신 승 준	152704	신 현 식	152758	이 루 나	152866	최 윤 석	152920	최 민 석	152974	이 채 은	153028	조 수 영	153082	송 민 준	153136	조 유 준		
	27291	김 태 윤		2단	152543	박 준 성	152597	김 희 준	152651	김 한 결	152705	조 현 제	152759	김 민 식	152867	최 예 진	152921	황 윤 주	152975	고 유 라	153029	이 주 현	153083	김 현 광	153137	최 호 정		
	27292	유 민 우			152544	황 현 우	152598	안 나 혁	152652	최 성 혁	152706	강 진 솔	152760	나 민 주	152868	김 로 우	152922	손 효 리	152976	오 세 진	153030	설 민 준	153084	이 한 울	153138	장 용 준		
			152491	고 정 원	152545	박 채 연	152599	황 준 결	152653	김 남 훈	152707	김 태 규	152761	김 지 훈	152869	이 세 연	152923	김 민 서	152977	최 예 진	153031	김 남 철	153085	양 건 하	153139	김 경 민		
3단	152492	정 지 후	152546	류 호 준	152600	이 수 언	152654	김 현 수	152708	오 윤 호	152762	박 시 형	152763	김 동 옥	152870	이 상 빈	152924	염 수 현	152978	이 유 빈	153032	김 재 엽	153086	정 유 진	153140	이 동 준		
45618	정 우 진	152493	정 지 후	152547	김 시 완	152601	이 장 노	152655	김 재 윤	152709	박 현 철	152764	송 시 완	152765	김 재 원	152871	정 재 훈	152925	우 석 진	152979	우 수 연	153033	송 강 울	153087	안 헤 림	153141	신 은 영	
45619	김 해 원	152494	노 경 원	152548	유 진 성	152602	홍 민 성	152656	이 나 연	152710	백 태 웅	152766	김 지 민	152767	박 용 하	152872	변 하 정	152926	손 준 호	152980	이 윤 아	153034	석 현 수	153088	송 희 준	153142	이 서 진	
45620	정 재 훈	152495	박 민 기	152549	김 현 명	152603	김 준 석	152657	김 현 석	152711	장 승 훈	152768	한 태 현	152769	국 윤 성	152873	김 다 예	152927	조 하 영	152981	김 민 지	153035	이 현 승	153089	이 주 영	153143	이 철 희	
45621	김 동 환	152496	노 민 교	152550	이 상 준	152604	주 용 훈	152658	김 동 휘	152712	고 하 진	152769	김 지 민	152770	김 민 선	152874	이 도 현	152928	유 지 수	152982	정 윤 하	153036	강 민 서	153090	장 다 은	153144	손 호 진	
45622	박 지 환	152497	하 도 권	152551	고 준 혁	152605	권 혜 원	152659	서 유 빈	152713	지 훈	152771	이 현 우	152772	이 은 빈	152875	권 현 진	152929	윤 세 연	152983	김 채 연	153037	이 로 이	153091	연 다 은	153145	이미리내	
45623	박 경 민	152498	이 지 형	152552	채 수 영	152606	유 새 은	152660	정 서 윤	152714	김 가 은	152773	이 연 지	152774	양 선 진	152876	김 준 휘	152930	주 윤 서	152984	최 형 근	153038	정 해 윤	153092	오 수 영	153146	오 세 빈	
45624	박 성 빈	152499	황 규 석	152553	손 제 민	152607	방 기 태																					

153170	허 지 영	153224	황 세 원	10673	김 희 강	10727	전 지 현	10781	김 현 우	10835	이 지 석	10889	김 서 울
153171	남 태 준	153225	황 현 서	10674	이 찬 희	10728	윤 건 우	10782	윤 승 후	10836	전 윤	10890	양 선 우
153172	김 도 현	153226	이 수 현	10675	박 래 민	10729	김 도 원	10783	최 시 우	10837	전 지 우	10891	김 건
153173	김 성 철	153227	박 형 민	10676	김 서 준	10730	노 룬 건	10784	김 시 현	10838	정 승 리	10892	김 민
153174	원 준 혁	153228	정 인 호	10677	정 주 완	10731	조 서 울	10785	김 은 우	10839	정 승 주	10893	안 하 린
153175	신 승 호	153229	임 현 준	10678	허 은 찬	10732	김 재 원	10786	박 성 은	10840	조 지 운	10894	이 현 인
153176	이 승 주	153230	김 민 석	10679	김 은 성	10733	윤 지 환	10787	박 세 웅	10841	조 한 검	10895	심 지 원
153177	이 서 연	153231	정 의 현	10680	공 태 이	10734	윤 지 호	10788	유 태 우	10842	이 승 재	10896	박 서 준
153178	김 범 수	153232	김 강 민	10681	최 연 호	10735	이 태 준	10789	전 하 윤	10843	최 부 건	10897	김 무 열
153179	김 대 현	153233	강 연 우	10682	하 정 우	10736	김 도 울	10790	이 진 혁	10844	조 민 경	10898	장 서 원
153180	김 현 민	153234	김 용 진	10683	이 예 빈	10737	한 서 연	10791	홍 용 택	10845	김 윤 슬	10899	박 성 원
153181	홍 상 필			10684	이 유 찬	10738	이 혜 원	10792	오 현 서	10846	유 수 혁	10900	박 승 찬
153182	박 주 현	소년 3단		10685	김 태 우	10739	신 연 민	10793	유 은 성	10847	김 지 호	10901	홍 성 빈
153183	윤 상 웅	1424	김 태 준	10686	최 다 온	10740	김 연 우	10794	이 준 서	10848	이 승 리	10902	김 지 완
153184	이 동 희	1425	권 예 서	10687	김 유 준	10741	김 도 준	10795	양 준 호	10849	이 의 리	10903	추 예 준
153185	이 태 경	1426	한 상 준	10688	권 태 원	10742	박 종 하	10796	권 동 건	10850	오 하 은	10904	김 균
153186	손 수 민	1427	진 재 민	10689	서 장 현	10743	최 태 을	10797	이 호 민	10851	박 성 주	10905	정 은 울
153187	오 현 진	1428	배 우 빈	10690	서 유 승	10744	이 지 민	10798	안 성 우	10852	임 승 규	10906	이 서 후
153188	박 시 원	1429	명 연 승	10691	김 준 혁	10745	김 수 현	10799	김 지 후	10853	정 문 수	10907	이 상 후
153189	정 보 진	1430	최 은 호	10692	서 민 기	10746	김 현 수	10800	류 아 인	10854	윤 차 희	10908	이 시 후
153190	김 영 준	1431	장 동 훈	10693	오 승 빈	10747	안 시 훈	10801	양 규 민	10855	신 은 찬	10909	손 현 진
153191	정 준 서	1432	최 경 호	10694	김 민 제	10748	유 준 우	10802	윤 리 원	10856	신 윤 슬	10910	유 현 수
153192	심 동 재	1433	오 정 현	10695	이 호 은	10749	장 철 환	10803	임 지 호	10857	장 석 형	10911	유 준 호
153193	김 남 현	1434	정 희 찬	10696	박 조 한	10750	이 정 후	10804	정 희 철	10858	이 호 형	10912	강 건 우
153194	손 명	1435	정 웅 찬	10697	이 서 진	10751	최 원 후	10805	조 한 결	10859	김 가 유	10913	신 선 우
153195	강 태 양	1436	국 가 룬	10698	이 루 하	10752	박 시 현	10806	오 정 민	10860	이 현 규	10914	김 예 찬
153196	강 민 호	1437	백 서 하	10699	이 호 준	10753	김 도 윤	10807	이 다 빈	10861	윤 상 우	10915	강 서 하
153197	정 명 교	1438	국 가 람	10700	백 단 우	10754	홍 현 택	10808	허 시 현	10862	윤 상 현	10916	이 도 원
153198	박 순 용	1439	전 주 형	10701	고 무 성	10755	강 건 우	10809	강 서 우	10863	임 태 희	10917	김 동 규
153199	신 철 우	1440	김 준 서	10702	신 장 우	10756	임 시 후	10810	도 세 혁	10864	윤 성 빈	10918	조 규 원
153200	김 우 철			10703	백 건 우	10757	김 민 지	10811	김 정 우	10865	이 류 준	10919	추 선 민
153201	이 서 진	소년 2단		10704	주 서 정	10758	조 은 찬	10812	양 서 희	10866	이 하 윤	10920	김 아 진
153202	곽 태 영	10652	이 지 석	10705	김 나 울	10759	박 동 하	10813	이 예 찬	10867	길 준 호	10921	위 너 울
153203	김 정 원	10653	김 도 윤	10706	김 리 원	10760	강 서 울	10814	이 예 은	10868	장 지 겸	10922	김 대 건
153204	이 영 빈	10654	김 우 주	10707	전 예 준	10761	강 수 현	10815	오 서 준	10869	서 민 찬	10923	이 승 민
153205	이 소 애	10655	김 주 원	10708	최 희 운	10762	최 민 서	10816	이 서 호	10870	강 은 서	10924	황 서 현
153206	주 승 환	10656	최 호 현	10709	윤 도 균	10763	이 호 정	10817	윤 시 현	10871	백 두 산	10925	황 서 후
153207	김 예 은	10657	최 태 준	10710	정 태 준	10764	이 연 재	10818	김 주 혁	10872	강 의 원		
153208	이 지 예	10658	최 윤 우	10711	이 호 성	10765	김 유 신	10819	윤 태 균	10873	김 경 수		
153209	강 정 민	10659	강 태 윤	10712	이 승 현	10766	김 은 유	10820	이 현 준	10874	이 희 윤		
153210	임 현 민	10660	심 효 우	10713	양 도 우	10767	이 주 한	10821	이 승 리	10875	김 주 혁		
153211	이 찬 민	10661	이 윤 형	10714	김 준 서	10768	최 호 준	10822	윤 종 찬	10876	강 명 진		
153212	김 동 웅	10662	조 지 원	10715	김 태 인	10769	박 찬 호	10823	박 시 현	10877	박 채 연		
153213	안 대 호	10663	김 라 현	10716	최 정 원	10770	김 지 후	10824	최 지 수	10878	국 가 건		
153214	김 담 희	10664	김 시 현	10717	김 상 현	10771	성 이 수	10825	이 아 안	10879	이 도 건		
153215	김 민 재	10665	강 민 재	10718	황 태 윤	10772	이 종 운	10826	김 여 진	10880	유 소 의		
153216	전 호 민	10666	유 채 호	10719	황 세 준	10773	장 현 호	10827	김 주 원	10881	박 준 영		
153217	김새한솔	10667	김 시 윤	10720	류 범 서	10774	주 찬	10828	나 세 현	10882	김 현 수		
153218	서 성 원	10668	김 성 환	10721	김 무 준	10775	김 태 완	10829	박 성 민	10883	김 종 하		
153219	곽 원 석	10669	한 석 규	10722	김 승 휘	10776	김 지 웅	10830	박 준 후	10884	이 수 경		
153220	오 혜 인	10670	김 기 연	10723	이 예 설	10777	이 준 혁	10831	배 성 빈	10885	최 승 빈		
153221	이 준 영	10671	홍 지 호	10724	남 경 룬	10778	강 민 주	10832	신 민 준	10886	이 호 민		
153222	김 수 연	10672	방 김 다	10725	박 규 민	10779	강 민 규	10833	이 주 희	10887	김 경 훈		
153223	옥 동 은	10672	은 누 리	10726	박 소 이	10780	이 도 윤	10834	이 지 민	10888	김 범 준		

8단	
10499	오 경 환
10500	박 훈 식
7단	
12031	이 상 진
12032	유 성 연
12033	김 재 만
12034	송 재 선
6단	
13250	강 영 길
13251	서 윤 석
13252	이 기 모
13253	김 기 주
13254	장 성 호
13255	김 선 옥
5단	
15735	김 지 훈
15736	김 지 호
15737	이 창 훈
15738	김 경 민
15739	김 민 혁
15740	오 상 섭
15741	양 동 군
15742	권 희 창
15743	박 상 길
15744	소 무 영
15745	김 봉 관
15746	김 상 진
15747	백 승 철
15748	오 승 재
15749	한 정 희
15750	김 진 우
15751	하 주 희
15752	오 현 근
15753	장 호 진
15754	지 윤 서
15755	원 종 훈
15756	조 아 라
15757	김 주 연
15758	서 수 빈
15759	김 재 윤
15760	정 영 문
15761	채 대 기
15762	이 동 석
15763	이 지 수
15764	김 민 식
15765	김 주 호
15766	오 준 성
15767	우 동 명
15768	박 주 연
15769	유 상 현
4단	
27293	전 진 호
27294	김 동 의
27295	우 호 군

153322	구 순 성	153381	정 수 현	153441	정 은 성	153500	김 서 준	153559	심 기 원	153618	송 창 의	153677	김 지 훈	153736	진 도 윤	153795	진 혁 상	10946	권 민 준	11005	전 지 원	11064	허 지 울	11123	정 수 현	11182	이 시 완
153323	최 익 환	153382	김 승 운	153442	김 하 은	153501	정 용 승	153560	박 솔 비	153619	함 경 민	153678	현 진 원	153737	윤 성 환	153796	조 범 일	10947	권 성 준	11006	박 지 훈	11065	윤 주 원	11124	이 현 기	11183	김 민 찬
153324	이 우 철	153383	석 민 수	153443	서 기 범	153502	김 은 서	153561	인 지 환	153620	서 위 립	153679	김 동 건	153738	김 초 현	153797	정 현 민	10948	김 인 진	11007	고 은 찬	11066	김 준	11125	이 정 인	11184	김 현 준
153325	이 도 규	153384	전 지 원	153444	박 지 울	153503	홍 채 원	153562	김 정 원	153621	박 현 주	153680	김 우 진	153739	정 준 혁	153798	박 준	10949	김 현 비	11008	김 정 은	11067	권 태 현	11126	배 서 준	11185	김 정 현
153326	김 보 성	153385	김 준 서	153445	변 재 현	153504	민 서 희	153563	신 현 빈	153622	박 선 미	153681	서 은 혁	153740	김 은 혁	153799	김 창 재	10950	김 성 현	11009	권 강 민	11068	정 승 연	11127	박 지 유	11186	강 은 준
153327	김 병 하	153386	신 은 서	153446	김 태 현	153505	임 성 윤	153564	신 주 호	153623	이 규 호	153682	나 인 호	153741	이 주 완	153800	김 성 현	10951	김 수 연	11010	형 지 호	11069	최 도 윤	11128	박 도 솔	11187	이 연 진
153328	장 민 준	153387	남 승 민	153447	강 영 아	153506	김 민 서	153565	김 충 환	153624	강 호 윤	153683	황 대 협	153742	박 찬 휘	153801	양 준 원	10952	변 지 훈	11011	최 주 안	11070	신 재 희	11129	배 우 빈	11188	허 준 서
153329	김 진 우	153388	이 시 윤	153448	허 료 하	153507	김 낙 영	153566	권 인 후	153625	홍 정 낙	153684	조 승 재	153743	권 진 수	153802	김 창 현	10953	이 하 람	11012	박 지 환	11071	전 지 환	11130	배 교 빈	11189	박 선 호
153330	김 규 민	153389	이 시 현	153449	최 석 현	153508	이 희 주	153567	이 영 권	153626	장 현 서	153685	이 준	153744	최 원 우	153803	강 규 현	10954	나 영 서	11013	이 은 우	11072	천 윤 서	11131	조 윤 호	11190	이 지 민
153331	변 지 수	153390	염 진 울	153450	홍 승 완	153509	최 승 우	153568	황 성 민	153627	최 강	153686	백 시 온	153745	김 이 안	153804	정 시 현	10955	최 예 안	11014	김 윤 후	11073	안 도 연	11132	김 도 희	11191	정 규 민
153332	심 지 수	153391	김 예 울	153451	신 은 호	153510	이 나 영	153569	강 서 연	153628	노 유 립	153687	염 지 목	153746	박 진 수	153805	손 권 우	10956	최 지 태	11015	조 제 호	11074	이 동 유	11133	김 하 임	11192	이 수 혁
153333	윤 정 민	153392	박 성 찬	153452	황 인 태	153511	최 양 길	153570	전 유 찬	153629	서 혁 진	153688	박 준 영	153747	박 지 민	153806	오 영 현	10957	정 준 수	11016	임 승 민	11075	손 예 립	11134	이 사 우	11193	박 시 울
153334	김 예 경	153394	임 도 원	153453	이 현 빈	153512	이 진 수	153571	유 기 준	153630	국 윤 희	153689	최 혁 룬	153748	최 영 룬	153807	권 민 석	10958	안 시 영	11017	최 태 종	11076	신 유 찬	11135	배 수 현	11194	강 종 현
153335	홍 득 기	153395	최 은 찬	153454	이 현 진	153513	김 종 원	153572	김 민 호	153631	신 종 환	153690	임 지 섭	153749	이 서 준	153808	김 태 립	10959	안 준 영	11018	김 효 리	11077	박 승 우	11136	남 효 주	11195	손 승 빈
153336	전 호 재	153396	안 지 민	153455	김 선 아	153514	박 민 규	153573	허 시 유	153632	하 연 지	153691	임 현 수	153750	강 별	153809	이 나 은	10960	임 하 진	11019	김 지 우	11078	고 건 우	11137	이 하 울	11196	남 다 영
153337	남 연 우	153397	윤 석 준	153456	최 은 정	153515	김 태 연	153574	신 승 우	153633	전 재 완	153692	서 재 주	153751	하 도 군	153810	박 유 진	10961	박 강 국	11020	김 민 제	11079	한 주 영	11138	남 우 진	11197	김 주 하
153338	송 주 원	153398	신 유 찬	153457	김 동 주	153516	김 태 희	153575	최 민 준	153634	이 민 상	153693	김 세 영	153752	박 성 원	153811	박 성 환	10962	권 준 우	11021	한 윤 정	11080	송 예 지	11139	이 호 승	11198	정 여 진
153339	고 준 석	153399	김 서 영	153458	황보은채	153517	임 지 현	153576	김 울 연	153635	이 승 준	153694	정 해 찬	153753	권 종 환	153812	김 지 연	10963	최 시 훈	11022	김 도 이	11081	장 재 범	11140	김 노 을	11199	최 우 답
153340	김 현 경	153400	박 예 찬	153459	박 정 현	153518	진 연 수	153577	양 효 빈	153636	박 재 진	153695	김 보 립	153754	차 정 환	153813	전 찬 희	10964	정 재 용	11023	맹 경 환	11082	유 도 혁	11141	전 태 영	11200	박 지 훈
153341	조 주 영	153401	김 사 훈	153460	김 영 웅	153519	김 상 범	153578	육 하 윤	153637	김 도 현	153696	고 지 민	153755	김 나 경	153814	홍 채 은	10965	김 우 현	11024	정 준 수	11083	임 승 택	11142	윤 경 화	11201	최 지 민
153342	김 나 령	153402	조 은 형	153461	조 성 환	153520	송 우 현	153579	손 재 민	153638	이 주 연	153697	이 창 현	153756	문 규 남			10966	진 주 원	11025	정 은 수	11084	지 선 울	11143	천 도 현	11202	김 도 연
153343	김 태 훈	153403	배 서 울	153462	최 창 환	153521	우 상 혁	153580	이 승 현	153639	최 태 식	153698	강 지 호	153757	최 승 빈	소년 3단		10967	신 승 민	11026	노 아 영	11085	이 하 준	11144	김 주 울	11203	황 우 지
153344	한 정 윤	153404	최 준 흥	153463	최 수 민	153522	이 하 영	153581	조 성 찬	153640	유 총 주	153699	박 호 정	153758	박 민 수	1441	장 준 우	10968	강 현 원	11027	박 수 현	11086	임 영 주	11145	남 우 찬	11204	김 세 별
153345	김 경 민	153405	박 용 진	153464	노 영 재	153523	조 혜 빈	153582	육 인 업	153641	권 시 현	153700	조 우 성	153759	강 지 황	1442	문 주 원	10969	최 준 원	11028	이 찬 희	11087	이 혜 령	11146	맹 서 준	11205	최 가 윤
153346	곽 려 경	153406	김 도 은	153465	최 민 석	153524	이 준 희	153583	정 재 근	153642	김 세 훈	153701	김 주 안	153760	김 민 지	1443	박 건 우	10970	김 주 원	11029	김 유 진	11088	이 혜 진	11147	박 은 준	11206	염 태 울
153347	오 민 하	153407	장 성 민	153466	황 찬	153525	왕 지 원	153584	노 승 원	153643	박 주 성	153702	오 지 은	153761	전 선 호	1444	김 주 원	10971	강 휘	11030	임 채 정	11089	신 은 서	11148	김 민 제	11207	강 우 준
153348	강 유 정	153408	이 준 성	153467	정 선 우	153526	김 서 희	153585	박 새 립	153644	신 현 섭	153703	정 애 진	153762	안 인 혁	1445	유 현 동	10972	조 윤 서	11031	오 도 영	11090	이 태 윤	11149	최 영 재	11208	김 지 환
153349	박 시 현	153409	최 성 대	153468	윤 현 준	153527	황 정 현	153586	김 해 정	153645	최 민 석	153704	안 지 빈	153763	최 소 윤	1446	김 도 현	10973	배 성 빈	11032	박 준 민	11091	장 수 현	11150	유 진 서	11209	김 태 빈
153350	남 태 현	153410	홍 의 준	153469	임 찬 윤	153528	박 진 형	153587	조 수 아	153646	문 종 하	153705	김 윤 서	153764	황 우 경	1447	김 선 울	10974	박 예 찬	11033	이 지 호	11092	신 은 재	11151	김 솔 우	11210	이 규 호
153351	김 효 구	153411	이 용 준	153470	지 대 울	153529	김 나 희	153588	이 용 준	153647	김 상 훈	153706	우 창 운	153765	김 우 빈	1448	심 승 현	10975	우 민 호	11034	이 승 현	11093	이 소 윤	11152	정 창 연	11211	권 범 석
153352	신 지 후	153412	박 현	153471	강 유 진	153530	홍 석 현	153589	김 진 명	153648	김 태 영	153707	최 하 승	153766	고 유 미	1449	조 은 울	10976	이 서 환	11035	박 태 하	11094	김 산	11153	채 현 식	11212	양 훈
153353	정 원 석	153413	정 지 혜	153472	김 진 호	153531	원 도 훈	153590	이 태 훈	153649	송 민 재	153708	김 민 재	153767	정 선 우	1450	이 진 형	10977	김 리 안	11036	유 수 민	11095	조 한 영	11154	서 지 후	11213	김 지 형
153354	이 초 은	153414	윤 승 호	153473	박 준 서	153532	이 승 훈	153591	한 원 삼	153650	김 범 준	153709	방 준 호	153768	문 성 진	1451	고 동 환	10978	김 지 호	11037	소 서 진	11096	유 다 울	11155	채 지 식	11214	임 재 상
153355	윤 주 희	153415	김 선 후	153474	김 성 민	153533	신 윤 성	153592	권 은 지	153651	심 재 영	153710	서 형 준	153769	김 하 영	1452	김 주 원	10979	이 예 성	11038	이 재 용	11097	남 태 윤	11156	윤 지 용	11215	박 시 우
153356	이 준 호	153416	김 민 혁	153475	김 민 정	153534	이 채 령	153593	조 혜 민	153652	안 준 태	153711	김 의 찬	153770	최 현 옥	1453	이 태 규	10980	안 수 광	11039	정 우 영	11098	한 재 진	11157	한 수 현	11216	김 준 우
153357	조 태 인	153417	유 성 현	153476	한 지 민	153535	김 택 호	153594	이 치 동	153653	이 도 영	153712	진 제 형	153771	홍 우 석	1454	김 태 위	10981	박 신 영	11040	박 시 우	11099	박 건 우	11158	이 민 재	11217	허 연 우
153358	윤 지 원	153418	김 울 하	153477	최 이 삭	153536	정 영 모	153595	한 승 연	153654	지 우 진	153713	최 예 답	153772	김 서 량	1455	이 재 희	10982	이 태 민	11041	김 민 영	11100	고 현 서	11159	정 시 은	11218	고 승 운
153359	조 성 빈	153419	안 태 북	153478	이 은 별	153537	최 현 호	153596	조 경 연	153655	최 유 민	153714	박 치 혁	153773	김 우 근			10983	이 방 현	11042	조 범 진	11101	박 건 우	11160	최 호 현	11219	고 지 원
153360	김 응 조	153420	이 주 현	153479	윤 다 현	153538	홍 승 표	153597	황 미 립	153656	윤 태 인	153715	박 준 혁	153774	이 지 민	소년 2단		10984	안 도 윤	11043	장 시 준	11102	김 솔 민	11161	윤 정 현	11220	최 주 환
153361	박 원 우	153421	백 시 현	153480	이 진	153539	신 민 경	153598	안 도 현	153657	신 재 민	153716	김 우 김	153775	이 서 진	10926	황 원 철	10985	강 승 원	11044	이 울	11103	황 주 한	11162	신 민 준	11221	박 재 완
153362	김 영 광	153422	강 태 주	153481	이 승 연	153540	박 서 희	153599	지 한 결	153658	지 승 민	153717	이 민 기	153776	김 재 경	10927	정 하 답	10986	김 민 재	11045	홍 채 범	11104	이 재 강	11163	정 연 우	11222	강 재 형
153363	최 재 유	153423	박 근 호	153482	김 준 혁	153541	손 봉 현	153600	정 기 섭	153659	박 서 희	153718	김 동 민	153777	이 재 희	10928	홍 의 준	10987	전 지 성	11046	예 윤 솔	11105	윤 서 준	11164	김 도 성	11223	김 태 오
153364	박 기 범	153424	김 지 수	153483	김 재 현	153542	최 다 영	153601	김 동 윤	153660	김 다 온	153719	하 준 혁	153778	최 아 영	10929	김 도 연	10988	마 서 진	11047	박 소 민	11106	김 솔 찬	11165	김 경 석	11224	권 우 혁
153365	양 승 효	153425	심 효 정	153484	전 현 서	153543	조 현 진	153602	기 용 훈	153661	한 승 민	153720	김 채 은	153779	고 지 우	10930	이 시 울	10989	임 시 완	11048	김 태 양	11107	정 재 원	11166	남 승 국	11225	홍 채 아
153366	허 성 준	153426	김 호 윤	153485	진 원 빈	153544	백 민 규	153603	김 민 웅	153662	채 유 찬	153721	이 수 혁	153780	양 혁 재	10931	이 건	10990	박 수 범	11049	서 인 후	11108	정 예 원	11167	임 휘 소	11226	김 대 현
153367	지 다 인	153427	조 수 정	153486	박 주 현	153545	배 지 성	153604	이 하 람	153663	손 동 역	153722	김 대 영	153781	김 승 원	10932	이 성 운	10991	김 무 진	11050	남 해 성	11109	함 정 민	11168	한 요 셉	11227	고 승 한

딱 하나의 영양제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당신의 그 생각을 알기에 [더블엑스]는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정도를 넘어, 지키는 것까지 생각하고
한국인에게 맞는 영양 조합은 무엇인지 더 꼼꼼하게 생각하고
많은 영양소를 넘어, 좋은 영양소를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영양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포뮬러]
[원재료의 영양을 담아내기 위한 뉴트리라이트 컨센트레이션 테크놀로지]
[뉴트리라이트 자체 건강 연구소 + 약 2,400만㎡ 이상의 광대한 자체 생태계농장]

당신을 위한 ‘딱 하나의 영양제’가 되기 위한 생각,
[더블엑스]의 진심입니다.

#딱_하나의_영양제 #영양제를_딱_하나만_고른다면
#뉴트리라이트_과학의_결정체
#한국인의_건강공식 #한국인_맞춤_영양_설계

더블엑스™



“나에게 이로운 AI, 없을까?”

라는 당신의 고민에
한번 더 생각합니다.

거창하고 어렵기만 한 AI가 아닌,
고객의 일상에 손쉽게 쓸모 있게.

은행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AI를.

나에게 이롭게. 나에게 AI롭게.

나에게 이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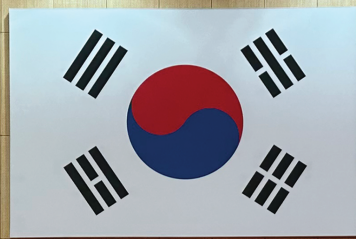
모두에게 쉽고 편리하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 시 은행원

[서울 중구 서소문(시청역 9번 출구)에 위치함 시 보러지는
세 기술을 적용한 금융 업무를 통해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J U D O



아디다스 컴뱃스포츠
ADIDAS COMBAT SPORTS KOREA

WEBSITE : www.acskorea.co.kr
INSTAGRAM : @acskorea_judo
TEL : 02-3019-3808

아디다스 유도 공식 대리점
(주)큰산컴퍼니

TEL : 010-7557-1371
ADD : 부산 남구 대연동 243-7



주도코리아 유도복

아디다스 컴뱃스포츠는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팀을 후원합니다.

JEWOO INTERNATIONAL CO.,LTD.
서울 서초구 명달로 65 일흥스포타운 4층